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제작사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1월 16일(음력 10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552 호

‘불교와 사회’ 포럼 창립된다

23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첫 세미나 개최

불교의 관점에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포럼이 설립된다. 11월 23일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한다’는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여는 ‘불교와 사회 포럼’은 불자지성인들의 거대 토론 마당이다.

‘불교와 사회 포럼’은 이평래(한국불교학회장) 김광삼(현대불교신문 사장) 김규칠(전불교방송 사장 국민대 객원교수) 김용표(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성태용(우리는 선우 이사장) 교수 등이 ‘불교 불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대표로 참여해 결성했다. 공동대표들은 11월 1일 모임을 갖고 “정례포럼과 수시 포럼,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사회 · 정치 · 경영 주제
전체 참가자 토론에 참여

또 “많은 이슈를 내세워 요란하게 떠들기 보다는 우리 시대 공통의 화두를 엄선하여 깊게 논의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워 공허한 주장만 내세우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 하는 틀을 잃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을 담은 창립취지문도 확정했다.

‘불교와 사회 포럼’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집중적인 이슈개발과 토론의 장을 열어 나갈 방침이다.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세미나에서는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가 ‘불교와 현대사회’를,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가 ‘불교와 정치’를, 서강대 경영대학 노부호 교수가 ‘불교와 경영’를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동국대 김종욱 교수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각범 교수,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소장 등이 나선다. 무엇보다 이 세미나는 발제자와 논평자 외에도 청중들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대폭 제공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의 사회로 80분간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성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가치 충돌을 극복하고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불교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짚을 계획이다. 조 교수는 “달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는 손가락은 잘라버려야 한다”는 다소 강한 어조로 오늘의 불자들이 불자답게 살기 위해 고쳐야 할 점들도 지적한다.

박세일 교수는 오늘의 한국정치는 두 가지의 중병(重病)에 걸려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의 분열과 갈등 조장’과 ‘과거와의 전쟁’이 그것. 이 두 가지 병의 치료방법은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 박 교수는 “불교를 내세워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를 내세워 불교를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자의 병은 방일(放逸)에 있다”고 비판한다.

노부호 교수 역시 매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교와 경영의 관계를 정의한다. 인간의 생명력과 잠재력을 키워 경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 노 교수의 논지다.

▮회원가입…푸짐한 혜택

‘불교와 사회 포럼’에는 불자지성인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 연말 이전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계간지 ‘불교평론’ 1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이 수록된 CD와 1년 무료구독권을 증정한다.(02)2004-8233.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11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환영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중국 불교협회 상무부회장 성후이 스님(맨 오른쪽)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中 법문사 지골사리 한국왔다 (指骨舍利)

이운봉행위, 11일 조계사서 환영법회
내달 3일까지 서울, 8~20일 부산서 친견 가능

세계 유일의 부처님 손가락뼈인 ‘지골사리(指骨舍利, 이하 불지사리)’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불지사리 한국이운봉행위원회(공동위원장 홍파 · 혜총)와 중국불교협회 1500여명의 불지사리 이운 봉행단(단장 성후이)은 서안 법문사에 봉안돼 있던 불지사리를 11월 11일 새벽 5시 한국에 들여온 뒤 8시 50분경 조계사로 이운했다.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지사리 환영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진신사리를 친견하면 마음에 신심이 절로 나고 또 모든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 귀중한 사리를 한국에 모시는 것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상무부회장 성후이(聖輝) 스님도 “1987년 법문사 지하궁에서 발견된 불지사리는 1700여 년간 중국을 지켜준 성보”라며 “1994년 태국, 2000년 대만, 2004년 홍콩에 이어 네 번째로 한국불자들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 올림픽 펜싱경기장 특별법당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비롯한 1500여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지사리 친견 및 법문사 지하궁 유물 한국 특별전’ 입재식을 봉행하고, 한국에서의 친견법회가 원만하게 회향되기를 발원했다.

입재식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불지사리 친견은 한국불교 의 또 다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나보다는 남과 이웃을 위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친견이 잘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중국 당나라 시대 국보급 유물 30여점을 함께 볼 수 있는 불지사리 친견은 서울(11월 11일~12월 3일)에 이어 12월 8~20일 부산 벡스코 특설법당에서 계속된다.

불지사리는 기원전 485년 부처님이 열반한 뒤 7일간 계속된 다비식에서 나온 길이 4cm의 손가락뼈 사리로, 전국시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뒤 법문사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자연재해로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87년 법문사 진신보탑의 지하궁전이 발견되면서 유물 3000여점과 함께 발굴됐다.



부처님 손가락뼈사리(길이 4㎝).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타이완 茶문화 현장답사 28면

가장 빠른 불교뉴스 buddhanews.com

출가연령제한 ‘50세’로

조계종 중앙종회, 내년 예산 240억 승인

조계종의 출가연령제한이 50세 이하로 환원됐다.

11월 11일 속개된 제169회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는 교육법 제55조를 개정, 40세 이하로 제한한 행자교육원 입교자격을 5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예산 240억 7467만9000원을 승인했다.

2002년 제15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일부 고령 출가자들이 수행풍토를 어지럽히는 등 대중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출가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춘이후 그동안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율원, 선원 관계자들의 출가연령제한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종회에서는 또 소청심사위원에 경성 스님, 호법분과위원장에 무이 스님, 법규위원에 천제, 법의 스님을 선출했다.

한편 논란이 돼 왔던 영축총림 방장 추대 동의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동의의 건은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남동우 · 조용수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재임

정기중앙종회서 선출
내년 예산 153억8천 승인

태고종 제 23세 총무원장에 운산 스님이 당선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는 11월 10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 91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제 23세 총무원장에 단독출마한 운산 스님을 선출(관련 인터뷰 3면)하고, 2006년도 예산 153억8326만3000원을 승인했다. 올해 태고종 총예산 153억여원 중 전승관 건립불사금으로 70억원이 포함됐다. 또 태고종은 이날 종회에서 중앙사정원 원장에 월운 스님(서울 보문사), 부원장에 청봉 스님(양평 용천사)을 각각 선출했다.

김원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돌아보며
어울리는 삶
-밀행제일 라훌라
재연 스님
11월 16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그림 · 조태호

운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법왕청 오존불 점안 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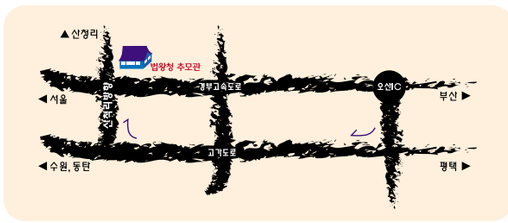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법왕청 오존불 점안법회**”(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대법회에 **대호 큰스님을 증명 대 법주로 모시고 점안식에는 무형문화재 9호 혜읍큰스님**과 각계 대덕스님을 모신 가운데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에서 오존불 부처님 점안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약사여래불

● **행사일시 :** 불기2549년 11월 20일(일요일)
1부. 방생법회 : 10시 30분(산척저수지)
2부. 점안법회 : 오후 1시 30분(법왕청 3층 대법당)
3부. 노인위안잔치 및 가수공연 오후 3시30분(법왕청 1층)
4부. 점등식 : 오후 6시부터(점등법회)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448번지(법왕청)
● **접수처 :** 법왕청 031)377-1081 / 재단 02)3216-3216
총무총정(부산 황정사) 051-861-6645

財團法人 世界佛教法王廳 平和財團
World Buddhist Supreme Tathagata Followers Peace Foundation. Inc
總務總正 湟井 羅明國
理 事 長 曇華 李存榮



참석자 전원 식사제공, 선물증정

우110-84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76번지 귀빈빌딩 5층 전화 02)3216-3216 / 전송 02)379-7676 이메일 wbstf@yahoo.co.kr

“이론·실천 두 전공체제로” 불교대발전위

종호스님 등 “일방적 학제변경 안될 말”

동국대불교대발전위 공청회서 ‘학제개편’ 놓고 격론

동국대 불교대학을 ‘이론불교’와 ‘실천불교’ 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11월 11일 열린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 이하 발전위)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학과, 인도철학과 교수들의 반발이 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 위원인 조용길 교수(불교대학장)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현행 불교학부의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등 3개과 체제를, 전문연구 인력교육을 위한 ‘이론불교전공(불교사, 역경 등 순수학문중심)’과 대사회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실천불교전공(포교, 복지, 문화 등 실용학문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원도 이론연구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실천불교를 연구하는 불교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위해 일반대학원에는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의 현행학과를 유지하지만, 불교대학원은 기존 불교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장례문화학과 등 4개학과에서 불교학과를 폐지하고 포교전법학과와 불교상담심리학과를 신설, 5개학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청회 논평자로 나선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은 “불교대학을 대표하는 학장이 ‘학부에서의 선학 전공 폐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학이라는 학문이 학부에서 그렇게 쉽게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고, 한국불교사와 종단적 입장에서 그 정도의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문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교수도 “발표안은 ‘3개 전공의 재통합’이 아니라 선학 전공과 인도철학 전공 폐지를 통한 불교학 전공만의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인도철학과 교수들 전체는 신입생 모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도철학’이 명시되지 않는 안이라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제기되고 추진되든지 분명히 반대할 것”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논란 속에서도 발전위 안과는 별도로 선학과와 인도철학과의 발전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종호 스님은 ‘선사상, 선종사, 선문화, 선전’ 중심의 현 선학과 교과를 ‘선학’과 ‘응용선학’으로 구분하고, 선학 전공자가 졸업 후 ‘자기수행 심화’ 또는 ‘선 지도자’ 양성을 학과의 교육목표로 ‘선학과 교과과정 개편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선학이론, 수행법, 유관학문, 지도방법론 등을 이수할 경우 졸업 후3급(학부), 2급(석사과정), 1급(박사과정)의 ‘선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호성 교수도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지향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과목의 해소를 위해 1,2학년은 불교학부로 3,4학년은 ‘선학’ ‘인도철학’ ‘동아시아 불교학’ ‘불교생태학’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간화선으로 본 금강경’ 동안거논강

중앙신도회 23일부터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간화선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조계사 극락전에서 11월 23일부터 11차례에 걸쳐 ‘간화선으로 본 금강경’을 주제로 한 재가자 동안거 논강을 개최한다.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되는 이번 논강에서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진명, 신도국장 원철,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서 간화선과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전해줄 예정이다.

또 논강 중간과 회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이 각각 ‘조계종의 간화선과 소의경전 금강경’, ‘간화선으로 본 금강경’을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며, 내년 2월 25~26일에는 축서사에서 회향수련회가 이어진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권오국 교육팀장은 “종단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간화선풍 확립작업에 동참하고 재가자들이 실참실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재가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02)733-7277

유철주 기자

정동채 장관 등 지관스님 방문 잇따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 장관은 “불교계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큰스님을 모시고 북한의 사찰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청와대 불자회 김병준 회장 등도 각각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동채 장관은 “스님께서 불교대사전을 집필하시는 것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리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유철주 ·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수행은 종단 발전의 원동력”



지침서·지도자육성·공간확보 시급

공의모아 탄탄한 로드맵 먼저 그려야

총무원장, 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 등 선출직에 대한 선거를 치를 때 마다 조계종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선거가 과열되거나 금권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세속의 선거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 뿐 아니라 종단내의 각종 갈등구조와 관련된 세상의 ‘주목’은 조계종을 수행과 전법의 집단으로 보기보다 ‘정치집단’으로 보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조계종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중요한 사례다.

조계종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수행과 전법의 사명에서 찾아야 한다. 조계종의 구성원인 사부대중이 수행과 전법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풍토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수행 종단 확립’이라는 현실적 화두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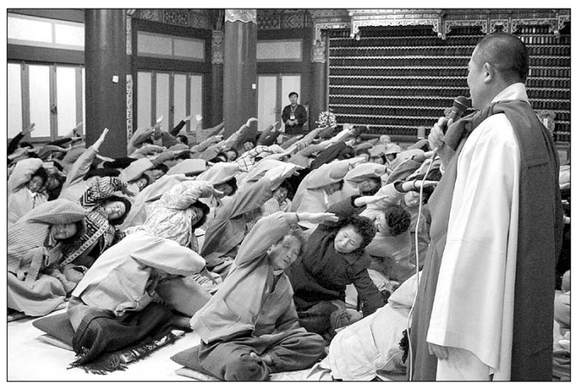
‘수행’은 시대적 소명

21세기는 ‘수행의 시대’다. 물질만능의 시대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정신문화를 추구하는 ‘수행열풍’이 다시 강하게 불고 있다. 이제 그 열기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이 ‘수행종단’으로 다시 태어나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은 ‘수행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수행이 근본적인 힘이 돼야 불교가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나눔’ ‘환경보호’ 등 21세기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불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결국 수행풍토가 갖춰진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다.

1990년대 이후 참선 염불 간경 등 전통수행법 이외 위빠사나 등 새로운 수행법들이 보급되면서 ‘수행법 난립’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단 수행체계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들이 제3 수행법들에게 밀려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행지침서와 수행을 가르칠 지도자의 부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출·재가자들이 기초적인 수행에서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수행법을 배우고 실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린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수행열기의 뜨거움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법회 직후 진행된 실참시간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재가자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리 위주 교육을 넘어서서 불교의 참맛을 느끼는 수행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재가자들이 공부할 전문수행센터 건립, 수행전문 지도자 육성, 재가자용 수행지침서 발간 등이 이뤄져야 한다.

포교원 관계자는 “재정적 뒷받침과 수행 종책을 입안할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수행풍토 진작은 어려운 일”이라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입안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

지관 스님은 공약을 통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수행 승가는 성스럽게 지켜져야 할 미래사회의 소중한 대안학교”라며 “수행승가가 배움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기본생활의 계율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킨다면 그 힘은 한국불교의 자신감과 자긍심이 될 것이며, 출가자로서 이 사회와 대중들에게 사표가 되는 근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첫 번째 공약에서 ‘수행종풍 진작’을 내세우고 종단 수행 체계의 정립과 선사상 연구원 설립 및 학술대회 개최를 약속했다. 또한 강원 및 선원 등 수행기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강조했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 “조계종이 수행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원장 스님의 강한 원력으로 조계종이 수행종풍을 진작하는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종책 중심에 수행을

총무원장이란 종단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수행풍토의 진작을 위해 지관 스님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수행활동을 돕는 다양한 종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기 동안 인내심을 갖고 수행에 대한 재정과 예산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종단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행 풍토 진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 구조를 통해 수행과 교육이 포교로 연결될 때 한국불교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또한 수행종풍 진작은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수행종책을 담은 ‘로드맵’를 짜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수행종책을 개발하는 인력양성에도 신경써야 한다.

그동안 수행분위기를 해친 대표적인 이유는 종단불안정이었다. 종단화합과 안정을 달성하고 불사위주, 이벤트 위주로 흐르는 종단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지관 스님 체제의 몫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은 “수행종단을 만들기에 앞서 조계종이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 의원, 각 사찰 주지를 맡은 스님들에게 일정기간 안거나 집중 연수교육을 하도록 하는 ‘순환수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당선기자회견에서 대중의 수행 욕구를 종단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스님은 “내면적인 분야인 수행이라든지 정신적인 것을 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외형적인 불사를 줄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명상 분야 등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선 직후 조계종 원로회의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륜과 원력을 바탕으로 안으로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승가의 위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국민의 정신을 향도하고 도덕과 가치관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행종풍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강유신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2006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모집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Ⅰ.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	전 공	취 득 학 위
불교학과	불 교 학	불교학 석 · 박사
	명 상 학	명상학 석 · 박사
상담심리학 과	상담심리학	상담학 석 · 박사
	자아초월상담학	
	요가치료학	

Ⅱ. 모집인원
1. 석사과정(4학기) : 00명, 연구과정 : 0명
2. 박사과정(4학기) : 0명

Ⅲ.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Ⅳ.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2005. 11. 14 (월)~11. 24 (목)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2. 전형일시 : 2005. 11. 26 (토) 10:00
3.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고사

Ⅴ. 제출서류
1. 석사과정
1) 입학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 박사과정
1) 입학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5) 연구계획서
6) 석사학위 논문개요
7) 연구실적 및 전공 관련 활동사항
8) 전공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

Ⅵ. 전형료 50,000원

Ⅶ. 특전
1.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전공 : 서울대, 고려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철학과의 연계 교육 실시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代) 02)890-2800 (直) 02)890-2811~2
우) 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www.bojangsa.co.kr


보장사 영각당 외부사진


보장사 영각당 내부사진.


보장사 전경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 모집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보문중·고등학교,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이사장·주지: 전덕해스님)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시설이 뛰어납니다.(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수익금을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1호선(관악역) 도보 10분거리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 좌청룡 우백호가 분명한 명당입니다.
◈ 새로 단장한 안양유원지에서 가족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031) 471-3322, (02) 534-4444
우)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324-10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이혼상담전문가

자격 취득한 스님들

'이혼 시대'…가슴속에 응어리진 분노 풀고 화해 유도

이제 스님들도 팔방미인이 돼야 하는 시대다. '세속'을 떠난 스님이지만 신도들의 가장 가까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정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율은 전세계 2위. 전체 부부중 한해 이혼하는 쌍은 35%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이혼가정 자녀들도 18만명에 달한다.

여기 전문이혼상담기법을 배우기 위해 나선 스님들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상담위원회가 주최하고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참여단체로 지원하는 '전국상담전문가 교육대회'에 참가한 도현(서울 정혜사 주지) 선업(서울 봉은사 교육국장) 효경(서울 금선사 한주) 혜타(용인 장경사 총무) 담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사회국장) 스님이 바로 그들이다.

11월 9일 국회헌정기념관 강당에는 300여명의 교육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다. 중간 중간 목회자와 수녀의 모습도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은 단연 돋보인다.

스님들은 불교상담개발원의 추천을 받아 다른 19명의 불교 상담원과 함께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 '전국상담전문가 교육대회'에서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하루에도 3~4번은 이혼관련 상담을 받는다는 도현 스님. 상담과정에서 이해와 노력으로 문제를 극복한 가정도, 무너진 가정도 보았다.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중재를 통해 가족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님은 8년째 진행 중인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에 이번 교육대회를 통해 배운 상담기법을 접목할 생각이다.



담교 스님(사진 앞)이 전국상담전문가 교육대회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혜타 스님 역시 가정문제로 고통받는 사찰신도들을 위해 상담교육을 신청했다. 스님은 "이혼은 해도 고통, 안해도 고통"이라고 말하는 신도들에게 더 이상은 단순히 '하심하고 견디면 가정이 원만해진다'고 말할 수 없었다. 스님은 제대로 된 상담기법으로 고통 받는 가족 구성원들의 분노와 괴로움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평소 불자가족을 위한 상담기법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업스님은 전문상담가가 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앞으로 스님은 교육 경험을 토대로 봉은사 신도를 위한 부부상담, 가족상담 기법을 도입해 프로그램화 할 계획이다.

스님들은 이번 교육대회에서 40시간을 이수하고 '이혼상담 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받았다. 앞으로는 각자의 분야로 돌아가 교육받은 상담내용을 접목해 포교하는 한편, 내년 1월에 열리는 '전국상담전문가 교수양성과정'을 다시 수료할 예정이다.

교육대회 추진위원인 담교 스님은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상담제도를 도입한 뒤로 이혼의사를 철회한 사례가 2배가량 늘어났다.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주고 당사자들간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이은비 기자

언론중재위, SBS에 '수경사 반론보도' 명령

7월 30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수경사 그 후, 사라진 아이들의 진실은?' 프로그램과 관련 언론중재위가 SBS에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6중재부(부장 박정호)는 10월 25일 수경사와 수경사 언론불교대책위가 신청한 반론도보 요청을 받아들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내용을 보도하라고 11월 10일 결정했다.

반론보도문에는 "수경사측은 수경사의 승려들이 아이들을 감금 및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5일 방송된 '수경사의 두 얼굴'과 관련해서도 언론중재위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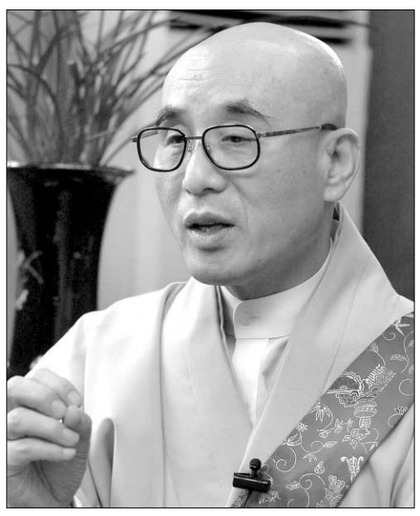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11월 27일 '제1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을 연다.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서울투어시티버스를 이용해 하루 동안 서울 시내와 경복궁을 관광하게 된다. 이은비 기자

"2900여 종단사찰 네트워크화"

인터뷰 태고종 제23세 총무원장 운산 스님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국민과 불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단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속에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제91차 정기중앙종회에서 제 23세 총무원장에 재임된 운산 스님. 스님은 "지난 4년간의 1기 집행부가 종단발전과 중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2기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불사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전승관 불사 등을 완성시켜 종단발전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태고종의 약점인 신행단체의 체질개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전국신도회와 청년회의 조직을 하향식 구조에서 상향식 구조로 재편하겠다"며 "신도들이 사찰신도회 · 청년회→교구종무원신도회 · 청년회→

조-태 분규사찰 대승적 해결 추진

전국신도회 · 청년회로 자연스럽게 상향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방 종무원 중심제에서 지역 중심제로 재편하여 조직강화 및 종무행정 활성화에 무게를 두어 종단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이는 현재 총무원과 지역종무원 분원 사찰로 연결되는 구조를 줄여 중앙 총무원과 종단산하 2900여곳 사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하여 종단의 조직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스님은 "사찰의 본래 기능인 사회정화와 대중교화, 그리고 신도들의 가정 및 직장(사업장)에서의 일상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신행활동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단사찰에 정착시키겠다"며 "상설연수원을 설립하여 종단 스님과 신도들을 교육하고, 여타종단들의 위탁교육도 실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스님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1954년에 발생한 종단분규는 한국불교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한 분규사찰 문제를 종식시켜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이 함께 손잡고 불교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선교육 후득도제도 정착, 태고총림 선암사의 율원설립, 신촌 봉원사 전통불교문화중심도량화, 조태분규 해결, 중앙복지법인 운영활성화, 신도회와 청년회의 상향식 구조 재편, 70여 공사찰의 종단 구심 사찰로의 운영 등 종단중흥불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운산 스님은 1942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60년 대전 대승원에서 이용봉 화상을 은사로 득도 수계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同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75년도부터 총무원 총무부장, 법인 행정원장, 사무총장, 재단법인 이사장, 중앙종회부의장, 재일본 금강사 주지, 총무원 부원장 등 종단요직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사패산 보상금 관련 사과 성명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최근 불거진 사패산 터널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11월 1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철안 스님은 사과문을 통해 "사패산 터널 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진위여부를 떠나 종도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철안 스님은 "사패산 터널 보상금은 3월 22일자로 회수해 회룡사 수행환경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보상비 전액은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안 스님은 이어 "사부대중께 재발방지를 약속드리며, 교구 불교 발전과 수행 · 자연환경 수호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목탁소리

수행환경수호 공염불인가

불교계 환경 업무를 관장해야 할 조계종 환경위 간사가 최근 월급을 받지 못하게 돼 일을 그만뒀다. 2006년 사회부 예산에 환경위 간사 월급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위는 불교환경의제21 실천과 전국 사찰오수정화시설, 사찰수행환경 침해 등 종단과 사찰의 각종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며, 간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종무원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불교계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은 불교계의 환경활동 전반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실무자는 "불교의 핵심이 바로 생명과 환경이고, 이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내년 사업을 계획하다보니 부득이하게 환경 간사 급여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액 기준으로 사업비가 늘었고, 환경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업무량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는 환경 담당 직원 혼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도 무리다.

지난 3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모습을 드러낸 불교환경의제21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점에서 실무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불교문화콘텐츠 개발부진 이유 있다

조현철 교수, 시장부재에서 원인 찾아

불교는 흔히 콘텐츠의 보고(寶庫)로 평가되지만, 막상 들러보면 제대로 된 콘텐츠가 드물다. 하물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현실을 반성하고 불교문화 콘텐츠의 개발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가 11월 4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조현철 경북전문대 교수는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부진의 원인을 시장 부재에서 찾았다.

조 교수는 "대개의 디지털콘텐츠가 2차원 형태에 머물던 90년대 불교계 웹사이트에서는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선도했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모델 역할을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콘텐츠의 진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에 대해 조 교수는 "인적 · 물적 · 기술적 인프라는 구축돼 있으나 시장 형성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그에 대한 처방으로 "불교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시장 창출"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요예측 · 소비자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사 과 문

(사패산 터널 보상비와 관련하여)

귀의삼보하옵고
사패산 보상비 문제와 관련하여 종도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승은 주지 취임 이후로 교구와 지역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저의 작은 소견으로 소방대를 운영하고 환경문화교육장을 마련하는 등 미력하나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근래 문제된 보상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환경사랑의 깊은 의미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간과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의정부 시민들과 사패산에 관련된 모든분들에게 더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상비 운영방안은 사찰부동산관리령 제20조에 의거했으며, 13명의 운영위원의 공론을 거쳐 진행해 오던 중, 지난 2월 불교환경연대의 의견이 있어 이미 3월 22일 자로 전액 회수되어 회룡사 수행환경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이 보상비 전액을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더욱 가치 있게 쓰여 질 것입니다.
큰스님들과 대중스님들을 받들며 교구를 잘 운영하려던 것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사부대중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방의 원로대덕큰스님들과 사부대중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숙여 참회드립니다.
아울러 교구불교발전 및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정진 할 것임을 제불 보살님전에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2549년 11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 합장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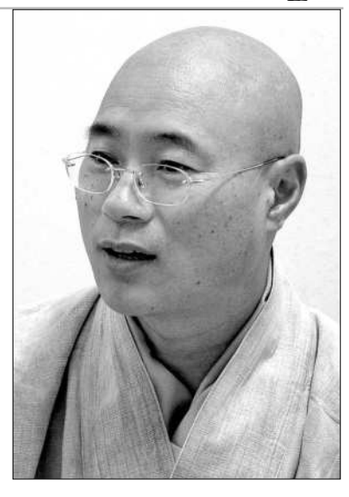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6강 : 세상을 향한 열린 대화! 자비 – 논의제일 가전연

강사 : 지운 스님 (동화사 강주)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1.9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지금 이순간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11월 9일 열린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여섯번째 법회에는 1천여 불자들이 참석해 지운 스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게송이나 법문의 뜻이 너무 심오해서 알아듣지 못할 때 그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분이 논의제일 가전연 존자입니다.

지금 티베트 불교의 강원에는 체다라는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논하는 것으로 '체'는 전쟁, '다'는 법으로 '법의 전쟁'을 뜻합니다. 손은 문수보살 지혜의 칼을 의미합니다. 서 있는 스님이 손뼉을 치면서 '말하라'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앉은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앉은 사람은 불교이고, 서있는 사람은 외도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불교 최고의 대학이었던 나란다 대학 때부터 있어왔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논의제일 가전연 존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가전연 존자의 산스크리트 명은 마하카차야나(Mahakatyana)로 중인도 서쪽 변방에 위치한 아반티(Avanti)의 수도 웃제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반티 국왕인 악생왕(惡生王)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7명의 사신을 보내 부처님을 초청합니다. 그 사신 중에 가전연이 끼어서 가게 됩니다. 가전연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바로 출가를 합니다. 그 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을 비롯해 대중들에게 법문을 해서 교화를 합니다.

가전연 존자에 관한 경전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중아함경 제43권 온천림천경(溫泉林天經) '일야현자(一夜賢善)의 게(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밋디라는 스님이 수행에 앞서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천인(天人)이 나타나서 '일야현자의 게'에 대해 묻습니다. 그 게송을 듣지 못한 사밋디 스님은 부처님에게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게송을 들은 사밋디 스님은 내용이 너무 심오하여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전연 존자를 찾아가 뜻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듯 가전연 존자는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풀어 논의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데 있어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문을 많이 듣는 것, 둘째는 법, 진리를 사유하는 것, 셋째는 실제로 사유의 끝에 서서 내적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야현자의 게' 첫 대목입니다.

부디 과거를 생각지 말고
또한 미래를 원하지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멸했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과연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적 삶은 살지 않고 과거나 미래 속에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의식으로 깨우는 것이 수행

혹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재 이 순간 깨어있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거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면 한번도 깨어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게송은 바로 의식이 현재 이 순간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송광사에 얼굴 잘 생기고 키 크고 풍채 좋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봄날 이 스님이 송광사 아래 신평리 마을을 지나오는데 나물캐던 처녀가 힐끔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처녀 머릿속에 그 스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말로 스님이란 원판은 지나갔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상(想)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속합니까? 과거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생각 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스님 얼굴, 누워서 천장을 보아도 스님 얼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사병이 아닙니다.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스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스님을 찾아 나서려고 옷을 갈아입는 순간이 '생각 사(思)'입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머릿속으로 스님하고 팔장 끼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건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속할까요. 미래입니다.

이제 처녀는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생각 상'이고 미래는 '생각 사'거든요. 그래서 상사병입니다. 처녀가 송광사에 올라와서 스님을 찾으려고 대중방 문고리를 잡고 살짝 열고 보니 스님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양을 거의 다 드신 스님이 물을 부어서 고춧가루가 남아있는 발우를 손으로 씻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생각하기에 저 더러운 물은 버리겠지 했는데 스님이 씻은 물을 홀짝 마시는 겁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마음속으로 '더러워라' 하는 순간 상사병이 깨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과거나 미래를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틈으로 스님을 바라본 순간은 현재였고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현재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남녀간 이성이 아니더라도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상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 명상한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현재의식으로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으로 깨어났을 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현재의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현재의식으로 깨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처녀가 문틈을 지켜보면서 현재의식을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불교에서 정념이라 합니다. 한문으로 정념(正念)이고 번역하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은 매순간 변화를 안다는 것입니다.

매순간 알아차릴 때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화가 치밀면 자기가 화난 줄 모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알아차림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화를 낼 때 내고, 화내는 줄을 알고 화를 냅니다.

수행이 더 들어가면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오다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금 더 공부가 잘 되면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올라오다가 내려갑니다. 수행의 고수는 아예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나니
어느 것도 단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라.
슬기로운 사람은 이렇게 아느니라.

현재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는 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안다는 것은 찻잔 다르고 책상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론에서 어떤 모양이 생긴다는 것은 인과 연이 화합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매순간 변화를 보라

매 순간 찰나찰나 변화를 볼 때 비로소 무엇을 안다 하는 앎이 있습니다. 이런 앎도 그것이 무엇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는 것을 망념이라 합니다. 매순간 변한다고 알면 그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앎 속에는 미세한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특징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수행법도 불교이외에는 알아차림이란 수행이 없습니다.

만일 성인의 행을 행하는 이라면
누가 죽음에 대해 근심하리
나는 결코 그것을 만나지 않으리니
큰 고통 · 재앙은 여기서 끊나리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삶과 죽음을 다 벗어납니다. 남전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마을 어귀를 가는데 마을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큰스님이 오시니 잘 모시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가 덜 된 스님 같으면 내가 잘나서 신인까지 나를 공경하는구나 했겠지만 남전 스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잘 것 없는 신에게까지 나의 행적이 들키다니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했습니다. 마음의 본질이 적멸이거든요. 적멸이 열반입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힘써 행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게으르지 말지니
그러므로 이 바데카랏타게를
언제나 마땅히 설해야 하느니라.

이 게송을 늘 가지고 외우세요. 망상피우지 말고 계속 게송을 읽고 외우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과거나 미래로 갔던 의식이 현재의식으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현재 의식 속에서 자성청정심이 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깨어난다는 것은 오관이 청정해지고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코 입 눈귀가 다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질의응답

문 :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다툽니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상대가 이야기 할 때 잘 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질 급하게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중간에서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화가 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에게 어느 분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연애시절엔 좋았는데 나이 들어 아이들이 생기면서 남편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고 화가 나면 '나무 관세음보살' 하라고 했답니다. 그분은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하루는 남편에게 화가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관세음보살'했더랍니다. 그런데 화가 올라오다가 쑥 내려가더래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기에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화날 조건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것이고 화날 조건이 사라지면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면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날 수 있는 조건에다가 '아이쿠 관세음보살' 조건을 보태니까 화날 조건의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성은 조건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 안 풀리면 대화해서 그때 순간순간 조건을 바꾸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부부싸움뿐 아니라 사업문제, 공부 등 모든 것에 이 지혜는 다 적용됩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종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은 1963년 이법흥 대종사께서 해동 율맥을 전수하시고 창종한 한국불교 정통 종단입니다. 종정 중심제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종단을 유지하였으나,일부 몇사람들의 해종 행위로 정통종단으로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사회법 판결로 해종 행위자들의 행보가 엄연한 위법임을 알려드리며, 전 종도들의 단합으로 종단의 위상을 재 정립하고 법흥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 할것을 당부드립니다.

■ 서울 종로 공평동 소재 송무진외 추종자의 위법 사항

1. 종권 쟁탈을 위해 종정 중심제(종헌3장13조 "종정권한")를 총무원장 중심제로 정당한 절차(종정스님의 공표)를 거치지않고 날조 공표한 사항
2. 송무진은 2000년 10월 23일 본종단 상벌위원회에서 "체탈도첩"이 의결되어 동년 10월 26일 종정스님의 재가로 "체탈도첩"이 확정 공표되어 본종단의 승려 자격을 상실 한데도 불구하고, 본 종단의 명칭으로 불법을 자행한 사항.
3. 송무진은 본종의 승려와 총무원장등 아무런 자격과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개정된 종헌과 종법을 임의로 공표하고, 소외 김상조를 종정에 취임시켜, 종도들을 혼란케하고, 종단을 분열 시킨 사항.
4. 송무진은 2004년 4월 21일 본종의 정식명칭인 "대한불교원효종"을 불법으로 차용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사항
5. 2005년 6월10일 1963년 창종이후 사용한 공식 명칭 "대한불교원효종"을 상업적 목적성을 가진상표 등록하고,본종의 정통불교 이미지를 손상한 사항.

■ 서울 종로 공평동 소재 송무진외 추종자의 위법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

1. 2003년 10월 20일 부산고등법원 판결(99가합16730)과 2004년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2003다64381)로 본 종단은 종정중심제임을 확정 판결하였으나, 총무원장 중심제로 불법단체를 구성하여 종도들을 혼란케 함.
2. 2005년 1월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2004가합1205)에 의해 "종단의 종정과 종회의장 이거나 총무원장 인듯한 지위에서 종단의 명칭을 사용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종의 명칭으로 재단 법인 등록과 상표권 등록을 자행 함.
3. 2005년 9월30일 서울고등법원판결(2004나83268)에 의해 다시한번 송무진이 본종의 법통을 이은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송무진의 종단은 불법임의 단체임이 확인 되었으나, 종단협의회 등에서 본종의 대표자로 행세해 전 불교도들을 기망케 함.

송무진의 불법단체는 다음사항을 즉시 실행하라

1. 서울 종로 공평동 소재 불법단체를 즉각 해체하라.
2. 그간의 불법 사항에 대해 전종도들에게 즉각 참회하라.
3. 불법으로 사용되어온 본종단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등 일체의 상업적 행위에 대해 즉각 지진 철회하라.

송무진측 불법단체에 현혹되신 종도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1. 서울 공평동 소재 불법단체에 현혹되어 승려및 사찰 등록을 하신 종도분들은 조속히 본종 총무원으로 재등록 바랍니다 (문의전화: 051-466-0977,467-3316)
2. 2005년 정기 연말 소득 공제용 납입금 증명서 발행시 본종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에서 발행된 공제증명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최덕산** · 총무원장 **김고산** 합장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내 **전화 051)466-0977,051)467-3316**

‘불심 제일 도시’의 ‘겉과 속’

현익채 법사 ‘간추린 부산불교 50년사’ 발간



부산 지역 어린이, 중고등학생회, 대불련 활동이 90년대에 비해 크게 위축돼 불교의 발전적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30년 전 <부산대학생불교연합회 10년사>를 편찬한 후 꾸준히 부산불교의 현황을 파악 자료화에 주력해온 현익채(금정중 교법사 · 사진)가 11월 5일 펴낸 <간추린 부산불교 50년사>의 자료에서 드러났다.

84쪽 분량의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산불교 단체의 변천을 도표로 정리한 자료.

시대적 변천을 수치 변화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표에서 나타난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등의 현실은 충격적이고 비관적이기까지 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3년, 54개였던 어린이회는 2005년 10월 현재 22개로 절반 이상 대폭 감소했으며 76개였던 중고등학생회는 41개로, 대불련은 22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 · 고등학생회의 경우, 학교 분회가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어느 정도 그 맥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신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찰 분회의 경우 범어사 중학생회, 혜원정사 고등학생회, 한마음선원 학생회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대불련의 경우, 1990년대에는 1500명의 회원을 자랑했으나 현재 106명으로 격감, 향후 대불련의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부산 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과 신도교육은 상당히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분야는 복지시설 및 기관과 불교교육기관, 불교합창단. 1993년 5개에 불과했던 복지시설 및 기관은 2005년 10월에 이르러 29개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16개에 불과했던 교육기관도 52개로 늘어났다. 불교합창단의 경우도 18개에서 37개로 늘어나 음성 포교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어린이 · 학생회 · 청년회 감소폭 ‘아찔’
회원 격감 대불련은 존립 자체 위험
지도교사 양성 등 지속적 관심 절실

부산불교의 명암(明暗)을 여과 없이 보여준 이 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다. 해방 이후 대중불교의 기치를 들고 대각사에서 1949년 불교학생회가 조직된 것을 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약 50년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과 부산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함으로써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

특히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자랑하는 부산불교의 현황 파악을 통해 전국 불교의 현황과 추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부산불교의 전반적인 흐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현익채 교법사가 <부산불교 총람> <부산불교계 인명록> 등을 펴낸 이후 또 다시 발로 뛰는 조사를 벌인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료라는 평이다.

현익채 교법사는 “앞으로 시대에 걸맞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교사 양성 등 종단과 사찰의 지속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있어야 어린이회, 청년회 등 불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시민종교대책위 ‘금정산 고속철’ 항고키로

착공 금지가처분 기각에 따라

범어사(주지 대성)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부산 금정산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 수석부장판사)는 11월 2일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범어사로 구성된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이하 시민종교대책위)’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철 금정산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수유출 우려와 터널의 안전성 문제도 설계시 충분히 고려된 사안으로 현재의 국내 터널굴착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대량의 지하수 유출사태나 안전성의 문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금정산 산성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금정산의 지하수 유출 문제에 대한 감정이 받아들여져 감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고하기로 했다.

범어사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종교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천미희 기자**

“선불교 진면목 알리는 도량될 것”

부산 안국선원 11월 6일 이전개원법회 봉행



부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이 남산동 시대를 맞았다. 11월 6일 개원법회(사진)를 봉행한 부산 안국선원은 210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도심속 수행도량으로 문을 활짝 열었다.

육법공양, 개원축하테이프 절단에 이어진 개원법회는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스님의 연기문, 수불 스님의 인사말, 능가스님의 법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 수불 스님의 은사인 지명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등 대덕 스님들과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김광삼 본사 사장 등 1만여사부대중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수불 스님은 인사말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원력으로 3년여 불사 끝에 새 선원건물을 개원하게 되었다”며 “간화선 수행도량으로 다함없는 정진을 이어가 세계만방에 선불교의 진면목을 알리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2002년 4월 부지를 매입하고 2003년 3월 착공, 2년 6개월여만에 완공 개원한 부산 안국선원은 2100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세 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250평 규모의 법당을 비롯 문화관, 교육관, 탈의실, 차담실, 공양간 등을 갖추고 있다.

1989년 10월 금정포교당을 모체로 출발한 안국선원은 1993년 9월 가야동 안국사로 이전한 이후 재가 불자들의 선수행 도량으로 자리매김해 왔다.(051)583-0993

천미희 기자

동화사 대웅전 옛모습 되찾아

2년 불사 회향 … 염화실 종각 낙성 및 범종 타종식



1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대구 동화사 대웅전(대구시 유형문화재 10호)이 약 2년간의 해체복원불사를 마치고 고색창연한 옛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가 11월 6일 대웅전, 조실채 염화실, 종각 낙성 및 통일 대종 타종식을 봉행했다(사진). 간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주지 지성 스님, 유승민 주성영 국회의원, 정장식 포항시장, 이훈 동구청장, 장영관 대구광역시 및 9교구 신도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복원을 축하했다.

낙성 법요식에서 조실 진제 스님은 대작불사에 동참한 관계자와 신도들에게 한량없는 공덕을 쌓았다고 격려했다.

동화사 대웅전은 침하와 목재 부식 등으로 원형을 상실해감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들의 안전 진단과 자문을 거쳐 2003년 12월부터 해체복원불사를 시작했고, 총 사업비 9억 7천여만원이 투입됐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각화사 동암 신축불사 낙성식

경북 봉화 각화사(주지 노현)가 11월 5일 동암 신축불사 낙성식을, 6일 대웅전 부처님 개금불사 점안식을 각각 봉행했다.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을 비롯한 선방 스님과 불자등 35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동암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30여평 규모로 샤워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배지선 기자

대구 교계 불우이웃돕기 풍성



겨울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 교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과 바자회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반월당 보현사(주지 원일) 다도반이 11월 10일 경내 보현문화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했고, 한마음선원 대구지원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함께 갑시다’라는 주제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사진).

또 24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가 ‘외로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향기 담은 하루찻집’을 대구 수성구 웨딩 한국관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053)476-6631 **배지선 기자**

금정구에 ‘종교의 거리’ 조성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발전 2020, 7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범어사 ‘선문화체험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정구청은 금정구에서 불교, 이슬람과 가톨릭 등 세계 3대 종교가 ‘상생의 한마당’을 펼칠 수 있는 종교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금정구청은 금정구 부곡동~오륜동 1㎞ 구간의 ‘오륜대길’을 ‘순교자의 길’로 개명하고 총 사업비 82억원을 들여 오는 2008년까지 ‘순교자의 거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금정구청은 또 이슬람 부산성원 옆 ‘이슬람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10월 2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내 ‘선(禪)문화체험타운’을 연결해 ‘종교문화의 요람, 금정 벨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사)마하야나문화원(이사장 법혜)이 위탁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관장 종열)이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돼 11월 9일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 지정서와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6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조직운영 관리, 재무관리, 청소년 이용도, 시설안전 등 10개의 모든 부문에서 모두 상위점수를 받았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3년간 시범청소년수련시설로써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053) 761-9400 **배지선 기자**

자비의 통일염원 백일장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는 10월 29일 부산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05 자비의 통일염원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백일장에서는 문정민(예문여고 2년)외 3명이 통일부장관상을, 김민정(혜화여고 2) 외 3명이 부산시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선작 시상식은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열리는 ‘남북학생교류전 및 통일신발후원을 위한 미술전’ 입제식과 함께 열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2005년 정기중앙종회 및 종도대회

을유년 한해 종단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주신 종도제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조 원효성사의 화쟁이념을 받들어 종단의 대화합을 위하여 종도대회를 봉행함과
아울러 2005년도 정기 중앙 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도제위께서는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2005년 11월 22일 (화) 오후 1시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문 의 : 051)466-0977, 467-3316

2005년 11월 10일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종 정 최덕산
총무원장 김고산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를 마감하며

94년 개혁종단 출범이후 네 번의 총무원장 선거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생각하며, 수행자 본연의 모습에 바탕하는 청정선거 실현을 목적으로 승가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후보자와 선거인단의 청정선거실천 서약과 선거 당일 본사에서 출발 결의를 이끌어 내고, 선거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후보자간의 상호 중재자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32대 총무원장선출에 있어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울정도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총무원장에 당선되신 지관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하고 조계종단이 국민과 민족의 든든한 귀의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정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다시 본연의 수행과 포교의 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번 청정선거운동을 통하여 많은 대중스님들의 뜻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개선점들을 총무원, 중앙종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1. 현행 간접선거를 산중총회법에 준하는 직접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2. 후보자는 1개월 전에 모든 공직(말사주지제외)에서 사퇴해야 한다.
3. 후보자는 교구본사주지 2인과 종회의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선거공약제를 실시하여 종책과 선거운동원을 미리 밝혀야 한다.
5. 선거인단의 여비는 종단에서 지급해야 한다.
6. 간접선거일 경우 중앙종무기관 소임자와 중앙선관위원은 선거권을 금지해야 한다.
7. 중앙선관위원회에 교구본사별 선거감시단을 조직하여, 공명정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총무원장선거에서 금원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주스님과 세민스님은 중앙종회수석부의장직과 호계위원직을 각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들도 일괄 사퇴하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본 승가운동본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불교수행과 서구 심리치료가 만났다

18일 광주 명상상담아카데미 개강
심리학 전공 인경 스님 직접 지도

불교수행과 서구 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해 마음과 육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명상상담 아카데미가 광주에 문을 연다.

명상상담 아카데미 광주전남지구(지도법사 인경 스님 · cafe.daum.net/medicoun)가 11월 18일 오후 7시 광주 백운동 광남빌딩 5층에 70평 규모의 법당을 개원한다.

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불교수행에 애니어그램(enneagram-성격유형검사)을 접목한 수행법의 하나로 현대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 해결점을 찾도록 하고 있어 생활속의 불교수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 경남에 이어 광주에서 개원하는 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명상전문 수련과정과 명상상담 불교대학, 명상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신입생모집에 들어갔다.

심리학을 전공한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이 직접 지도하는 명상전문수련은 초기불교수행의 하나인 호흡, 감각, 느낌 등을 관찰하는 기초과정에서 간화선 수행으로 들어가는 고급반까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18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광주 명상상담 아카데미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불자들.

18일 개원하는 광주 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명상상담 공부를 하던 이승만(법공), 엄해정(서원경) 부부가 사재를 털어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062)651-5580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장애전담 보육시설
순천 우석어린이집 개관



조계종 제21교구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가 올해 8월 순천시로부터 수탁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우석어린이집이 11월 10일 개관식(사진)을 갖고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홍선사 주지 정환 스님, 장애전담보육시설협회 김종호 회장, 순천시 의회 최병준 · 서동욱 · 정달영 의원, 순천 YMCA 최영자 회장, 순천불자연합회 초경태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우석 어린이집은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601평, 연면적 235평 2층 건물로 지역 최초의 장애아 동시설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송광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전담어린이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다양한 행사로 나눔의집 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이 11월 16일 서울 KBS홀에서 '나눔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는 베토벤, 푸치니 등의 명곡을 연주하는 1부와 경희대 음대 옥길성 교수가 작곡한 '아, 밝달 사람들' 중 일부를 공연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행사 입장권 판매와 현장에 마련된 성금 부스를 통해 모연된 성금은 모두 나눔의 집에서 건립 추진 중인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나눔의 집'은 나눔의 집 생활관에서 11월 19일 '창작21작가회' 초청 시낭송회, 26일 전국동화구연가협회 회원 주최 구연동화 시범 및 위로잔치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031)768-6684~5

김강진 기자

마산 해암사, 해수관음보살 조성

마산 구산면 광암부락에 위치한 해암사(주지 덕도)는 광암부락 앞바다에 해수관음보살을 조성하고 10월 22일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 스님과 종회의장 청송 스님, 승정원장 만오 스님, 권영해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해암사는 또 300여 명 가량 승선이 가능한 배에 해상법당 조성을 최근 완료하고, 방생법회 등 해상법당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다.

한명우 기자

남해 미륵암, 불우이웃 위안잔치

남해 삼동면 미륵암(주지 청운)은 10월 30일 경내에서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 위안 잔치를 열었다.

신도회장 이종수 거사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위안잔치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됐다.

주지 청운 스님은 "신도가 중심이 돼 개최한 위안잔치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군포 법해사 수계법회 봉행

군포 법해사(주지 법해)는 11월 6일 대법당에서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2005년도 신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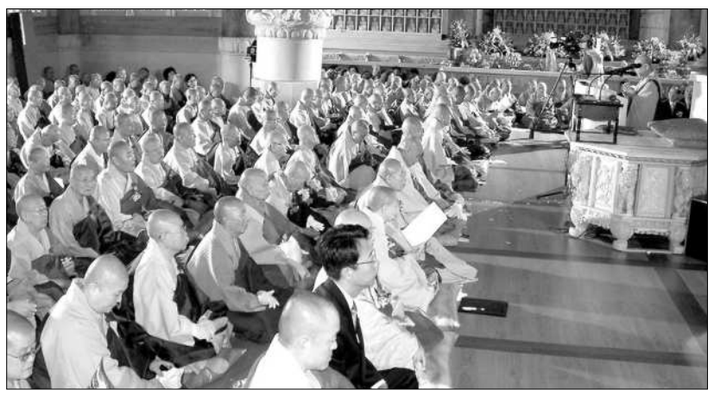
500여 신도가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계는 간직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받는 것"이라며 "지계를 통해 불교를 생활화하며 깨달음의 길로 한 발 짝 다가서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법해사는 3년마다 한 차례씩 10계와 48경계를 함께 주는 전통적 방식의 보살계 수계법회를 열고 있다.

한명우 기자

비구니 전문선원 법륜사 개원

낙성법회 3000여명 참석…수행 · 휴양시설 갖춰


용인 법륜사는 10여년의 불사를 마치고 11월6일 낙성 ·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비구니 스님 전문선원 법륜사(주지 정엽)가 불사를 시작한지 10년 만에 문을 열었다.

법륜사는 11월 6일 수덕사 방장이자 법륜사 조실인 원담 스님과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을 증명으로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과 수좌 설정 스님,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前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 수원 봉녕사 강원 강주 묘엄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진관 스님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 원삼면 고당리의 4만여평에 자리를 잡은 법륜사는 128평의 대웅전을 비롯해 33평의 조사전, 53평의 극락전, 아(亞)자형 종각, 삼성각, 연화지, 어영지 등을 갖췄다. 주법당인 대웅전은 백두산 홍송을 들여와 남방불교 양식의 아(亞)자형으로 건립, 십육척 53톤 중량의 석불을 봉안했다.

법륜사는 앞으로 기도와 수행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00평 규모의 요사채와 84평 규모의 비구니선원, 194평의 비구니스님을 위한 휴양당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완비했다. 500여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요사채에서는 침실과 공양간, 회의장 등을 갖춰 대규모 수련회가 가능하다. 선원과 휴양당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로 사용되며, 일반 불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불사를 이끌어 온 법륜사 회주 상륜 스님은 "관음기도도량과 비구니 선지식을 배출하는 전문선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용인=박봉영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문화존' 성료

37개 학교 5천여명 참여
천연염색 등 체험코너 인기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문화존' 행사가 서울시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청소년문화존'은 문화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강좌와 체험, 즐거운 놀이를 즐길만한 공간을 제공하는 행사.

서울시와 파라미타가 연계해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 우정공원에 마련한 '청소년문화존'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천연염색 및 매듭공예, 등공예 체험 코너가 진행돼 중 · 고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 '2005 북촌 · 인사동 체험'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11월 5일 폐막되기까지 5개월여 동안 진행된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동대부중 · 부고 및 양강중 구정중 등 37개 학교 5천여명이나 된다.

조한곤 사무과장은 "내년에도 지역의 전통문화와 불교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 공모해 청소년문화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광주 덕림사 시왕재 · 경로잔치

"삶 · 죽음 의미 되새긴 하루"
노인들에 돋보기 500개 증정도

명부(冥府)의 시왕을 통해 업장참회와 밝은 미래를 펼치고자하는 '시왕재'가 11월 6일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에서 봉행됐다.

지난 7월,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이 문화재(지방유형문화재 27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열린 이날 시왕재는 광주 영산회 소속 스님들의 작법과 육법공양, 살풀이 등으로 펼쳐졌다.

시왕재 의식에 이어 덕림사 회주 법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명부의 시왕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여의고 행복의 삶으로 이끄는 천왕이다"며 "시왕재를 통해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림사 시왕재 작법공연.

덕림사는 시왕재에 이어 경내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과 주민 1000여명을 초청해 점심공양과 경로잔치를 펼쳤다.

글 · 사진/광주=이준엽 기자

"함께 부처님 모셔요"
대웅전 소실 흥복사 거리 모금



흥복사 신도들이 거리모금을 하고 있다.

김제 흥복사(주지 우진) 신도회와 청년회가 '대웅전 복원을 위한 거리모금'에 나섰다.

지난 10월 22일 금산사 개산대재에서 거리모금을 펼치고 있던 주지 우진 스님은 "소납의 부덕으로 10월 3일 대웅전과 목조삼존불(유형문화재 181호)이 전소됐다"며 "김제 불교의 중심인 흥복사 대웅전과 부처님을 빠른 시일내에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흥복사 대웅전 복원 추진위 권두삼 위원장도 "불의의 화재로 불교세가 열악한 김제지역 불교가 힘을 잃고 있다"며 "복원불사에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주말이면 신도들과 거리모금운동에 나서고 있다.

(063)547-7364 (농협 507-01-022285 예금주 흥복사) 이준엽 기자

奉 德菴堂 興德大宗師 涅槃 二週忌追慕 및 浮屠塔碑 除幕式 行

三寶에 歸依하옵고

德菴堂 興德大宗師 涅槃 二週忌追慕祭와 浮屠塔碑 除幕式을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宗團 元老大德 스님과 宗徒 四部大衆 및 門徒께서는 무루 참석해주시기 仰望하나이다.



- 다 음 -

日時 : 佛紀 二五四九年 十一月 三十日(陰 十月 二十九日) 水曜日 午前 十時
場所 : 太古叢林 仙巖寺 浮屠殿

佛紀 二五四九年 十一月 日

韓國佛敎太古宗 總務院長 李 雲 山 合掌
德 菴 和 尙 門 徒 會 長 慧 俊

산줄기 굽이굽이 명찰 즐비

강원 인제·고성·속초·양양

영시암 봉정암, 기도도량으로 명성
건봉사 화암사, 천년 역사 간직
진전사 대웅전 복원으로 활력


인제 만해마을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불교 신행단체 및 일반인 수련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사진은 11월5~6일 만해마을 수련원에서 열린 서울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수련법회.

 # 인제 10월의 마지막 날, 백담사로 오르는 길엔 늦가을이 걸려있었다. 노릇노릇한 누룽지처럼 잘 익은 단풍들은 영락없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다. 백담사엔 그렇게 황홀한 자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인제에는 백담사가 있고, 백담사는 인제를 품고 있다고 할 만하다. 백담사는 내설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백담사에는 초하루 법회를 빼고는 특별한 법회나 행사는 없다. 하지만 백담사에서 사찰체험을 하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백담사를 거쳐 내설악을 계속해 오르다보면 영시암과 오세암, 그리고 봉정암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사찰은 인제불교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도량이다. 이들 도량은 수행기도도량으로도 이름이 높다.

이들 사찰 외에 인제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바로 만해마을이다. 2003년 모습을 드러낸 만해마을은 만해 스님의 얼을 되살린 곳이다. 문인의 집, 만해학교, 만해문학박물관, 수련원 등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만해마을은 연간 2만여명의 수련생이 거쳐가는 국내 제일의 수련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만해마을은 청소년들이 만해의 사상과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으로 산촌민속문화교실, 청소년 심성수련교실, 내설악 생태체험교실, 극기 수련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교실, 통일문학교실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제불교는 전통과 현대, 수행과 실천이 어우러진 잘 익은 단풍 빛깔을 내고 있다.

 # 고성 인제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한 고성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건봉사가 있다.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 등 9개 말사를 거느렸던 한국 4대 사찰 중 한 곳이었던 건봉사는 1989년 민통선에서 해제되면서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워졌고, 이때부터 복원불사가 본격화됐다. 이후 1990년 대웅전, 팔상전, 명부전 등을 복원해 어느 정도 사격이 갖춰졌다. 하지만 복원불사에 매달리다보니 지역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다만 고성의 한 복판인 간성의 건봉사 포교당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봉사와 함께 고성불교를 대표하는 화암사 역시 천년고찰로서 1991년 세계 잼버리 대회 이후 사세가 확장되는 등 관광사찰이자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가고 있다.

 # 속초 속초불교는 신흥사가 전부일 정도로 신흥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관광사찰 이미지가 강했던 신흥사는 다양한 복지사업과 청소년 포교 및 교육사업으로 강원불교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현재 신흥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반야노인요양원, 반야주간보호센터, 반야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모두 9개. 또 반야노인요양원 인근에 노인전문요양원까지 갖추고 있어 속초는 불교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신흥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뿐만 아니다. 재단법인 '성준장학회'를 통해 속초 중고생과 대학생 등 70여명에게 연간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활발한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반야어린이집과 장사룸비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반야어린이집은 강원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통일대불 몸안 법당조성불사를 마치고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점안식과 낙성법회를 봉행, 새로운 신행공간을 조성하고 참배객들을 맞고 있다.

신흥사가 운영하는 신흥사 포교당 원각사는 도심 한복판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교대학을 개설해 공부하는 불자상을 정립하는 한편, 중고생 법회와 청년회 법회를 통해 불자인재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속초 교사불자회 법회를 운영하면서 신행단체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천태종 동광사도 천태종 특유의 신심과 조직력으로 속초불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흥사 산내 암자인 계조암 내원암 등은 수행기도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양양 양양불교는 올해 경사와 애사가 겹친 한 해였다. 지난 4월 양양 산불로 국내 3대 관음도량의 하나인 낙산사가 전소되면서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6월에는 조계종 종조인 도의국사 주석처였던 진전사 대웅전이 복원되면서 활력을 얻었다. 진전사 복원은 앞으로 수 년간 계속될 예정이고, 또 내년부터 법회가 운영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큰 화마를 입은 사찰답지 않게 낙산사의 신행과 포교활동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법회는 물론이고 음악회도 열고 경로잔치도 여는 등 지역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다. 다만 템플스테이는 수용시설이 없어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다.

낙산사 복원은 발굴조사가 끝난 내년 상반기쯤부터 시작돼 적어도 5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홍련암 요사채 복원불사에 들어가는 등 복원작업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낙산사는 복구작업과 함께 낙산사를 국민의 도량이자 국내 제1의 관음도량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각오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수행·포교·복지도량 일궈

오현 스님 (속초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은 강원불교의 축이다. 1993년 신흥사 회주 소임을 맡은 이래 신흥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아울러 강원불교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관광사찰에 머물던 신흥사가 수행·포교·복지 등 종합도량으로 자리잡은 것도 오현 스님의 일관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현 스님은 불교의 사회회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신이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런 소신에 따라 반야노인요양원 등 8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과 불교복지에 크게 기여했다. 은사인 성준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성준장학재단 이사장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을 맡아 청소년 육성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군, 관공서, 학교 포교를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세부 프로그램 마련에 들어갔다. 올해 6월 모습을 드러낸 조계종조 도의국사 주석처였던 진전사에 큰 선원을 세우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진전사 사격 갖추기 서원

마근 스님 (양양 진전사 주지)

진전사는 아직은 대웅전과 요사채 2동 뿐이지만 마근 스님의 머릿속에는 벌써 조사전과 선원 등이 다 갖춰진 진전사가 그려져 있다. 불사계획에 따라 조사전과 선원 등 9개동의 전각을 더 지어 완전한 사격을 갖출 생각이다. 이와 함께 도의국사 부도탑 등 주변 정비사업도 진행하고, 참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근 스님은 조계종도라면 반드시 한 번은 진전사에 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조 도의국사가 법을 선양했던 가풍을 다시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진전사의 전통사찰 지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신도회도 조직할 방침이다.

청소년·군경 포교에 열정

적멸 스님 (양양 현불사 주지)



절터와 축대만 남아있던 곳에 온 지 17년. 현불사가 어엿한 수행기도도량으로 자리잡은 것은 적멸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 강릉에서 도심포교당을 열기도 했던 스님은 어린이·학생·군인·경찰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포교활동을 했을 정도로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월정사 상원사 등지에서 수행하다 공부에 뜻을 두고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 선종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한글 금강경과 법화경 출판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낙산사 복구 순조롭게 진행

정념 스님 (양양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되다시피 했을 때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한층 강해졌다. 관음성지 낙산사를 국민의 낙산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지만 산불피해로 실의에 빠진 양양군민을 위해 지난 7월 복구기금을 내놓기도 했다. 또 8월과 10월에 두 차례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양양군민과 상주 음악회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금도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으로 신계사 복원과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 등 종단 현안으로 숨돌릴 틈이 없는 상황에서도 낙산사 복구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합불사 계획 '착착'

민호 스님 (속초 보광사 주지)

2년 전 보광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명부전 불사를 시작하는 등 사격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웅전 보수불사와 관음전과 종각, 일주문을 짓겠다는 종합불사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불교대학과 어린이법회 등 이전에 보광사에서 열렸던 각종 법회와 강좌는 불사가 마무리된 뒤 다시 문을 열 생각이다.

공덕을 쌓는 불교를 강조하는 민호 스님은 스스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부지런한 스님이다.

한문학당·수련법회 개설

정현 스님 (속초 원각사 주지)



신흥사 포교국장과 신흥사 포교당인 원각사 주지를 맡은 지 6개월. 이 짧은 시간 안에 신흥사와 원각사 포교활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정현 스님은 어린이·학생 법회와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세부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군부대 학교 경찰서 병원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 어린이 한문학당과 수련법회를 개설하고 춘천 교도소 법회와 경승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무원 불자회와 운전불자연합회 창립도 추진하고 있다.

정현 스님은 이런 일련의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지역 신행체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발원을 실현시켜가고 있다.

일요 군법회 열고 포교 심혈

공현 스님 (고성 건봉사 주지)

스승인 영도 스님의 뒤를 이어 올 2월부터 건봉사 주지를 맡았다. 일요일마다 군법회를 열며 군 포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지순례와 기도차 찾아오는 신도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짓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도들에게는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통해 정법신행을 할 것을 강조한다.

공현 스님은 그동안 복원불사에 주력해 온 건봉사를 수행과 신행여건을 갖춘 도량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불교문화 체험의 장 조성

삼조 스님 (인제 만해마을 주지)



삼조 스님은 만해마을을 "한국불교의 미래지향적 도량"이라고 말한다. 불자들이 모여 신행을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런 특성을 잘 살려 만해마을을 '국민의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삼조 스님의 생각이다.

지역에서는 인제군민에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불우 어린이에게 월 1회 자장면 봉사를 하는 등의 복지활동과 함께 지역 경찰서 보건소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해 무료강좌'를 여는 등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혔다. 또 인제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아 청소년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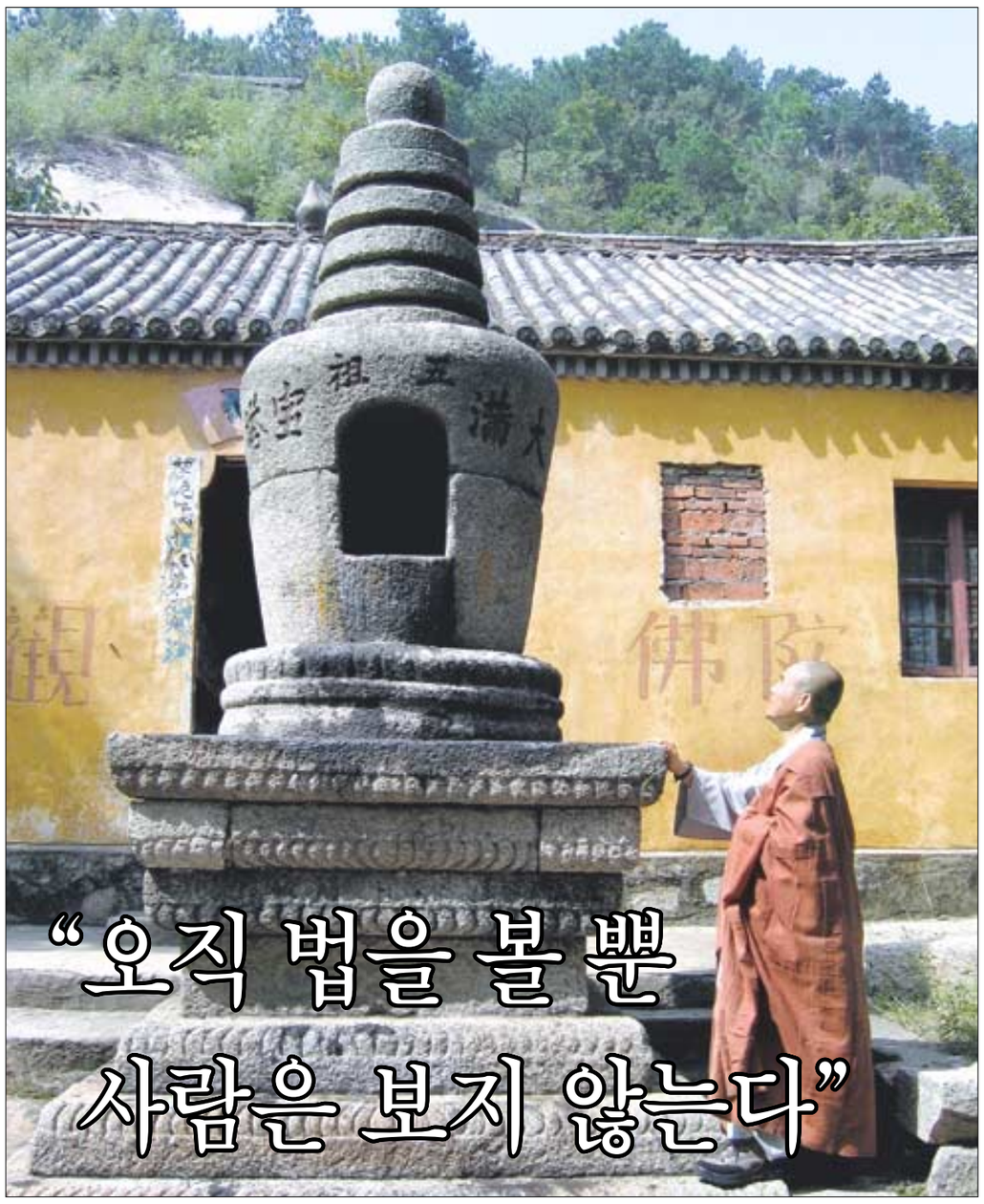
• 2005년도 EPS밸브 설치 현황
부산 남도빌라 · 청주 두진빌라 · 안동 현대아파트 · 목동 우성아파트 · 일산 후곡아파트 · 산본 한양아파트
인천 작전동 동보아파트 · 대전 한밭대학교 신축 기숙사 · 부천 오정지구 주공아파트 현장

• 현재 전국 각 사찰에서 시범설치 점검중이고, 난방비 절감 확인 후 많은 사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율 15%이상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9월19일 중국 황매현 오조사에서 혜국 스님이 홍인 조사 사리탑인 대만보탑(大滿寶塔)을 참배하고 있다. 대만보탑은 파괴된 진신탑 대신으로 1932년 건립됐다. ‘대만(大滿)’은 당 대종황제가 763년 홍인조사에게 내린 시호다.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 중국 선종 초조에서 8조까지

5조 홍인 : 혜국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동산 오조사



오조사 진신전에 봉안돼 있는 홍인 스님 좌상.

6조 혜능스님이 방아를 찧으며 처절한 수행을 하던 곳, 오조사.

법에 의지할뿐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부처님 사상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5조 홍인 스님 행화도량이다.

혜능은 변방에서 온 아직 계도 받지 않은 행자이며 신수는 황제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학식과 인품이 훌륭하고 인물마저 훤칠해서 수많은 대중들이 떠받드는 상수제자다. 더구나 혜능은 20대 청년이고 신수는 50대의 비구다.

만일 당신이 천여명 대중을 거느린 방장스님이라면 과연 전자를 후계자로 선택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첨단과 파격이 당연시되는 현대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1천 4백년전에 홍인(弘忍, 601~674) 조사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 1천여명 넘는 제자중 제1좌를 차지하고 있던 신수(神秀, 606~706) 스님을 제치고 갓 입문한 행자 혜능에게 법을 전해주었다.

그 선택은 인류에게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됐다.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은 5조다운 결정이다. 오직 법을 볼 뿐 사람은 보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산사같은 친근감이…

9월19일 선원장스님들과 함께 호북성 황매현 동산(東山), 그 유명한 오조사 앞에 서자 가슴이 꽉 메어왔다. 법(法)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불성(佛性)을 깨달은 혜안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선택을 하셨던 5조스님에 대한 고마움이 걷잡을 수 없이 물결쳐서다. 그로인해 선의 물줄기는 유유히 이어져 기라성같은 선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선의 꽃이 활짝 피었다.

오조사는 들어가는 첫 분위기부터가 매우 친근감이 들었다. 중국절들은 대부분이 평야지대에 있다. 그렇다보니 높고 낮음이 없이 뒤의 건물이 앞건물에 막히고 또 그뒤 건물이 앞 건물에 막히고 해서 우리나라 절만큼의 운치는 없다.

그러나 오조사는, 우리나라 산사처럼 산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절과 마찬가지로 잿빛 기와(중국절은 대부분 붉은색 기와를 씀)여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일주문을 지나 차로 한 5분쯤 들어가니 ‘五祖寺’ 라는 편액이 나타났다.

중국절은 대부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천왕문이다. 사천왕은 양쪽에 모셨고 가운데에 포대화상을 모셔놓았다. 포대화상 바로 뒤, 그러니까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포대화상은 들어가는 정면을 보고 있고, 등을 마주하여 관세음보살상은 뒷면 법당을 향하여 모셔져 있다. 중국 사찰 특성중 하나이다.

중국절의 대웅전은 세밀하지는 못해도 크기는 매우 크다. 큰 곳은 법당 한 채가 700~800평이나 된다. 오조사 역시 우리나라 본사만한 규모다.

법당 왼쪽에 성모전이 있고 오른쪽에 선당(禪堂)이 있다. 법당 뒤로 법우탑 5조 홍인조사 진신전이 있고 그 오른쪽에 6조전이 있다. 6조 혜능이 찧던 방아도 6조전에 상징적으로 어설프게 옮겨져 있다. 그 옆으로 5조스님이 좌선했다는 수법동굴이 있고 진신전을 지나 한참 올라가면 5조스님 사리탑이 모셔져 있다.

선방 중앙에 조사상을 모셔놓고 사방벽을 따라 선상(禪床)을 일렬로 배열하여 그 선상위에서 참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상 뒤로 누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취침할 수 있게 해 놓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해 보였다. 다만 오조사는 5조스님이 ‘선농일치’ 사상이라서 승당을 선당으로 겸해 쓴다고 했다.

진신전에는 5조 진신상(眞身像)이 모셔져 있다. 그러나 본래의 5조 육신불은 많이 훼손되었다. 5조 육신불에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공산치하라서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 모셨다는 것이다. 1927년 병화로 일부 훼손되고 문화혁명때 상당부분 더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손상된 상을 덧씌워서 다시 복원했기에 실제감은 적었다.

겉모습은 약간 다르긴 해도 그 가르침과 사상은 여여하기에 한국의 선원장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죽비에 맞춰 여법히 예를 올리고 정성들여 축원을 했다.

“과거 전생으로 오늘에 이르도록 본래면목 이 마음 하나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잠깐 빌려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번뇌망상 욕망을 따라 다니느라고 나고죽고, 죽고나는 생사윤회를 해 왔습니다. 이제 진신전에 엎드려 참배하오며 발원하옵니다. 세세생생 날말적마다 발심출가해 필경 성불하고 조계선맥을 중흥하여 광도중생하여지이다.” 축원을 끝내고 5조스님 등상불을 우러르니 그 옛날 5조가 일곱 살 어린 나이로 4조 도신스님께 들어온 후 오직 정법과 정견에 의해 살아온 고고한 삶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73세로 입적하실 때까지 일생동안 본래성불이라는 가르침 하나로 일관된 이러한 사상은 금생 일만은 아니었다. 전생부터 세워온 원력수생(願力受生)의 결과다.

4조가 쌍봉산에 주석해 법을 펴고 있을때다. 산위에서 소나무를 가꾸는 70넘은 노인이 있었다. 노인이 어느날 도신스님을 찾아가 불법을 묻고난 후 출가를 원했다. 그러나 4조가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다 늙은 노인이 이제 불법을 깨친다 해도 법을 크게 펴지 못할 것이니 다시 태어나 동진출가를 해온다면 그때 내가 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자성청정 강조 ‘최상승론’ 저술

노인은 곧바로 산을 내려와 길을 가다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있는 주씨 성을 가진 처녀를 만나게 된다. 노인은 그 처녀보고 미안하지만 너의 집에서 좀 쉬고 갈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 처녀는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니 가서 물어보라는 당연한 대답을 했다. 노인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다. 주씨 처녀의 태속에서 열달동안 지나고 다시 아기로 태어날 생각인 것이다. 다시 간절히 부모님 생각은 말고 처녀 생각만 말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바람에 주씨 처녀는 부모님만 괜찮다면 쉬고 가셔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허락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력수생한 아이가 5조 홍인 선사다. 물론 민간신앙이거나 신화일수도 있다. 다만 늙어서는 도 닦기 어렵다는 경책이기도 하고 원을 세우면 원력무적(願力無敵)이라는 가르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조사에는 5조스님 어머니를 기리는 성모전(聖母殿)이 있다. 5조 생모상이 모셔져 있다. 길쌈을 하며 홍인스님을 훌륭한 조사로 키워낸 그 공덕을 기리는 후세인들의 존경심을 보여주듯 성모전 찾는 발길이 끊임이 없었다.

법당을 지나 6조전으로 가는 회랑이 거의 복원이 끝나가고 있었다. 옛날에 변상도를 그려 넣으려고 했던 그 복도다.

역사적인 사건, 즉 5조스님께서 천명 넘는 모든 대중들에게 깨달은바 각자 자기 소리를 써내라는 말씀에, 제1좌인 신수대사가 身是菩提樹요/心如明鏡臺니/時時勤拂拭하여/勿使惹塵埃케 하라는 게송을 써 붙였던 회랑이며,

혜능의, 菩提는本無樹요/明鏡은亦非臺니/本來無一物이라/何處惹塵埃이리요 라는 게송이 붙여졌던 그 회랑이다.

그 복도 앞에 서서 간절히 발원했다. 회랑이 복원되듯이 그 사상 그 가르침 그 깨달음의 소리도 복원되어 지이다 라고.

게송을 보고 5조스님은 혜능에게 법을 전하는 증표로 달마조사로부터 전해내려온 가사와 발우를 준다. 의발이 행자에게 전해진 걸 알게되면 대중이 혜능을 해치려 들 것을 걱정해 곧바로 혜능을 데리고 황매로 나온다.

현 호북성 구강역까지 배웅해 주며 남쪽으로 가 숨어있으라고 이른다. 장강까지는 절에서 한 30㎞정도 됐다. 지름길로 가더라도 20~25㎞는 될 것으로 보여 사람 걸음으로 4~5 시간정도 걸릴 것 같다.

5조스님께서 친히 배로 혜능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혜능이 “이제는 제가 건널 줄 아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 “아니다, 오늘은 내가 건네주마”하며 직접 노를 저어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선농일치’ 선종교단 자리매김

한밤중에 혜능 그 더벅머리 행자를 데려다 법을 이어준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다. 말없는 강물을 보니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법을 이어왔는데 중국은 문화혁명때 노장들을 다 쫓아내 대가 끊어져 버렸다. 중국 선종본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선지식스님들이 선맥을 대대로 이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재산이구나 하는 고마움을 절실히 느꼈다.

중국불교사에서 스님들이 직접 농사일과 참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선농일치(禪農一致)’ 운동이 일어난 것은 4조부터고 그러한 사상이 총림으로서 교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5조때다. 자급자족하는 교단을 형성한 5조의 동산법문을 이어받은 뛰어난 제자들이 중국불교 역사에 있어서 선종이라는 새로운 실천불교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4조가 입적한 후 5조는 쌍봉산의 동쪽인 빙무산(憑茂山)으로 옮긴다. 이후 사람들은 4조가 주석한 쌍봉산을 서산(西山)이라 부르고 5조가 주석한 빙무산을 동산(東山)이라 부르게 됐다. 이로부터 5조의 선을 동산법문이라고 부른다.

5조의 전기를 전하는 현존 최고의 자료는 <전법보기(傳法寶紀)>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다. <능가사자기>는 홍인 스님에 대해 “타인에게 관대하였으며 순수한 의지인이다. 그는 노동에 힘써 봉사하였기 때문에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 선악의 시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현상의 공(空)을 응시하고 있었으니 전신의 힘을 선수행에 바쳐 홀로 우뚝 솟은 자기성찰의 경지에 도달했다. 걷거나 앉거나 멈추는 모든 행동이 바로 진리의 나타남이었으며 행동과 언어, 마음 모두 불법 아닌게 없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삶과 수행이 일치되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부러움이 든다.

또, 홍인 스님의 행화에 대해 <전법보기>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스승 도신으로부터 부촉을 받은 홍인의 도성(道聲)을 들은 귀족들이 산문에 몰려들어 날로 증가하였으며 10여년간에 그의 지도를 받은 도속(道俗)의 수학자가 천하의 10중 8~9가 되었다. 중국에 선법이 전래된 이래 일찍이 이보다 더 성행한 적이 없었다. 홍인의 교화방법은 미리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가르쳤으며 상대의 근기를 정확히 알아서 알맞은 교시를 내렸다.”

5조의 저서는 많지 않지만 수행의 요체를 간단하게 문답 형식으로 서술해놓은 것이 <최상승론>이다.

나는, 은사스님인 일타 스님께서 해인사 극락전에 계실 때 <선문촬요>를 배우며 <최상승론>을 배운 일이 있다.

네가 바로 부처라고-우리마음은 본래청정하다고-은사스님께서는 구구절절 홍이 나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그때 상당히 고민했던 생각이 난다.

“내가 부처이고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면 왜 이토록 힘들게 참선해야 하는 거지?”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왜 이리 시시하지?” 이런 웃기지도 않는 생각을 했던 때가 추억처럼 떠오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들 자성(自性)이 본래 청정하다고 가르쳐 주신 가르침, 본래 부처임을 보여주신 그 심오한 사상, 화두참선법은 세계 인류를 구하고도 남을 사상이고 법이건만 그러한 그릇이 못되는 자신을 돌아보며 거듭 발원을 해 본다. 길이 불퇴전하여 홍인 조사마냥 큰 바다가 되어 보리라고….

“그 사상 · 선맥 복원됐으면”

오조사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최상승론>을 물어보았지만 정작 오조사에는 책이 없고 <최상승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나를 비롯해 한국의 스님들에게는, 달마 스님이나 홍인 혜능 황벽스님 등이 할아버지고 조상이다.

그러나 정작 그 스님들이 태어난 중국에서는 현재 남남이 되어 버렸다.

중국선종의 원류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중국스님들에게는 이들 조사스님들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남이 되어버린 것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가에서 자주 쓰이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출처도 바로 오조사다. 그러나 여기 스님들은 ‘삼불(三佛)’의 일화도 금시초문이라는 얼굴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느냐?” 고 질문을 해 올 정도다.

오조사에는 40~50명의 스님들이 있었다. 아침저녁 예불을 길게 모시고 <금강경>을 배우고 있다. ‘念佛是誰’라 하여 ‘염불하는 이놈이 누구냐?’ 란 화두로 하루 7시간 좌선한다고 했다. 허운 스님이 가르친 방법이라면서 한국에 참선법이 살아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는게 원이란다. 서당지상(西堂智藏 735~814) 선사에게서 우리나라 도의 선사가 받아온 선맥, 이제 우리가 다시 전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사명감이 일었다.

선의 원류를 돌아보면서, 중국 공산화 70년동안 가장 큰 실패가 문화혁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불교유적만이 아니라 엄청난 문화재가 파괴되고 조상들의 혼이 훼손되었다. 이것은 중국만의 손실이 아니라 세계 인류 문화사적으로 큰 손실이다.

이러한 중국불교 현실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스님들을 받아들여 선을 가르쳐서 간화선을 부흥시키는 일이야말로 역대 조사스님들에게 입은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진제공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학식 · 인품 · 외모 어느것 하나 빠지지않던
상수제자 신수 대신 행자 혜능에 법 전수



6조전으로 가는 회랑에 선 혜국 스님. 긴 회랑, 빈 벽을 마주서니 지금으로부터 천 사백년전,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낄 것이냐는 6조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5조 홍인 스님께 지심귀명례 하옵니다. 당신의 철저한 법에 참배하고자 당신의 후손 한국의 선원장들이 지금 이렇게 오조사에 왔습니다.”

혜국 스님은 1961년 해인사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 후 오른손 세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바친 후 태백산 도솔암에서 홀로 장좌불와를 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용맹정진을 했다.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했으며 제주도와 충주에 각각 남국선원과 석종사 금봉선원을 열어 성철 · 구산 · 일타 스님 등 스승들의 뜻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이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달마야 족구하자…공처럼 둥글게 살자”

11월9일 영천 은해사 족구대회 열린 날

은해사 산문 열고 청통면 주민과 화합의 한마당
14개팀 참여, “운동하고 참배하고 신나요”

“화이팅! 나이스!”

“ 둥둥둥둥!”

11월 9일, 늦가을 정취를 한껏 뽐내던 팔공산 은해사에 북과 꽹과리 소리, 사람들의 함성으로 시끌벅적하다. 대웅전 앞 마당에 내걸린 네트를 중심으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공과 함께 불쑥불쑥 솟구치는 길쭉한 다리와 머리가 예사롭지 않다.

‘제2회 은해사 주지배 족구대회’

은해사 법당 옆 전각에는 방문객의 궁금증을 풀어주듯 플래카드가 걸렸다.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은해사(주지 법타)가 청통면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해 산문을 열고 족구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참가한 팀은 모두 14개 팀. 청통면사무소와 농협, 이장들의 모임인 이장상록회, 치일1리 주민팀이 참가했고, 면내 기업체인 식품가공회사 푸드코, 보성공단, 은해사 앞 네거리의 청통부동산, 농민회, 청년회, 팔풍진 조기축구회, 자율방범대 팀도 동참했다.

사찰쪽에서는 은해사 본 말사 스님 팀과 승가대학원 스님 팀이 출전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의식이 바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합하고 좋은 인연 지어 더불어 삽시다. 은해사도 청통면 소속이니 면민으로 함께 살기 위해 최대한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개회식,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이 인사말에서 족구대회 취지를 설명하자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빨간 티셔츠 입고…두건 쓰고

오전 11시, 대진표를 확정하고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는 A코트 B코트로 나눠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8강을 놓고 오전에 6경기가 열리고, 오후에 4강, 준결승전, 결승전으로 이어졌다.

‘오! 필승 코리아’를 생각나게 하는 빨간 티셔츠에 ‘까까머리’가 유난히 돋보인다. 은해사 본말사 스님들로 구성된 드림팀(?)이다.

법타 스님도 회색 승복 바지에 정열적인 빨간 티셔츠, 주황색 운동화에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경기에 출전했다.

“나도 면민이예요. 당연히 출전해야지. 필승!”

경기를 앞두고 법타 스님의 다짐이 예사롭지 않더니, 예순의 나이를 무색케 하는 투혼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헤딩! 페인트 공격! 오버헤드킥(?)은 조금 무리지만 구르고 넘어지는 스님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우리는 이겨도 져도 큰일입니다. 이기면 스님이 족구만 했다고 할 테고, 지면 스님이 도력이 없다고 할 테니 말입니다.”

경기시작 전 특유의 유머감각을 발휘하던 신흥사 범수 스님. 공이 넘어올 때마다 ‘수비는 나에게 맡기라’는 듯 특유의 ‘브이’자로 팔을 뻗으며 공을 막고 나섰다.

불굴사 법정, 묘봉암 원범 스님도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청통부동산팀에 15:3, 15:4로 내리 두 세트를 내주며 패했다.

그러나 은해사의 진짜 드림팀은 따로 있었다. 오늘의 강력한 우승 후보, 승가대학원이다. 은해사 종무소팀을 가볍게 꺾고 8강에 진출한 대학원스님들, 머리에 두건까지 둘러쓰고 각오가 대단하다. 감독 진만 스님은 몸짓 손짓으로 작전지시에 바쁘다.

특히 상락 스님의 현란한 발동작은 소림무술을 방불케 한다. 강하게 공을 밀어붙일 듯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슬쩍 밀어 넣기를 두세 번.

“에이~ 스님이 이래도 됩니까? 경고 안주나?” 연거푸 실점한 농민회 선수들은 답답한 마음에 스님을 가리키며 하소연하고, 경내는 웃음바다가 됐다.

1점을 다투며 아슬아슬 경기는 계속되고, 청통한아름 풍물회의 전폭적인 응원지원에 힘입은 농민회가 이겼다.

“많이 아쉽지만 마실(마을)분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습니다. 주지스님, 어른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민회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해사 승가대학원 총무 도산 스님의 말에 다른 스님들은 “우리 편은 하나도 없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모두들 싫지 않은 표정들이다.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떤가. 모두가 하나가 되자고 만난 자리인 것을.

“이렇게 멋진 경기장은 처음”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뒹굴다보니 우승팀이 가려졌다. 주인공은 지난해 준우승한 보성공단팀. 오늘 우승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단다. 특히 지난해 다리 부상으로 출전 못한 하헌수(36) 선수는 아내 최혜정(26) 아들 성혁(2)군, 처제 최은정(26)씨까지 대동하고 나서 영예의 우승컵을 안았다.

남편을 응원하러 나온 혜정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 온갖 운동경기장을 잘 따라나서는데 이렇게 멋진 경기장은 처음”이라고 했다. 딸 예빈(5)양을 유치원에 보내고 함께 못 온 게 한(?)이라고 야단이다.

“절에서 이렇게 산문을 개방하니 정말 좋아요. 운동경기도 보고 자연도 즐기고, 게다가 부처님전에 참배까지 할 수 있잖아요.” 최은정씨가 거들었다.

“족구 대회? 스님도 있고…달마야 놀자네, 달마야 놀자야. 스님을 어렵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아들 내외와 은해사에 참배왔다는 서두수(64 · 안동 운안동)씨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펼쳐져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예찬론자가 됐다.

자율방범대장 신철(40)씨도 은해사 족구대회 팬이 됐다. 비록 경기초반에 졌지만 모든 면민이 모여 웃고 즐길 수 있어 좋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체면유지는 시켜줄 줄 알았는데 아예 초장에 깨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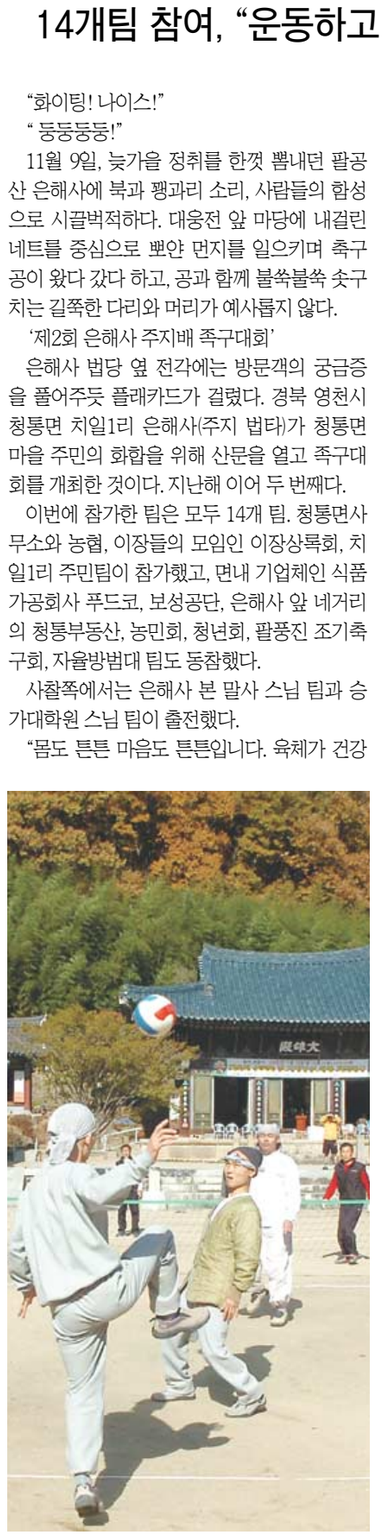
오후 4시 시상식, 법타 스님이 시상후 한 이 말이 하늘처럼 파란 웃음을 만들었다.

선수로 참가해 다리부상까지 당하면서 선전한 청통면 김해관 면장(56)은 은해사에 고마울 따름이다. 내년에는 동네별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김 면장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모든 면민들이 건강하고, 화합하고, 인위적, 자연적 재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늦가을 산사에 구르는 공을 따라 몸과 마음을 굴렸던 정진의 장을 나서는 면민들은 하나같이 푸른 하늘을 닮은 부처님의 미소를 머금었다.

은해사는 족구대회 규모를 더 늘리고 나아가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다른 이벤트도 마련해 대중속으로 들어갈 생각이다.

영천/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비키시지요” 스님이 상대편으로 공을 넘기고 있다.



‘소림축구?’ ‘은해축구’ 만할까. 은해사 승가대학원 스님의 스파이크 모습.

경기가 끝난 후 악수를 나누는 마을주민들.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生命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성북승무소 법우회 가족봉사단 창단

11월 19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도
불우청소년 · 독거노인 등 지원 계획



그림 · 박구원

서울 성북 철도불자들이 활동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시킨 가족봉사단을 창단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철도공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도기환)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이문차량사무소 본관 문화홀에서 회원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한다.

가족봉사단은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가 10년 동안 각종 봉사와 포교, 신행활동 등을 통해 일궈낸 성과물이다. 1995년 구로승무사무소에서 분리된 직후 창립한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가장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직장 신행단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매년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해 온 것을 비롯해 성남 자광원, 의정부 선재동자원 등 복지시설을 오가며 봉사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해 봉사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한 가족봉사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매월 한차례 가족봉사단 창단을 위한 예비교육을 진행해 왔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가족봉사단은 앞으로 의정부 선재동자원에서 매월 두차례 빨래, 청소, 목욕봉사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간다.

또 결손가정 중 · 고교생 6명에게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독거노인 병원비 지원, 경로잔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도기환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직장불교도 태동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직장신행단체들은 여전히 정기법회나 성지순례와 같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이런 직장불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직장내 신행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봉사단 창단식은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열린다. 이날 행사는 창립 10주년 발원문 낭독을 비롯해 신행의 모범을 보인 회원에게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이진옥
대전광역시청 불자회장

직장내 신행활동 알리는 전법사
신규 회원 가입 · 단합에 진력

서울에 이어 주요 정부기관이 자리 잡은 행정도시 대전광역시. 이진옥 대전광역시청 불자회장(55 · 교통국장)은 대전지역 공무원불자들이 여느 지역 보다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제 겨우 세 살인 시청불자회가 대전정부청사,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과 더불어 공무원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 회장의 발로 뛰는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1월 12에는 대전 광수사에서 관세청불자들이 연합회 창립법회를 엽니다. 시청불자회원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함께 참석해 축하해주자고 제안해 두었지요. 근무처는 다르지만 조금씩 힘을 보태면 큰 힘이 되거든요."

내무부 근무시절 아내를 따라 서울 목동 법안정사를 다니기 시작한 이 회장은 이후 착실한 불자가 됐다. 이전에도 절을 찾아다니긴 했지만 불자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았다. 이 회장은 요즘 직장내 신행활동을 알리고 권장하는 '전법사'가 됐다.

"직장업무에 쫓기다보면 절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직장에서 불자회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불자회 활동과 신행활동은 이 회장에게 큰 힘이 된다. 업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든 경우에 처했을 때 가장 든든한 것은 부처님과 불자회원들이다. 유독 불자회원들에게 동료애와 든든함을 크게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은 임기를 맡고 있는 동안 불자회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첫째 서원으로 세웠다. 좀처럼 나서려하지 않는 불자들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일도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바람이 한 가지 더 생겼다. 대전광역시를 '공무원불자들의 신행거점'으로 만드는 일이 그것이다.

"대전광역시가 행정, 교통, 물류 등 모든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시청불자회 회원들은 공무원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공무원불자들의 신행거점'의 바람은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박봉영 기자

"충남 경찰 또 뭉쳤다"

충남지방청 · 산하경찰서 '화합마당'
경찰청 · 경찰병원 합동 템플스테이


11월 5일 공주 식물박물관 운동장에서 열린 '충남 경찰불자 화합 한마당'에서 단체 줄다리기를 하는 충남 경찰불자들.

충남지역 경찰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힘을 과시했다. 경찰청과 경찰병원 불자들도 합동으로 템플스테이와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남지방경찰청불교회(회장 이기병)와 산하 19개 경찰서 불교회는 11월 5일 공주 식물박물관 운동장에서 '충남 경찰불자 화합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경승단 충남지단장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을 비롯해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50여 경승 스님과 경찰불자 500여명은 이날 "충남의 모든 경찰불자와 경승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경찰불교를 활성화시키고 충남지역 불교발전을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합동법회를 시작으로 박터트리기, 줄다리기, 2인3각 등 체육 · 화합 프로그램, 경찰불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한 가족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와 경승단 충남지단은 앞으로 인근 경찰서 불교회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승을 해촉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스님들을 경승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경승단 충남지단 주도로 경승 활동 현황과 경찰법당 운영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청 불교회와 경찰병원 법우회는 11월 5~6일 해남 대흥사에서 합동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경찰청 불자 30여명과 경찰병원 불자 20여명은 도심을 떠나 산사에서 아침을 맞으며 새벽예불, 발우공양, 숲길 산책 등을 체험했다.

경찰청 · 경찰병원 불자들은 6일 광주 향림사로 자리를 옮겨 복지시설 향림원에 거주하는 어르신 · 장애인, 지역주민 등에게 무료진료 봉사를 벌였다. 봉사는 내과 진료와 수지침, 발마사지 서비스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교불련

개신교 교수협과 교류

교수불자들이 개신교신자 교수들과 학술교류에 나선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이하 교불련)는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종오 등)와 학술 및 종교간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독자교수협의회는 전국 대학의 개신교 신자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모임.

내년 공동세미나 개최

교류 일환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을 가동하는 한편, 내년 봄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교와 권력의 역사, 교리, 현대사회'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양측이 각각 3~4인의 기조강연과 발표, 논평 등을 맡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교불련은 부회장에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 박운용 동아대 교수와 박광섭 충남대 교수를 선임했으며,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노태천 충남대 교수를 각각 연구 운영위원, 교화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봉영 기자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 주자

'11월 26일은 공무원 불자 사회봉사의 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윤갑, 이하 공불련)가 11월 26일을 '공무원 불자 사회봉사의 날'로 선포했다. 200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공불련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을 돕고, 남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 되돌려 주고자 사회봉사의 날을 제정한 것"이라며 '공무원불자 사회봉사의 날'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소속 280여 단체에 하달했다.

소속 단체들은 실정에 맞춰 지역별 연대 또는 개별적으로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면 된다.

서울 · 경기지역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불자들은 '사회봉사의 날'에 맞추어 서울 삼천사 인덕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봉사에는 50여 서울 · 경기 공무원불자들이 동참해 김장담그기, 어르신 발마사지, 목욕, 빨래 등을 도울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 大 할인 판매

육임나라에서는 아래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자 필요한 육임 활용도서 및 CD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1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70만원
2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40만원
3K 효사활인천역집 + 월영도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17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III 업그레이드 판 CD 입니다)
4K 효사숙사주 + 육임시보단정 + 피타고라스 대점술 50만원
5K 육임대계전서 (전60권) 170만원

월영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모두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위 각 프로그램 보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내용 저장 기능
- 사주기둥으로 출생 년월일시 찾는 기능
- 사주기둥으로 회원 검색기능
- 월령도 지성법(도표) 활용법
- 효사숙 사주 프로그램(성명학 외 17종) 장착

※ 위 CD프로그램은 직접방문하여 설치해 드리고 활용방법을 익숙하게 알려드립니다.

■ 육임활용서
육임래정비법 (전1권) 15만원
육임래정비법휴대용 (전6권) 2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전1권) 1만5천원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좌정용 전12권) 50만원
육임래정비법혁신판 (휴대용 전12권) 70만원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전12권) 100만원
육임신수비결 (전1권) 15만원
각일각시택일출생비법 (전1권) 5만원

■ 육임학습도서
육임강의록 (전12권) 20만원
육임비요형이상법 (전1권) 5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전1권) 5만원
육임세밀정단법 (전1권) 5만원
육임강의비디오 CD (전63개) 50만원

■ 주문전화 02)993-8680 (담당 : 이 명 옥)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주)
입금 통보 후 다음날 한진택배로 도착 됩니다.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중고차 보시할분
1톤 중고트럭을 보시해주실 소중한 인연 모십니다.
보시해주실 분께 벼락맞은 대추나무 원목을 드리겠습니다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8

당뇨, 고혈압 비만 희소식
(스님에 한해서 원가 제공)
- 제품명 : 비타그린(특허출원)
- 특 징 : 천연식품(환으로 제조)
- 함유영양소 : 천연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 제품크기 : 1통(200g) 1개월분
3개월 복용 후 효과 없을시 환불
- 가 격 : 50,000원
제품시험성적서 및 자료제공
- 홈페이지 www.egreennara.co.kr
- 연락처 : 016-641-5211, 061)901-5211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알 림
벌에서(양봉) 채취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우리인체에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을 시켜준다.
016-779-2237
일림사 도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빽빽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시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	륙	시			
식	재	재	식	물	충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 기타
주2회(1회2시간씩) 4개월간
초보에서 간명연수까지
책임완성 (수강과 동시 부업가능)
6호선 망원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황토베게
- 한방신침: 장수, 일명 수험생 베개
- 국화꽃: 두통 스트레스 해소
- 결명자: 눈 밝아짐, 숙면, 두통
- 녹차: 심신안정
- 약쑥: 신경통증
단체주문 할인 판매점모집
0505-817-1425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사찰운영(동참)할분 찾습니다
1. 소자본 5천만원 이상 투자 가능한분
2. 소자본 투자로 엄청난 불사 가능한 사찰임
3. 현재운영중, 환경, 경관, 교통, 신도, 모두 갖추고 있음 (위치 울산근교)
010-9620-6766

선원에서 참선 지도하실 강사분 모십니다
- 구비서류 : 자기소개서 1통, 이력서 1통
011-799-7397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25번지 달마선원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스님모십니다
- 사찰 운영할 스님 모심
- 시설완비, 조건 최상
- 50년 전통의 사찰
010-7594-5079
051)628-5079

세계결혼기관
- 국내 : 초혼, 재혼
- 국제 : 필리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지사모집 시·군
0502-555-4242

산 좋고, 물 좋은
오래된 암자에
사글세 냅니다.
법당,요사채 100평. 용화전,
용왕전,산신각,정각
꼭 원하시는 분만 전화요망
011-9126-22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지역
016-779-2237

사찰사무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찰
041)673-7888
011-9810-888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종무원 모집 공양주 법당 기와 모십니다
▷전북 고창
019-280-00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 80만원)
▷경기도 파주
010-3070-353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광주
031)764-4200
011-779-4496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백운암
054)748-3530
010-8268-0005

좋은인연기다립니다
포교스님입니다
승용, 승합차 보시하실분
연락기다립니다
010-8542-7188

비구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한주스님 모십니다
(40-50세, 비구스님)
기본적인 불교의식
집전 가능하신 분
055)289-7282

부전스님,사무장 모십니다
※청정도량 팔공산 적멸보궁 에서 기도하실 남·여 불자님 연락주세요
▷팔공산 거조암 방향 묘적암
011-9371-8080

선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주방기구, 불교용품
보시하실분
인연을 기다립니다
011-468-0108

야간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 전공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포항
017-502-7318

산세수려한 전남 불사도량입니다. 속세의 지난날 모두 버리고 금전의 탐욕없이 남은 생을 일성불심으로 함께 불사하며 적멸보궁으로 만드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용모단정하고 착하신 50~60세 보살님
010-9405-92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336-1575
011-805-1576

두매산골 노는 땅이나 집을
장기임대하주실 곳을 찾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농사지으며
살고싶은 복지사 입니다
복지나 봉사에 뜻있는 분들의
연락도 기다립니다
011-9808-9561

좋은인연을 찾습니다
55세 처사입니다
복잡한 재산관리(부동산)
대형식당 운영 및 관리 신축사찰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회경험자임 신분확실
▷현 부산거주
017-550-9009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자모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악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지수 대진 합장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代)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경북 ● 위치 : 경남
● 법당 : 64평 ● 법당 : 20평 ● 법당 : 70평
● 요사 : 80평 ● 요사 : 50평 ● 요사 : 30평
● 부지 : 430평 ● 부지 : 125평 ● 부지 : 33000평
● 가액 : 13억 ● 가액 : 1억8천 ● 가액 : 4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강원 평창군 사찰3만평-7억
2. 정릉 토굴 33평 올수리-2억
기도스님, 부전스님, 노전스님
수행처를 찾거나, 절관리, 운영스님,
공양주보살님, 법당보살님,
화주보살님,종무직, 운전직, 천도재
49재, 점안식 신속연결해드립
※ 사찰일자리소개전문
현대불사 02)555-0575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 가액: 5억5천만원(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집
주인이 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당안내
(싸게 인수 하실 분)
● 위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평수: 45평.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시설비
합 1천3백만원.월세 40만원
016-261-206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 안내
● 위치 : 가평 ● 위치 : 사천
● 대지 : 100평 ● 부지 : 6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6평 ● 요사 : 3동 52평
● 가액 : 1억 8천 ● 가액 : 2억 4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법당, 요사채3채, 총 760평
● 창고, 방4개,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 5천만원
011-562-9873
055)883-884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내.
대구, 왜관에서 15분 거리
● 대지(밭 같이있음)416평-실제사용600여평
● 대웅전,삼존불,요사채3동 화장실,세면실
주차장 완비
난방시설 : 심야전기보일러 36평2개
● 중계업자 일체사양, 직접운영하실
스님만 전화요망 ※스님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5천만원
010-3542-3203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 1개, 큰방2개, 거실, 욕실,
본지가스(잡일해결), 큰불장,
삼존불,법단2단 복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700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 부지: 100평
● 법당: 40평(목조, 포집)
● 요사채: 50평
● 산세좋음, 역사깊음
● 양도가 10억
● 위치: 경기도
(서울에서 40분)
● 대지: 120평
● 법당 20평 요사 20평
● 교통요지이며 도심사찰임
● 양도가 4억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688-3521 / 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근
● 4층 법당 45평-삼존불,
엠프시설 등 제반시설완비,
5층 요사채 45평-에어컨 등
모든시설 완비
4.5층옥상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됨. 즉시 법회 가능
● 시설비 절충가능
010-9527-3461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건천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1161평 중 168평-
전용허가 필, 바닥기초공사 완료,
주택 25평, 창고 15평, 건축허가
배산임수, 명당, 경관수려
● 가액 : 7천만원
017-585-4980

비구니스님으로 아담한 사찰안내
● 전주시 중심 단독상가주택 1층, 2층
● 대지 110평 8×8미터 고녀절
건평 120평 1층상가 6개 2층법당
후불순금탱화 입체 10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신중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법당,
홍송조각 3단 15자 부처님 삼신불 4차반
자신있게 깔춘도량임 와벽함
● 1층상가 6개에서 매월 입대료 120만원 나옴
● 총가액 4억7천만원중 상가 보증금 빼고 2억6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완료. 융자가능 답사하시여 의논바람
032)667-8485
011-650-8481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시장 뒷길
● 평수: 약 60평. 2층 방3, 3층방 1개
● 법당, 엠프 에어컨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843-2403
051)554-2406

사 찰 안 내
● 위치: 청송 보현산
● 대지: 280평
● 국유지: 1,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20평
● 가액: 5억
● 기가막힌 계곡
버스진입
● 위치: 밀양 표충사 부근
● 대지: 1,000평
● 법당: 30평
● 요사: 25평
● 가액: 5억
● 산세 계곡 좋은 수행도량
여법한 단청법당
● 위치: 부산
● 부지: 1,600평
● 법당: 36평
● 요사: 85평
● 가액: 12억
● 여법한 도심사찰
확틔인 전망 풍수만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토굴터안내
● 위치: 대구근교 군위IC
5분거리
● 대지 : 169평, 임법당 : 25평
● 배산임수 명당절터
● 가액: 4천8백만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파동 가창교 부근
● 대지 60평
● 법당,삼존불,방6,부엌2개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또는 보증금 5천만원/월30만원
양도가 : 1억 7천만원
011-9357-5677
053-768-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부근
천안시내에서 15분거리
● 평수: 대지 62평,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가액 : 6천 3백만원
011-209-5506

사찰 안내
● 위치: 경주시 현곡면 상구1리
● 2층 24평 법당
1층 요사채
별도 요사채 1동, 산신각
● 총평수 120평
● 가액: 9500만원
011-544-97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웅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요새의 도량
● 사찰 건립 60년된 평수 1천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종각 2평, 요사방6개,
주방시설완벽
● 주차 30대 시설완비
● 가액: 5억
010-4877-5900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원주시 반계동
(서울 1시간 거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인구 밀집지역
3층건물중 3층(41평), 옥상사용
● 큰방3개, 큰거실1개, 큰주방1개,
욕실2개, 난방시설: 도시가스
● 삼존불(제약사불),개금 108불 동불
개금 불상 신중탱화 대산신(단청)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일체 답사후 가액 절충
010-4510-8188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
● 요사채 50평, 법당50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절충
010-7163-5392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무거1동
● 평수: 45평
● 가액: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사정상 급 안내
010-3069-149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명당
● 대지: 5000평 ● 건평: 150평
(1층 100평 2층 대웅전 33평)
● 특징: 신축불사중 노인전문
요양원, 납골당시설운영가능
관광특구예정지 대구시내전역
40분거리
● 가액: 상담후결정
(꼭 뜻있는분만 전화요망)
● 중개인 절대전화사절
010-2775-040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 대지 207평 법당 30평
삼존불 약사전 20평
지장전 영가단 산신각 20평
요사채 30평, 방 4개 약수터
● 가액: 1천만원 ● 11년된 도량
뉴질랜드 현지 불사관계로
보시하겠습니다
061)745-0108
010-8412-135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산외면 회곡리 백용사
● 대지: 220평, 관리임야: 3400평
● 법당 23평, 칠성각 6평, 산신각 7평,
용왕당 6평, 석굴(기도) 3평, 요사채 3동(60평),
기도요사채 방5개(25평)
● 가액: 7억(절충가능)
055)352-6802
016-422-0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유어면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7천8백만원
016-652-7547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 대지 : 총 1000평, 등록평수 600평
종교부지등록 300평
● 도로, 전기, 물, 정화조시설 완료
● 사찰 기초작업 완료
● 꼭 필요한사람만 연락
● 가액: 4200만원
055)573-7832
010-3189-3525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상가건물 53평,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 삼존불 외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 2개
시설A급,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 아파트 주택 밀접지역, 위치좋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한 분 연락바람
017-508-2675

포교당안내
● 위치: 일산
● 평수: 113. 5평7층건물중 5층
● 시설위치 A급
● 법당, 사무실, 공양간,
방4, 목욕탕, 화장실2
실내 소각장 완비
● 가액: 추후 결정
011-749-45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108평 법당 20평
요사 22평
● 수세식 화장실 2개
● 가액: 6900만원
018-683-3355

지리산 중턱
오두막집 안내
● 방한칸
부엌한칸
● 가액 2천만원
011-9258-7038

좋은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중심가(전철 2분, 버스정류소 앞)
● 평수: 60평, 엘레베이터 有(4층)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 50만원
● 주차가능 ● 시설: 한옥식 황토온돌방
(시설비 2천2백만원 조절가)
● 바램: 덕망있는 스님 전화요망
011-301-4949
051)248-248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교촌동(시내)
● 대지 : 117평 ● 법당: 인법당 18평
● 시설 : 약사여래불,신중,지장,칠성,
산신,용왕당이 좋음
● 특징: 시외터미널인접.
포교당으로 적합
방6개(공양간,스님방)
심야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
(답사후가액절충가)
011-595-7360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1층 요사채 80평, 2층 대웅전 35평
대웅전앞 반지하 70평
● 개인 위패반 및 부부 위패반 980단
● 가액: 13억5천만원
답사 절충 후 가능
011-9105-7240

사찰(급)안내
● 위치: 충남 부여 10분거리
큰도로 근접, 뒤는산, 정원양호
● 대지 200평 2층 골조 슬라브
2층법당 40평 대웅전, 산신각
1층 40평 요사채
● 가액: 9천 5백만원
하실분만연락바람
011-9805-6747
011-736-7870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돌로둘려싸인 팔각정
천하절경명산으로
소문난 명승고적지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김해, 마산,
밀양에서 (30분 거리)
구포에서 20분 거리.
● 건물은 법당 외 다수
(차량진입 가능)
산 높고 깊은 기도처
● 평수 3만3천평 (임야, 대지, 전)
● 가액 : 절충 ※ 비구스님 원함
011-765-2757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합안군
● 대지 : 140평
● 건평 : 80평 이상
● 대웅전, 방4개, 창고3,
창고 겸 화장실, 화장실2,
거실 겸 부엌1, 간이부엌10평,
마당주차가능
055)583-0804
010-9939-1151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
(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
(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명륜2동
● 가액 : 2억 6천
● 평수 : 법당 30평
대지 : 71평
● 2층 요사채, 주차가능
정원 및 마당
051)555-8516

포교원(전세)안내
● 위치 : 수도권-
김포 시내 요지
3층 50평
● 전세4천/시설비1천3백
관리비무
011-820-1500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의 큰 사찰
● 도량내 1,000평
● 가액 : 11억
051)326-1545
011-563-1545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가능, 창고2.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49만원
시설비 3천만원
※ 20년간 포교한 곳, 스님
노환으로 인계
010-9790-1761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 송내 국도옆
3층중 3층, 70평
● 법당 40평, 주지실, 상담실,
후원 15평, 옥상단독사용 70평.
시설설비 특급
※ 지방에 사찰신축으로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시설설비는 2천5백만원에
5천만원까지 필요한 만큼
드립니다.
010-6252-5247

도심속최고포교원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우방아파트입구 상가지역내 도로변
● 대지: 100평
(구입당시 평당 백만원)
● 건물: 법당 20평, 요사 60평
(일체시설완비)
● 가액: 2억2천(은행융자 6천
승계시 1억6천)
● 특징: 주변아파트(5천세대 이상)
상가지역내 포교원 운영6년
즉시법회, 비구니스님환영
011-524-9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20평,
등기상 623평,
실평수 1500여평

사찰(부지)안내
● 평수 : 1천여평
● 바닷가, 수행처 적합,
전용허가 200평,
상수도 도로 완비.
010-7109-3281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가액 : 3억 5천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공간에
법당 요사채가 65평.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사찰밀양얼음골부근
● 대지 512평, 건평 거의 100평,
법당뒤 대밭 있고
대구 부산 고속도로 10분거리.
언양 20분거리
● 옛날 독 약100점 포함, 대지 전체 돌레 돌담.
● 황토방처럼 시설 전면 수리되어 있음.
2층법당, 1층요사채, 산신각, 실내목욕탕,
변소, 실외변소 2개, 황토집 두채.
마을 뒤 앞이 트여 전망이 좋음.
방이 20개 개조 고시원 하면 좋음.
비구니, 보살, 노스님, 아주 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572-1501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 건물: 약40평(인법당)
● 법당: 18평,
부지: 약 300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
02)918-1215
016-237-30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강원도 속초, 최고의 위치,최고의 시설
● 건평 60평, 법당, 삼존불, 방3개, 부엌,
화장실, 시멘시설
● 내부시설 황토로 되어있음
● 보증금 :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특징 : 불자들에게 지료할 수 있는 전통
쑥뜸 좌욕 기구 완벽
● 몸만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꼭 하실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17-527-1105

제 1기생 모집

명리학 최고지도자 과정

우리 이제 앉아서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단연코
일어서서 가리키는 지도자로서 그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여 봅시다.

「 최고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 대학원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

교육내용

명리학 핵심이론 정리	육효 핵심이론과 실전
명리학 실전풀이	육효 내정법
자미두수 기본이론	타로 이론 및 실습
자미두수 격국과 실전풀이	육임정단법
부부인연법 특강	구성학 핵심강의 및 취기법
월영도 해석법 특강	길흉 방위 이용 개운법 특강
교수법 특강	성명학 (주역작명법 포함)
인상학 특강	음택 양택 · 현공풍수 특강

입학안내

◆ 입학자격 : 역학 분야 3년 이상 연구자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입학 특혜
전문 상담사, 권위 있는 교육 강사 희망자 대환영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정원 : 50명
◆ 교 육 비 : 120만원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및 수료패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명리학 최고지도자 자격증 수여
◆ 졸업 후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학술위원 위촉 및 학술위원증 수여
◆ 동양문화연구소 명의 명리학 교육 강사 자격증 수여

교육기간

◆ 개 강 : 2005년 11월 23일 수요일
(주간반 14시 / 야간반 19시 개강)
◆ 접수기간 : 2005년 11월 1일 ~ 21일 까지
◆ 교육기간 : 1학기제 (16주 완성)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주간반: 14 ~ 17시 / 야간반 19 ~ 22시)
1교시: 80분 수업(기본과목: 격국용신, 실전풀이, 자미두수, 월영도) / 20분 휴식
2교시: 80분 수업(특별과목: 육효, 타로, 서양점성학, 인상학, 성명학, 구성학 등)

문 의 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교학과 ☎ 02)745-2140
담당 011-9902-4640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www.dongbang.ac.kr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청동 불상 제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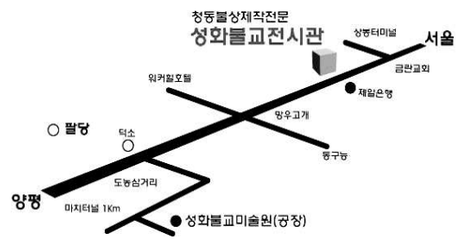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료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 **문의전화**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model:XL-15

model:Fresh Air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 無병균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 無필터 신소재 리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 조절가능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EPA Est. Reg. No. 065975-TN-001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일주문



부산종교인평화예술제

부산 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정각 스님은 11월 16일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에서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제3회 부산종교인평화예술제를 개최한다.(051)441-2108



갓바위 유리광전 삼천불 봉안식

영천 선본사 주지 정묵 스님은 11월 4일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을 증명법사로 갓바위 유리광전 삼천불 봉안식을 봉행했다.



순직경찰관 추모위령재 봉행

부천 대덕사 주지 성인 스님은 11월 17일 오전 10시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법당에서 순직경찰관 추모위령재를 봉행한다.(032)664-5545



혜국 스님 초청법회 거행

대구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은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1월 7일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발전기금 1억원 기부

서울 정릉 모사찰에서 수행중인 명운 스님이 11월 8일 동국대 대외협력처에 평생 모은돈 1억원을 동국대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청소년 환경등산대회 개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김진관 총재는 11월 27일 포천 보현사에서 '제3회 청소년 초청 환경 등산대회'를 개최한다.(02)735-1108



현불사 성지순례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은 11월 9일 대한불교 일승종 본산인 현불사를 비롯 봉화 일대 사찰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조계사 청년회 새 회장에 박희정씨



21대 조계사청년회 박희정 회장(37 · 사진)은 11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박회장은 취임사에서 "효율적인 법회 운영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조계사청년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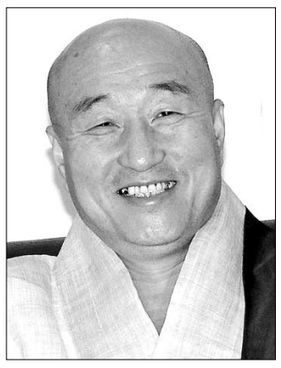
대구경북포교사단장에 최문성 포교사



대구경북포교사단장에 최문성(57 · 사진) 현 단장권한대행이 선출됐다. 2000년 제5기 포교사로 활동을 시작한 최문성 포교사는 사찰문화안내팀장, 특별위원, 감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9월부터는 단장권한대행을 맡아 활동을 펼쳤다. **배지선 기자**

"법장 스님 뜻이어 나눔 확산"

생명나눔실천본부 신임이사장 일면 스님



"원적한 법장 스님의 뜻을 이어 생명나눔운동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사진)이 11월 7일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회에서 법장 스님 원적 이후 공석이던 이사장직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스님은 "법장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생명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3년 임기 이사장직 맡은 각오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스스로를 '생명나눔의 수혜자'라고 밝혔다. 2000년 1월 간이식 수술을 받을 때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당시 22살 뇌사 청년의 '생명나눔'을 통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간'을 기증받음으로써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스님은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생명나눔과의 인연인 셈이다.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제대로 '생명나눔운동'을 이끌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내게 간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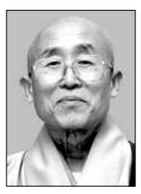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가 된 지 이제 3년째.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자문기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명나눔운동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부분과 개편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님은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최대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생명나눔이야 말로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한 사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생명나눔운동에 쏟아내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제3회 대원상 월운 · 무진장 스님, 김재일씨, 관자재회

특별상엔 박근호 · 고경순씨



월운 스님



무진장 스님



능행 스님



김재일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11월 11일 제3회 대원상 수상자로 월운 스님과 무진장 스님(승가부문 · 공동),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재가부문), 정토사 관자재회(단체부문)를 선정했다.

승가부문 공동수상자인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은 역경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공로가 인정됐고, 무진장 스님은 오랜 기간 전법포교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인정됐다.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는 보리방송모니터회와 (사)보리를 설립해 각종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했으며 단체부문의 정토사 관자재회(대표 능행)는 1998년 불교계 유일의 호스피스 봉사단체로 활동을 펼쳐왔다.

특별상을 수상한 박근호(57)씨는 교도관으로서 36년간 재소자 교화에 노력하고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창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고경순(68)씨는 대구 자비의전화 회장, 상록뇌성마비복지회 후원회장 등을 맡는 등 각종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35년 동안 펼쳐왔다.

대원상 승가, 재가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천만원, 단체부문은 상패와 상금 1500만원,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에서 열린다. **박봉영 기자**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절감했어요"

청정선거운동본부 활동 마친 수완 스님

"비구계 수지 5년 이상 된 스님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상임대표 수완 스님(현대불교문인협회장 · 사진)은 '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완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교계 안팎에 청정선거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도 "후보들의 불참으로 종책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는 11월 8일 해산했으며,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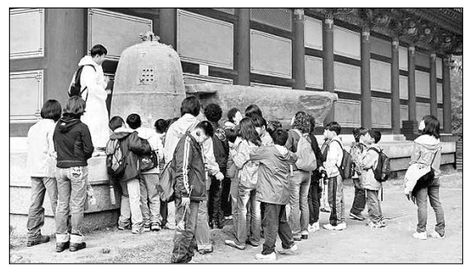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제1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1월 9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는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험>을 출판한 '여시아문'과 저자인 장지현씨가 출판부문상을 수상하는 등 각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불교언론인 대상은 공종원씨가 수상했다.

파라미타 사찰생태문화재 답사



파라미타 대전지부(지부장 장곡)는 11월 6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6회 파라미타 사찰생태문화재 답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대전지부 소속 탄방초등학교와 보문중 · 고등학교, 문정중, 대문중, 준원고 회원 500여 명은 문화재 강연을 듣고 문화재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장학금 전달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11월 5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제4회 은정장학 학술연구지원, 생활격려금 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6개 단체와 초 · 중 · 고 · 대학생 60명에게 총 1억 7950만원이 전달됐다.

부산불교교육원 재개원 법회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 개원법회가 11월 10일 교육원법당에서 봉행됐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을 비롯해 100여 사부대중들이 동참했다. 박동범 원장은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불교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1년 동안 부산불교교육원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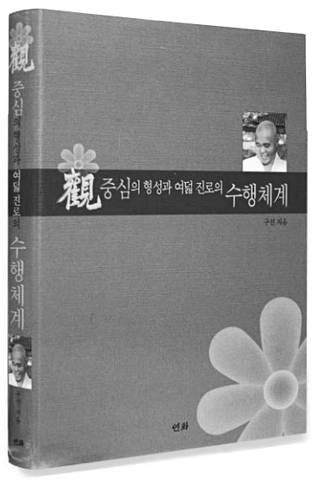
동국대 상담대학원 스님들 템플스테이



동국대 불교상담대학원 스님들과 학생 등 10명은 11월 4~6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지도법사인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자비 명상 수행을 하면서 내면을 살펴보고 내 안의 자비사상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죄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저버리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할 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로써 나와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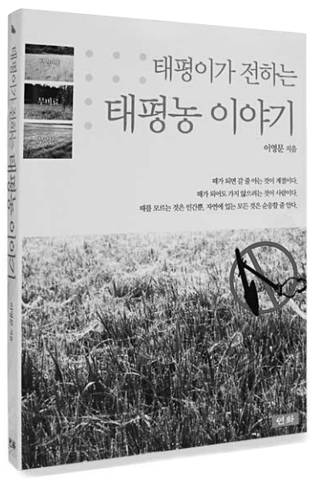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닦아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더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삶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복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외시 하지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불자 세상보기

김 영 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난자를 사고 팔면 그 업보는…

국왕 프라세나짓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 무엇을 말하여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함이라고 하시고, 무엇을 말하여 제 몸을 스스로 지킴이라 하옵니까" 부처님은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들은 악을 지으면서 능히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 기분이 좋다가 뒤에는 모진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하는 이는 삼가서 지킬 바를 지키게 되며 마음을 고루고 몸을 바루나니 복은 마땅히 하늘에 오르리라"<아함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류대 출신의 젊고 건강하고 교양있는 단아한 한국난자'.

이 문안은 취업광고가 아닌 일본에서 한국여성의 난자를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알선하고 있는 광고이다.

국내에서 불법 난자매매가 거래된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불법 난자매매가 이러한 광고를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불임여성만도 모두 249명이고 난자제공회원이 2,029명이라는 사실은 난자매매가 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자매매는 지난 해까지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05년 1월에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난자를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것을 제외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과정에서 금전적 거래내용을 숨길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생명윤리법이전에 이루어진 난자매매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대개 난자매매는 20~30대 여성들이 신용카드 빚, 학자금, 생활고 등 경제적인 이유와 불임부부들의 돈을 주고라도 난자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서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난자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

첫째, 난자 채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보통 가임여성들은 한 달에 한 개씩 한쪽의 난소에서 번갈아 배란이 된다. 불임여성들은 보통 기증받은 난자를 체외수정시켜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임신을 시도한다. 그러나 체외수정을 할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난자가 필요해 난자제공자가 과(過)배란 유도제를 맞는다. 이 호르몬 주사는 제공자의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20~30%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난소과자극증후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난자불법거래는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난자공여자에게 나중에 아이들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 나설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매브로커들은 난자제공자들로부터 향후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지만 법적 효력은 의문이다. 즉 난자공여로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며 친권자를 찾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생명에 관한 성찰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국가는 난자매매와 관련한 현재의 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A.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서 한꺼번에 수천개의 태아가 병속에서 부화되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병에서 나와 보모들에 의해 양육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헉슬리는 과학의 진보는 인류에게 야만세계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생명을 가볍게 보는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자애품(自愛品)'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지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부산 금정중학교 현익채 교법사가 펴낸 <간추린 부산불교 50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어린이법회와 중고등학생회 및 대학생불자회 등의 변천사'이다.

현법사가 도표를 통해 밝힌 현황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1993년에 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 학생회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불교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불심이 그 어느지역보다 높다는 부산의 형편이 이렇다면 다른 지역의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초중고 학생들의 입시위주 교육 양태와 대학생들의 취업중심의 의식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종단과 사찰들의 미래 포교에 대한 투자의식 결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앞날을 망각한 근시안적 포교전략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새싹포교' 없으면 미래도 없다

물론 학생회는 사찰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하여 사찰 학생회가 찬밥 신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서양종교의 성공적 선교사례에서 보듯이 새싹포교와 청년포교는 간과할 수 없는 포교전략의 일번지이다. 그들은 수십년 동안 학생과 청년세대에 투자했고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꾸준히 이들에 대한 선교전략을 마련하고 집중투자하고 있는 것을 불교계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집단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획기적인 포교청사진을 마련하여 특별관리하지 않으면 미래불교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부서에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 종도들은 이에 협력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다. 낙락장송도 한 알의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월암(동국대 강사)

이렇게 들었다 대북정책 유감

국왕은 마땅히 법을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은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布施)·애어(愛語)·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정부가 2006년부터 2010까지 5년간 북한에 총 5조2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다. 여기엔 대북송전비용 3조3200억원을 비롯해 쌀 비료 등 농업 지원 비용 1조원 그밖에 경공업 · 수산 · 광업 · 과학기술 분야 지원 등이 들어 있다. 이미 北북에 보내고 있는 쌀 · 비료 등의 지원비용(연간 약 1조원)과 앞으로 투입될 도로 · 통신 등의 인프라구축 지원비용까지 합치면 향후 10년간 3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을 제외한 남북협력분야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약 80%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5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 경협지원 계획이 '북한과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대북지원은 공개적으로 국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양실조로 성장발육이 멈춰버린 북한어린이,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조차 구하지 못해 생병으로 죽어가는 노약자들을 돕는 지원이라면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조건 없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협사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켜 북한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을 것인가. 그것도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말이다.

■노병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교구종회 살리는 총무원장 직선제

'현대불교' 551호를 보면서 조계종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싶다. 현재의 간선방식을 버리고 직선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들과 본사주지를 비롯한 교구종회의원 가운데 10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일반 대중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담보되지 않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구종회가 일반대중 스님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될 수 있고 종단의 일에 평대중 스님들이 보다 가깝게 접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본사들은 수 십년째 이를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평대중 스님들의 의견은 수용할 방안은 거의 없어 보인다.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평대중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그런점에서 총무원장 직선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0년차 이상 승랍의 스님들에게 종단의 가장 중요한 행정적 소임인 총무원장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면, 불법 앞에 평등한 종단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백팔번뇌 (buddhanews.com)

국보1호는 불교문화재로

11월 7일 국보 제1호와 보물 제1호를 지금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문화재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요구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지정번호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수년전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우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과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변경이 좌절된 사연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에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약하다.

마침,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보 제1호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학계의 동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국보 제24호 불국사 석굴암, 제32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을 국보 1호로 꼽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다른 종교인들이 불교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지 않도록 제70호 훈민정음을 국보 제1호로 내세우려 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불교계가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하경수(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양성평등교육에 관심을

'현대불교' 550호에서 '양성평등 직장을 만들자'는 기사를 읽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 내부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니 반갑고 기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직돼있는 불교계에도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양성평등의 진정한 의미는 남성과 여성이 존엄한 존재로 서로를 존중 · 배려하며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양성평등의식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틀에 매여 사는 사람보다 상황에 유연하다고 한다.

불교는 이미 2천6백년전에 사상 유례없이 여성에게도 출가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주었던 종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는 '비구'와 '비구니'간, '우바새'와 '우바이'간의 차별이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어느 종교보다도 자유롭고 평등해야할 불교계 내부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싹트길 기대해본다.

임경자(서울 동작구 흑석동)

'현대'만평 심 민 섭



佛
眞如聖地巡禮
www.sact.co.kr
02) 2076-9511~3
※해외여행 안내원 모집
(영어,중국어,일어 능통자 우대)

成道齋日(음 12월 8일)을 맞아 떠나는
부처님의고향 "인도" - 불교 성지순례 -
※모든 식사는 호텔식이고, 입맛에 잘 맞습니다.
창사 기념 12월 한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초특가 1,940,000 ▸12월15일 9일
1,990,000 ▸11/24 12/1,8,22,29 1/5,12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쉬나가르(1)-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왕사성,나란다 대학,룸비니,쿠쉬나가르, 열반당,샤르나트,갠지스강,마하보디사원,니련선화 및 수잣타 마을, 등

2,090,000 ▸12월 11일 11일 초특가
2,190,000 ▸12/4,18,25 1/1,8
●여정 : 델리(1)-파트나(1)-나란다-라지기르(1)-부다가야(2)-샤르나트-바라나시(1)-쿠쉬나가르(1)-룸비니(1)-쉬라바스티(1)-럭나우-델리(1)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왕사성,룸비니,쿠쉬나가르,열반당,샤르나트,갠지스강,마하보디사원,니련선화 및 수잣타 마을,죽림정사,다멕스토파,나란다대학유적지,영취산, 등

日本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699,000 4일
출발일 ▸ 11/23,27,30
*여정 : 인천-치토세-노보리베츠(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죠잔케(1)-삿포로-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아이누민속촌,지옥계곡,쇼와신산,곰목장, 분화구,토야호수유람선,후키다시약숫물, 무로란 만케지사찰,삿포로 동본원사 사찰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

日本 동북 사찰순례
699,000 4일
출발일 ▸ 11/21,28 12/5,12
*여정 : 인천-아키다-히라이즈미-하나마키(2)-모리오카-다자와(1)-아키다-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흑석사,중존사,모월사,금색대관음,뉴토온천, 이와테성 유적지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

中國 북경 불교 문화탐방
599,000 4일
출발일 ▸ 11/23,30 12/7,14
영광사 불아사리탑/벽운사 오백나한당 순례
*여정 : 인천-북경(3)-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자금성, 써커스 관람, 만리장성(케이블카), 용경협(유람선),천단공원,이화원,유리창

中國 서안 북경 불교 문화 탐방
849,000 5일
출발일 ▸ 11/26 12/3,10,17
서안 법문사 지하궁,병마용/북경 영광사 및 벽운사
*여정 : 인천-북경(2)-서안(2)-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서안 법문사 지하궁,병마용,진시황릉,화청지
- 북경 영광사 및 불아사리탑 순례
- 벽운사 및 오백나한당 순례
- 북경:만리장성,명13릉,천안문 광장,자금성 천안공원,이화원 등 순례

中國 상해/소주/항주 불교 문화탐방
599,000 4일
출발일 ▸ 11/22,29 12/6,12
*여정 : 인천-상해(1)-소주-항주(1)-상해(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옥불사,홍구공원,정산사,용화사,서커스 관람, 영은사,한산사,졸정원,발맛사지 체험,서호유람,동방명주탑

中國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1,599,000 8일
출발일 ▸ 11/29 12/6,13,20,27
신비의 땅 티벳을 순례하는 희귀 체험
*여정 : 인천-성도(1)-라싸(1)-시가체(1)-장체(1)-라싸(2)-낙산-성도(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라싸(노부린카, 색랍사,철봉사,포촬라궁,대소사, 팔각가 순례.) 시가체(자스룬부스 순례), 장체(백거사,얌또호 순례)

공통사항:15명 이상 출발, 1급이상 호텔 이용, 1억원 배상 여행자 보험, 관광진흥 기금, 전쟁 보험료, 유류할증료 포함, 국적 항공사 이용 / 가이드 및 운전기사, 인솔 안내원 팁 불포함. 여행 불편 신고 전화 : 02-2076-9500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월동준비 막막하네요

복지시설들 후원 · 지원 줄어 겨우살이 걱정
선재동자원, 둥지청소년의 집 등 도움 호소



찬바람이 불면서 불교계 복지시설들의 '겨울나기'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갈수록 지원과 후원이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이다. 사진은 선재동자원의 지난해 김장 모습. 사진제공=선재동자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지하철 망월사 역에서 판잣집이 늘어선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선재동자원(원장 지산, 031-872-9629)'이 나타난다. 아이들 50여명과 스님 아버지가 살고 있다.

아직 조건부 신고시설로 남아있는 선재동자원에는 10억의 빚이 있다. 2003년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다시 짓느라 생긴 빚이다. 이 때문에 스님은 날마다 밤잠을 설친다.

한발 한발 다가오는 겨울은 스님을 더욱 근심스럽게 만든다. 당장 11월 18일부터 사흘간 김장과 겨울나기 준비를 할 계획인데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스님은 매년 이웃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층 가정에도 김장 김치를 나눠주고 있다. 그 양만도 배추 5000포기. 올해는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스님의 김치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

안산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원장 자월, 032-883-9033)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약 90명의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둥지는 올해 건물을 신축했으나 막판 공사비 부족으로 보일러 시설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있다. 연료비, 시설보수비 등 시설 유지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김장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원봉사자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둥지'가 위치한 곳은 교통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이다.

100명이 넘는 장애인 식구들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원주 소쩍새마을(원장 성묵). 이천 자비복지타운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겨울나기 준비에 어려움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노후 된 가건물이다 보니 연비가 좋지 않은데다 물가마저 올랐다.

원장 성묵 스님은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좋은 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힘든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포천 목련의 집(원장 양영화, 031-534-8554)과 파주 거북마을(원장 혜각, 031-953-4801)도 사정이 어렵다.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두 시설은 모두 큰 걱정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목련의 집 양영화 원장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연료비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북마을 혜각 스님은 들어오는 후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년 된 시설 건물을 지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항상 자원봉사자 수가 모자라 고민인 성남 부처님마을 자광원(원장 김정자, 031-759-5320)도 겨울나기가 막막하다. 김장 인력이 충원될까 고민인 것이다.

이밖에도 사찰 인근의 한 여관을 빌려 아동 70명을 보육하고 있는 고성 보리수동산(원장 성욱, 055-672-0078)과 사찰에서 청소년 19명을 양육하고 있는 부산 보광정사(원장 지홍, 051-524-8932)에도 연료비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하다. 특히 보광정사 지홍 스님은 "올해는 배추를 직접 재배해야 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성금 1500만원
중고생 15명에 장학금 전달

"1년 동안 모은 성금 학생들 장학금으로 드려요."

본사가 1년 동안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추진하며 모금한 성금 1500만원을 종립학교 중 ·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본사는 11월 19일~20일 공주 갑사에서 '제2회 나눔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한다.

장학금은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중 · 고, 김제 금산중 · 고 등, 지난해 성금을 전달한 서울 · 경기지역 12개교를 제외한 15개 학교 45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전달된다.

이날 행사는 장학금 전달식을 비롯해 장학생과 인솔교사들의 갑사 템플스테이, 사찰탐방,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민수돕기 달마도 판매 종료

일허 스님께서 기증해주신 백혈병 환아 '민수 돕기 달마도' 100점이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민수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달마도 구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지는 민수가 나을 때까지 기금 조성 및 민수 소식 전달에 힘쓸 것입니다.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윤정연 30,000 이창근 10,000
신금례 50,000 박상환 30,000
윤선애 10,000 진영숙 30,000
조근영 1,000 **총누적금액 42,347,050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밀가루 반죽하고, 면 뽑고, 버무리고. 맛있는 자장면을 만드는 대성사 보리봉사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 인기. 사진은 10월 28일 대성사 앞에서 열린 무료급식 봉사 모습.

대성사 보리봉사회

사랑으로 반죽… "면발, 끝내줘요!"

10월 28일 금요일. 대구 천태종 대성사(주지 정산) 앞에는 7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성사 보리봉사회(회장 김정길)가 준비하는 무료급식 날이기 때문이다.

대성사 보리봉사회가 준비한 무료급식 메뉴는 자장면이다. 메뉴가 특이한 만큼 인기가 높지만 준비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밀가루를 반죽해 숙성시키고,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자장 소스를 만드는 일은 하루 전부터 시간을 맞춰 준비해야 하고, 국수를 삶고 헹구어 자장소스를 끼얹는 일은 급식시간에 맞춰 한꺼번에 빠르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 12시, 급식시간이 되자 30여명의 보리봉사회원들은 마치 정밀한 기계가 움직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자장면은 반죽이 중요한데, 소금 비율과 반죽 숙성 정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오늘의 봉사팀장 정동수 수성구 지회장의 '자장면 특강'에서 정성스런 마음이 베어난다.

이날 봉사에 품앗이를 나온 이상서 서구지회장은 "이가 좋지 못한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야채를 오래 익혔는데 맛있게 잡수시니 즐겁다"며 싱긋 웃었다. 이런 이야기에 수성구에서 온 한 노보살도 "봉사활동 덕분에 무료함을 달래고 허전한 마음에 위안이 됐다"며 감사해 했다.

대성사 보리봉사회는 대성사 신도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1995년 발족했다. 현재 3만여 대성사 신도 중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보리봉사회는 98년부터 시작한 자장면 무료급식 외에 50사단 위문, 경찰의 날 달서경찰서위문, 소년소녀 가장돕기, 지체장애인수용시설 혜양원 위문, 신당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보리봉사회의 무엇보다 큰 자랑은 일체 모든 활동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보리봉사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송수용 사업위원은 "모든 봉사활동비는 바자회와 순수 회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며 절대 사중의 재원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봉사활동은 신도회의 화합과 수행에 더 큰 활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 · 사진/대구=배지선 기자

자장면 재료 후원해 주세요

대성사 보리봉사회의 자장면 맛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보리봉사회 회원들은 "우리가 만든 자장면을 맛나게 드실 수 있도록 봉사를 계속하고 싶은데 자장면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채소, 자장 소스 등의 재료가 항상 부족해 아쉽다"면서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053)651-6108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一氣功研究會는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삼성종합화학(주) 한솔개발(주),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 등 수련지도

13년전에(1993년)설립되어 파워봉, 신선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일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300페이지 값 10,000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 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재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악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유적지, 큰 지혜의 교과서

향기도반의

'전국문화유적 명승지전집' 낸 김인덕


그동안 쓴 수십만장의 답사원고를 펼쳐 보이는 김인덕씨.

"생계를 목적으로 이 일을 했다면 지레 말라 죽었을 겁니다. 내가 즐거워서 한 일이고, 문화재를 찾아 전국을 누비는 것을 관광삼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올 7월 <한국의 명승지와 문화유적> 12권째로 '서울편'을 펴낸 김인덕(74 · 부산 중구 대청동)씨. 이로써 전국의 명승지와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책을 12권 전집, 4094페이지의 분량으로 마무리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를 정리한 12권의 전집에는 전국 163개 시 · 군 · 구의 향토사가 집대성돼 있다. 김씨의 전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에는 제주 부산 대구 전북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서울 등 전국의 문화유적과 명승지 총 3088건과 직접 찍은 사진 2500여 장이 수록돼 있다.

김씨의 문화유적 답사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점 찍을 수 없을 만큼 삶과 밀착돼 있다. 6년제 중학교 시절부터 쏠리기 시작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 역사속의 사상과 정신,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에 닿았다. 한국전쟁을 겪고 8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잠시 주춤하는가 했지만 5급 임용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문화유적에 대한 사랑은 점점 영글어갔다.

지방에 가면 군지, 읍지 등을 모으고 지방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가는 곳마다 메모지와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기록과 사진자료 남기기에 빈틈이 없었다. 집 곳곳에는 8백여권에 이르는 관련 서적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직접 찍은 사진 수만장이 쌓여갔다. 지칠줄 모르고 이어지던 그의 답사는 1984년 공직을 퇴직하면서부터 더욱 본격화됐다.

"처음엔 가족의 반대가 심했어요. 답사를 나가면 며칠 씩 집을 비우고 퇴직후에는 한푼도 벌지 않고 쓰기만 했으니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됐죠. 그래도 우리 전통의 우수함이 그대로 깃든 문화유적을 나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는 생각때문에 멈출 수 없게 돼 버린 후였죠."

급기야 그의 부인 최재선(70)씨가 음식을 싸들고 답사길에 따라나서기에 이르렀다.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 먹는 거라도 잘 챙겨주기 위해서였다. 11권에 수록된 강원도 답사때에는 한번 집을 나서면 1주일은 예사였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직접 운전해 가며 답사지를 찾아 달렸다. 절을 만나면 절에서 머물고, 여의치 않으면 여관에서 묵었다. 미리 지도를 작성해갔지만 길을 헤맨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전국을 누비는 동안 자동차는 4대나 폐차 시켰다.

간 원고를 쓰노라면, 그동안 다녀왔던 답사지가 눈앞에 있는 듯 펼쳐졌다고 한다.

옆에 있던 부인이 말을 거든다.

"그때 밤이고 낮이고 머리맡에 상을 펴놓고 앉아 있더니 허리가 탈이 나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일년이 넘게 거동도 못하고 누워지내다 조금씩 나아지니까 곧바로 답사를 시작해 올 5월까지 또 답사를 해서 마지막 서울편 책을 냈지요. 저 연세에 일주일에 몇 번 서울을 오가는 걸 보면 걱정스러울 때도 많았지요."

1994년 시작해, 꼬박 4년만에 1 · 2권 부산 경남편이 탄생됐다. 한권을 내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만도 1천만원이 넘었지만 책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역시 돈버는 일은 아니였다. 전국의 대학, 역사 연구소, 사찰 등에 책을 무료로 보시하기 시작했다. '글절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근본을 우리의 전통문화의 뿌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믿음때문이었다.

매권마다 500~1100권을 펴낸 후, 지금까지 꾸준히 보시해 오고 있으며 소량이지만 서점을 통한 판매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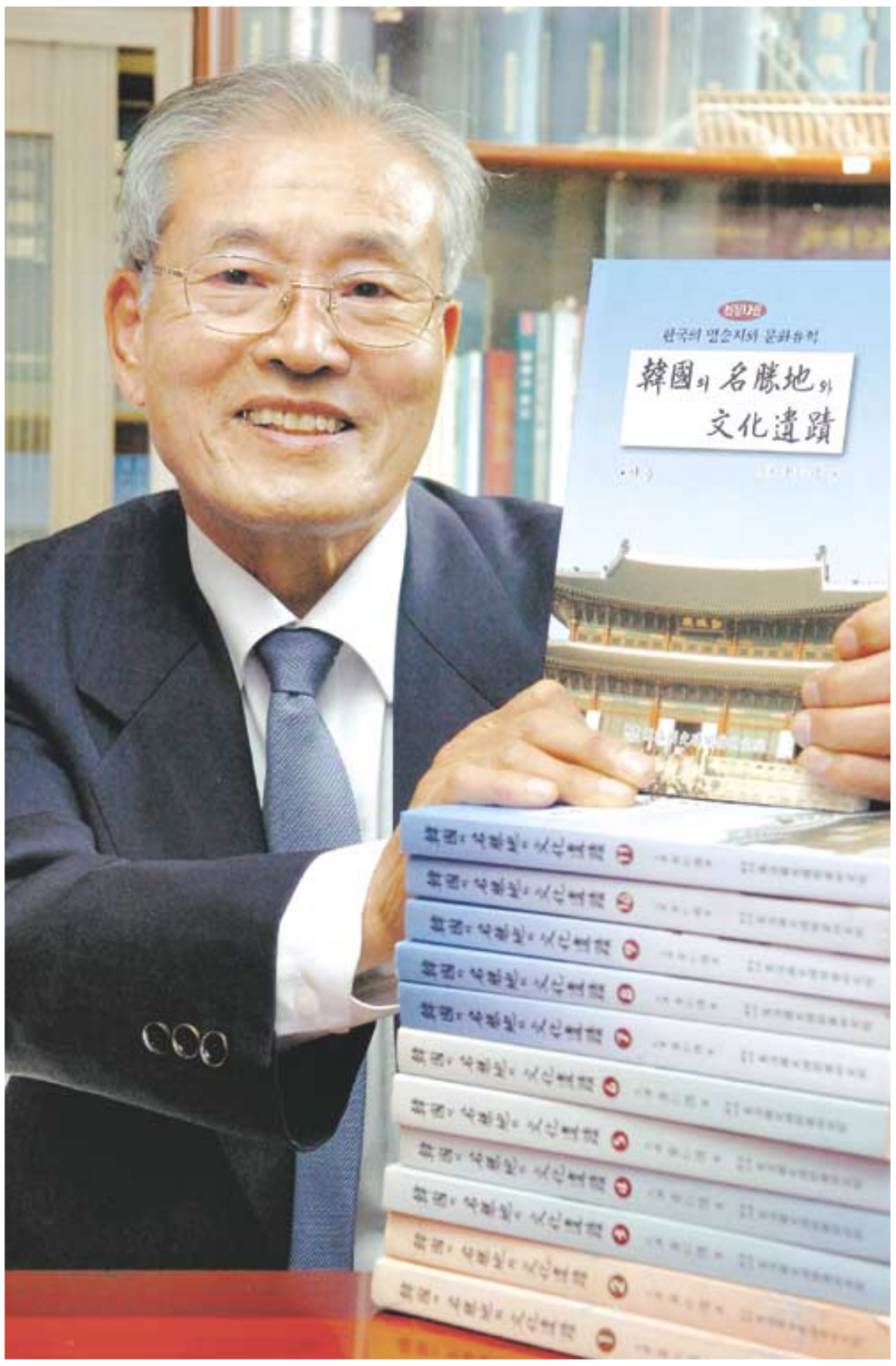
"책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전집을 구할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옵니다만, 책이 없어요. 혼자힘으로는 전집을 찍어낼 능력이 없어요. 규모있는 출판사가 맡아 책을 내준다면 우리 전통의 가치와 우수성이 두고 두고 전해질텐데…."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게 되길'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체국으로 향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으로 보내지는 책을 들고 우체국을 드나든 김씨는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으로 뽑혀 선물을 받았을 정도다.

남한의 문화유적을 총 집대성한 12권을 앞에 놓고, 김인덕씨의 마음은 이제 또 다시 북한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북한 관광이 개방되는 대로 하나 둘 자료를 모아 북한의 유적이나 명승지도 8권 정도로 펴내, 20권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적 자료집을 총 정리해보겠다는 원을 세워놓았다.

단 한번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고 문화유적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길위의 인생을 살아온 김인덕씨. 보여지는 것들을 좇아 전국을 떠돌았지만 김씨가 가 닿은 곳은 결국 '마음'의 세계였다. 전국에 흩어진 문화유적은 앞서 살다간 사람들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활짝 열려진 통로라는 것이다. 문화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진정 하고픈 말은 그 문화재속에 담긴 조상들의 '마음'이다. "조상들의 지혜와 예술혼이 여기 있소. 그 마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오!" 갈피를 넘길때마다 쟁쟁 귓전을 울린다.

부산/글=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김인덕씨는 20년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에 눈을 뜬 뒤 현재까지 12권 분량의 '한국의 명승지와 문화유적' 시리즈를 펴냈다.

40여년 전국 답사 '길 위의 인생' … 북한 유적정리가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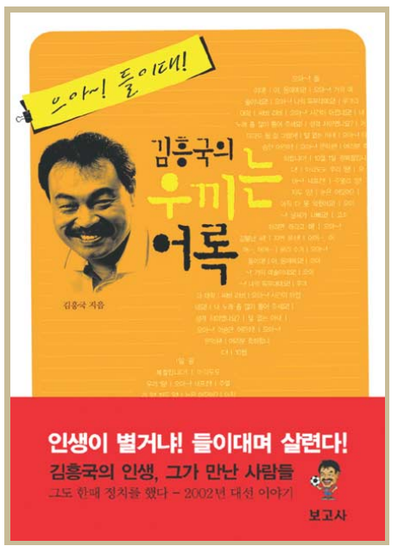
3000여 문화유적 · 직접 찍은 사진 2500여장 12권에 수록



불자, 김흥국이 고백합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받을 것은 생각도 말라."
무상보시. 이 말 한 마디에 저는 늘 주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돈이 없으면 저의 노래라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책 한권에 제 삶의 기록을 모두 담았습니다.

웃고 싶습니까?
자~ 한바탕 웃어보십시요!
그러나,
한바탕 웃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으아~! 들이대!
<김흥국의 우끼는 어록> 출판기념사인회
◆11월 19일 : 교보문고(본 점) 늦은 1시 30분부터
◆11월 26일 : 영풍문고(강남점) 늦은 1시 30분부터
◆11월 26일 : 영풍문고(분당점) 늦은 4시부터
◆12월 09일 : 영풍문고(안산점) 12시부터(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함께 합니다)

<김흥국의 우끼는 어록> 출판기념회
◆ 일시 :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늦은 6시
◆ 장소 : 63빌딩 별관2층 국제회의장

316쪽 / 값 9,800원

도서출판 보고사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11번지 2층
(편집부) 02-922-5120~1 (영업부) 02-922-2246

나의 수행법

실상관법(實像觀法) 수행체험기 - 김혜경 (上)



참선공부는 일상을 벗어나 호젓한 산사에서 조용히 자신을 관조하는 고상한 수행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선(禪) 맛을 아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정법인연을 만나면 주어진 현실에서 고뇌가 멸하고 마음과 몸이 밝고 좋아져 하루하루가 즐겁고 희망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이고 진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난 학교 책임자로 있는 교육자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금연 운동캠페인, 학생자율정화활동, 자체 교외지도, 명상의 시간, 명예상담교사제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열심히 지도해 보지만, 겉모습만 잠깐 바뀔 뿐 인성(人性)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다.

교원직무연수교육 통해 처음 접한 참선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물고 생각 복잡

그러다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참선법으로 교원직무연수를 한다는 우곡선원과 인연이 닿았다. 초심자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 앞에 서면 누구나 피교육생이지만, 참선사상을 교원직무연수에 도입시키는 우곡선원의 교원직무연수프로그램은 놀랍고 거침없었다.

불교교리를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대자대비의 위대한 삶과 행복을 재발견하는 직무연수프로그램은 방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처음 맛보는 참선은 고요하면 할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영화를 몇 편이나 본 듯한 기분이었다. 또 발은 저려오기 시작하고 허리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으며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잠은 오지 않는 것일까?'

좌복 위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그만큼 살아오는 동안 고요에 익숙해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그러는 순간, 불교진리의 위대함에 새삼 눈을 뜨게 됐다.

선원에 도착하면 소임자와 모든 회원님들의 웃는 얼굴과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스스로 행하는 자세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기에 가능한 것일까?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늦은 시간, 한참 나른하고 TV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인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바른 자세로 참선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탄성이 나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스스로 정진하는 모습들을 보니 '바로 여기 이 순간이 극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교원직무연수가 끝나고 초심자 참선교육에 입문하여 계속 참선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난 일상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정(靜)과 동(動)을 넘나들며 마음의 힘과 기상을 북돋게 됐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곡선원의 독창적인 참선수행법의 중심에 실상관법(實像觀法)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한참 뒤였다. 소아(小我)에 묶여 번민하는 중생심을 싸잡아 피안의 언덕에 내려놓을 즈음에 어렴풋이 실상관법의 효력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미묘했다.

고답적인 수행방법과 종교행위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자아(自我)를 재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보살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불연(佛緣)임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됐다. (계속)

■부산 주례여중 교장



일상사에서 연기법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견(正見)'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견은 '이기적인 나는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재가 불자들은 평소에 꾸준히 참선, 염불, 간경 등의 수행을 해야 정견을 갖출 수 있다. 사진은 불자들이 다양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합성한 것이다.

나를 '나'라고 점찍지 말라

불자 박수영씨의 '생활속 연기법 수행'

"일체중생은 본래 부처다."

부처님이 성불 후의 첫 일성(一聲)이다. 일체만법이 모두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의미다. 본래 청정한 자성(自性). 그 본성을 보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불교의 시작이자 불법의 근본인 것이다. 그런데, 중생 모두가 '본래 부처'임에도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걸까? 선사들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연기법(緣起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모든 존재현상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덧없이 변하고, 서로 관계돼 있어 '나'란 고정적인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는 연기법. 그럼 일상에서 연기법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 40대 가정주부 박수영(부산 문현4동)씨가 체득한 연기법 수행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 늘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앞집은 중형차를 모는데 왜 난 소형차일까' '옆집 아들은 일류대에 들어갔는데,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일까?' 박씨는 늘 열등의식에 빠져 살았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혔다.

"놀리는 혓바닥이 칼날이었습니다. 살면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가슴 콕콕 찌르는 말만 숱하게 했지요. 가족에게 윽박지르고 고함지르며 때리고, 악순환의 나날이었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삶을 옭아맸던 박씨.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펼치면서 충격을 받았다. '나'라고 고집할 이 몸뚱이가 연기(緣起)로 잠깐 모인 것뿐이란 말이었다. 박씨는 알고는 있었지만 <연기법과 불교의 생활화>에 자세히 나와있는 연기법문을 읽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 삶과 겉도는 연기법, 그 까닭을 알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단일로 독립돼 있는 것은 없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과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로써 존재하고, 때문에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라는 의미가 그간 살아온 삶의 전반을 되돌아 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말이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는 삶의 근원적인 원리구나!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연기법칙임을 알게 된 거죠."

부처님께서 최초로 찾아낸 위대한 발견. 박씨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깨어나 '나'의 실체가 무아임을 깨달아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뜨리고 생활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고우 스님의 법문을 통해 홀로만의 '나'가 아닌 연기법 속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며 수행하고자 했다.

▲ '정견' 부터 바로 세워야

하지만, 연기법 수행은 쉽게 일상사로 연결되지 않았다. 배운 교리와 일상사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삶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였다.

'문제가 뭘까?' 박씨는 주위로 시선을 돌렸다. 스님들을 찾아 나섰다.

박씨가 먼저 찾은 스님은 울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 스님. 우룡 스님은 "먼저 '나'를 죽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공부는 '나'라고 점찍는 마음,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우룡 스님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연기법 수행을 실천할 수 있게 한 단초가 됐다.

"스님은 대부분 불자들이 절에 가고 스님에게 법문을 들으면 불교공부가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풀어야 할 것은 결국 내 응어리인 업장을 녹여야 한다는 거였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연기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박씨는 각화사 서암으로 달려갔다. 고우 스님의 책에서 감동을 받았고 한번쯤 뵙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다.

"고우 스님은 생활 속에서 연기법과 무아법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견(正見)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곧 '이기적인 나는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서로 돕고 은혜를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스님은 특히 불자들은 꾸준한 참선과 염불, 간경 등을 해나가면서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본래부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 주위 불자들의 연기법 체험담

박씨는 재가불자들의 수행체험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철야참선도량을 찾아 나섰다.

대학 연구소 연구원인 최석환(46 · 서울 성북동)씨. 그는 소중한 체험담을 들려 주었다. 일상에서의 연기법 실천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말이었다. 연기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실천이 있을 수 있다는 충고이기도 했다. 그간 불법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생활 속에서 연기법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박씨가 최씨에게 들은 연기법 체험담은 이랬다. 어느 스님에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삼베 자루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최씨는 '햇살도 바람도 모두 숭숭 새어버릴 삼베 자루에 물이 담겨질 리가 있겠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스님의 말을 최씨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스님은 최씨에게 호통을 쳤다고 한다. "물은 그릇에 담기게 돼 있어. 냇물도 바닷물도 모두 그릇에 담겨 있는데, 왜 삼베 자루에 물이 안 담기겠어. 미리 짐작하는 헛된 불신(不信)이 문제야. 생활 속에 녹아든 연기의 도리를 믿는데서 수행이 바로 서지"라고 했다고 한다.

서울 법수선원에서 수행해온 김희중(72 · 서울 서초동)씨가 자연의 무상(無常)함을 통해 연기법을 깨닫게 됐다는 말도 박씨에게는 경책이었다. 봄이 되면 푸른 잎이 돋고, 가을에는 낙엽이 돼 떨어지는 자연의 변화. 그 속에서 비바람에 짓밟혀도 어느새 봄이 되면 싹을 틔우는 생명력을 보여준 보잘것 없는 풀에서 연기의 이치를 깨닫게 됐다는 김씨의 말이 박씨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에, 길을 가다 문득 앞에 놓인 풀을 봤어요. 방긋 웃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데, 순간 제 무릎을 딱 쳤죠. '미물인 풀도 생생하게 내게 무상을 일러주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자연의 이치에 녹아든 연기의 도리를 깨닫게 됐죠. 아무 말도 불평도 없이 시간과 공간에 거슬림 없이 자연은 무상의 이치를 알려주는데, 저는 일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못보고 헤매기만 했으니 말이에요."

이처럼 스님 법문과 불자들과의 만남 등에서 직접 듣고 겪은 경험 하나하나가 박수영씨를 서서히 변화시켰다.

박씨는 이제 삶이 편안함을 느낀다. 불교교리 전문서적 등에서 툭 던져받은 지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든 연기의 도리를 확인하며 살기 때문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아란 강한 철옹성 녹여 버려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연기법을 일상사에서 체득하려면 모든 존재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인간관계가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집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사진)은 연기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자세로서 '공경과 감사'의 생활을 강조했다. 지금 '나'란 존재가 여기에 있게 된 인연을 연기법 수행이 일러주기 때문이란 것이다.

스님은 또 안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어있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하는 연기법 수행이, 마치 바둑의 달인이 바둑판의 진행될 상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듯이, 몸과 입, 뜻의 행위가 전개될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게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연기법 수행의 목적은 우리의 의식 속에 깊게 뿌리내린 '자아'란 강한 철옹성을 녹여 없애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자아 중심의 분별심에서 생긴 좋고 싫음의 두 극단을 지양해 지혜의 발현과 자비의 실천을 꾀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 수행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수행의 향기가 삶에서 배어나오게 하려면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 깨달음을 생활속에 늘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연수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적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개강 : 2005년 11월 3일 목요일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사찰홈페이지 제작
법문, 불경 녹음
테이프, CD 제작
디지털음원편집
성금모금 ARS

(주)서광아이앤티
본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43-1 원광빌딩
Tel : 02-711-2922 Fax : 02-711-2924
녹음실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6-8 A동 103호
Tel : 02-336-7555 Fax : 02-336-2443
24시간 상담전화 : 0505-336-7555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⑰ - 안성 청원사 불식선원

알음알이 내려놓고 선문에 들라

"이뭣꼬!"
"네? 여보세요. 불식선원 맞죠?"
"이뭣꼬!"
"…?"

취재 일정 확인 차, 걸었던 휴대폰에서 들려온 외마디였다. '생뚱맞은' 대답에 순간 당황했다. 걸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곱씹었다. "'여보세요' 하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 '이뭣꼬'라. 이거 뭐지?"

선원에 들어서자마자, 선원장 본적 스님에게 곧장 물었다.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불식(不識)!"

 # 사랑방이 따로 없다

11월 5일 오후 7시. 토요철야정진에 앞서 안성 청원사 불식선원의 선풍을 묻자, 본적 스님은 "그런 거 없다!"며 미소 짓기만 했다. 잠시 후 다시 물으니, 내놓는 대답은 맥을 풀리게 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거지. 그 뿐이야."

지난해 이곳에서 동안거를 났다는 정돌뫼씨(57 · 서울 상계5동)에게 질문했다.

"불식선원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사랑방 같아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스님이 달여주시는 차 한 잔과 함께 법문을 듣죠. 불자들이 부담 없이 자기 공부 경계를 드러내면, 스님은 근기에 맞게 차근차근 길을 일러주시죠. 동네 아저씨처럼 말이에요."

지대방에서 본적 스님과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차담을 나눴다. 수행상담은 기본. 구수한 옛날 얘기, 요절복통하게 하는 재담까지, 여느 집 사랑방에서 오갈 법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식선원장 본적 스님

 # 정진과 문답은 치열하게

차담이 끝나자 20여 불자들은 곧장 가부좌를 틀었다. 치열함이 선방을 가득 메웠다. '50분 참선-10분 포행',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정진은 빈틈없이 진행됐다.

자정을 넘으면서 본적 스님의 간화선 참구법에 대한 법문이 이어졌다.

"팔만사천법문은 말과 생각 이전의 자리로 이끄는 안내서입니다. 병을 고치는 처방전인 거죠. 하지만 처방전은 병을 본질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약을 직접 먹어야겠죠. 화두가 바로 약입니다. 그럼 화두란 무엇일까요?"

침묵이 흘렀다.

"화두는 토끼 뿔에 털난 소식입니다. 화두는 말과 생각의 길을 끊어지게 합니다. 객 밖의 도리를 참구하는 격외구(格外句)지요. 일어나는 의심 그대로 참구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문답도 계속 됐다. 3개월 째 선원에서 수행중인 이성원씨(31)가 먼저 물었다.


20여 불자들이 11월5일 안성 청원사 불식선원에서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공부경계 드러내면 비유와 문답으로 길 안내
'금강경' 독경 · 강의 병행해 신심 강조

"돌솥에 약수를 정성스레 담은 것과 세 발 달린 금붕어가 하늘로 솟구치는 이치와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건가요?"

"억!"

이어 한 거사가 화두 간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냈다. "화두를 받으면 바꾸지 말라 하는데요.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 놈이 누구인가'와 '염불하는 이 놈이 누구인가'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모두 생각과 말 이전의 자리를 가리키는 미끼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 같은데요."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주신 송장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가 긴 화두고, '염불하는 이 놈이 누군인가'가 짧은 공안인 거죠. 만약 이를 더 줄이면 '이뭣꼬'가 되는 겁니다. 간화선은 '이~'하는 놈이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거예요. 불조의 말씀을 목전(目前)에 놓고 바로 보는 것이 참선공부임을 잊지 마세요."

 # 참선서 삶 성찰하는 힘 얻어

불자들은 참선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왕초보 불자'라는 성윤선(38 · 오산시 오산동)씨가 말문을 열었다.

"고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돈도 떼였지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슴을 치면 살았죠, 그러다 시작한 참선은 가슴 구석구석에 맺힌 원한과 미움들을 구멍 구멍에서 터져 나오게 했지요. 여유있게 내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늘 찡그렸던 얼굴도 조금했던 마음도, 환하고 너그럽게 바꿔놓았죠."

'이뭣꼬 보살'로 불리는 박경임씨(56 · 서울 방이동)도 수행담을 풀어냈다.

"시골집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 두 마리를 보면서 내 모습을 봤죠. 집에서 직장, 직장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제 생활에서 무미건조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심까지 생겼죠. '과연 생사란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심은 화두참구의 밑천이 됐어요. 아는 체 하는 알음알이도 단번에 내려놓고,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 힘을 참선수행에서 얻게 된 거죠."

 # '입 열면 모든것 거짓' 알아야

본적 스님은 1997년 불식선원의 문을 연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행자에게 가장 큰 맹통(盲通)은 아는 체 하는 '알음알이(識心)'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알음알이를 두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선원 문지방을 넘으라고 늘 말합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참선수행의 눈이 열리기에 그렇죠. 그래서 선원의 이름도 불식(不識)이라 지은 겁니다."

때문에 불식선원에서는 자율정진과 차담을 통한 담선(談禪) 시간을 강조한다. 매일 새벽 4시~6시 참선정진, 10시 30분~11시 30분 <금강경> 독송, 오후 2시~4시 참선정진 등으로 나눠 자율적으로 수행을 한다.

선원에서는 특히 초심자의 근기에 맞게 지대방에서 수행상담을 한다. 매일 오후 2~4시 지대방에서 본적 스님은 차담을 통해 참선 초보자들의 근기에 따라 절, 염불 등의 수행법을 권유한다. 화두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참구 힘을 길러 주기 위해서다.

또 참선정진과 더불어 <원각경><금강경> 등의 경전 강의도 사시불공 전에 <금강경> 1품씩을 반드시 독송하게 해, 불자들의 신심을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 (031)655-7121

글 · 사진/안성=김철우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3〉 누더기 옷과 이불

삼의일발(三衣一鉢). 승가의 무소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삼의는 세 벌이 아니라 속옷과 겉옷 그리고 가사를 포함해 한 세트를 말한다. 따라서 말만 삼의(三衣)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벌인 셈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라고 하겠다. 이 말은 수행자의 검소청빈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 옷이란 것도 시체를 쌌던 것이나 버려진 천을 주워서 기워 입었다는 분소의(糞掃衣)였다. 선종시대에 오면 납의(衲衣)로 표현이 바뀐다. '납(衲)'도 기웠다는 뜻이다. 납의도 세상사람들이 쓸모가 없어 내다버린 여러 가지 낡은 천을 누덕누덕 기워 만든 옷을 말한다. 그래서 누더기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런 구담(瞿曇:고타마) 선사의 '훈령'보다도 한 술 더 뜬 경우가 있었다. 형악곡천(衡嶽谷天) 선사의 별명은 '지의도자(紙衣道者)'이다. '종이옷을 입은 도인'이란 뜻이다. 종이옷은 헝겊 옷보다도 더 형편없는 옷으로, 그 종이옷으로 몸을 가렸다는 의미이다.



분소의는 무소유 상징…종이옷 입은 경우도
단벌 승복 세탁할 땐 바깥 출입 못하고 좌선

그는 분양선소(汾陽善昭 947~1024) 선사의 법을 이은 후 형산에 은거하면서 세수도 하지 않고 때묻은 얼굴로 지내면서 반쯤은 실성한 차림으로 종이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이런 게송을 흥얼거리고 다녔다.

"미친 승려가 꿰맨 곳 없는 종이적삼을 입고서 한 철을 넘기자는 것일 뿐.
누에치는 고생에 애쓰는 단월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그런 너절한 형색으로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시줏물 받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인줄 알았기 때문이다. 옷 잘 입었다고 도력까지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동산(洞山)에서 오는 날 허름한 그의 모습을 보고서 탐장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종이옷 속의 일인가?"

"옷 하나 겨우 몸에 걸치면 만사가 모두 여여 합니다."

곡천 선사 못지않은 서산 량(西山 亮)선사는 종이이불을 덮고 살았다. 노숙자의 신문지를 연상하면 될 것 같다. 천성이 고고하고 검소하여 종이이불 한 장으로 지냈는데 멀쩡한 곳은 찾을 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주우나 더우나 다른 이불로 바꾼 적도 없었다. 보다 못한 시자가 선사 몰래 명주이불로 바꾸어 놓았다. 선사는 깜짝 놀라면서 그를 불러 꾸짖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평생 동안 단 한번도 비단옷을 입은 적이 없다. 더구나 나와 30년을 함께 지내온 이 종이이불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일본의 다쿠앙(澤庵 1573~1645)선사 역시 옷이라곤 몸에 걸치고 있는 승복 한 벌이 전부였다. 하루는 도반과 신도집을 방문하여 축원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시간이 되어 도반이 도착했으나 방문을 닫은 채로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먼저 가라"고 했다. 그 도반은 투덜거리면서 혼자 떠났다.

사실은 신도집 방문을 위해 전날 저녁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세탁하였다. 그런데 마침 날씨가 나빠 옷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속옷차림으로 방에서 좌선을 하며 옷 마르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같이 가고 싶어도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었고 방문마저 열 수 없었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끔 젊은 직장인 청신녀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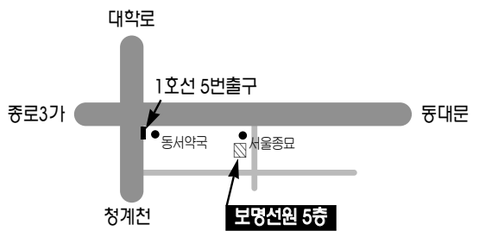
"스님들은 참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고민은 없을 것 아니예요."

그건 그렇다. 요즈음은 분소의나 납의 수준은 아니지만 모두 회색옷이니 그냥 손에 잡히는대로 입으면 된다.

하긴 뉴스나 일기예보 하는 여성방송인들을 보면 매일 옷을 바꿔 입고 화면에 등장한다. 저 정도쯤 되면 "오늘은 어떤 옷으로 나가지?"하는 것도 화두일 것 같다. 나중에 들으니 그것도 후원자와 골라주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했다. 괜한 기우(杞憂)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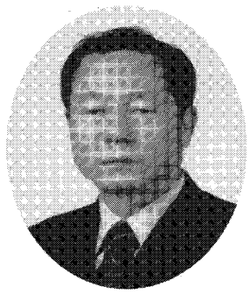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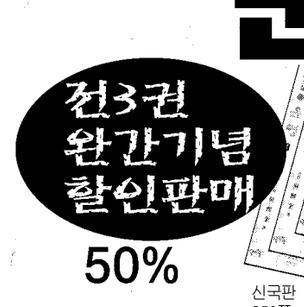
갑자기 싸늘해진 어느날 아침, 벽장문을 열어보니 승복이 켜켜로 쌓여있다.

"가만, 가을 옷을 작년에 어디에 두었더라~"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
무료 공개 강좌
하루 1시간만 투자 하면 삶의 대한 자신감과 용기도 향상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자비와 지혜가 생성되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과 행복 입니다.
불교의 수행법 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기 간 : 2005.11월 (한달간 무료)
▣장 소 : 보명선원 (종로5가 5번출구 1분거리)
▣전 화 : 02)2273-8484
핸드폰 011-785-8813
▣시 간 : 저녁 7:00 ~ 9:00
▣준비물 : 고무줄바지 (츄리닝)
| 매주 토요일 오후 4~6시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 유식론강의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16강 제2장, 수보리 일어나 가르침을 청하다

몇 회의 해설로, 야부의 격외의 선, 촌철살인이 우리가 읽는 <금강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전광석화 같은 선기를 제 무딘 붓이 한사코 붙들어 보려 했는데, 그 번개의 꼬리를 잡기, 글쎄, 턱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직 노래가 더 있으나, 그만 접고 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탁발을 마치고 거처로 돌아온 붓다에게, 장로 "수보리(善現)가 일어나(起) 질문을 던지는(請)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막이 끝나고 연극은 이제 본격 본론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보리는 대중들을 대표하여 질문 중의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진리를 향해 발심(發心)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길을 나서야 합니까." 붓다는 그 질문을 가상히 여기시고, "내 이제 대답해 주겠으니, 새겨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제 2장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원문] 時長老須菩提, 在大衆中, 卽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希有世尊,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善哉, 須菩提. 如汝所說.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汝今諦請. 當爲汝說. 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世尊, 願樂欲聞.

[언해] 시(時)에 장로 수보리가 대중(大衆)에 있어, 바로 좌(座)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 벗고, 오른 무릎 땅에 대어, 합장공경하사와, 부처께 사뢰되, "드무신 세존하! 여래가 제(諸) 보살을 이대(*잘) 호지(護持)하야 념(念)하시며, 제 보살을 이대 부촉(咐囑)하시나니. 세존하!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ㅅ마음 발하니, 반드시 어찌 주(住)하며, 어찌 그 마음을 항복(降伏)시키리이꼬?"

부처께서 일르시되, "좋다, 좋다, 수보리야! 네 말같이, 여래가 제 보살을 이대 호념(護念)하며, 제 보살을 이대 부촉하나니. 네 이제 자세히 들어라. 반드시 너 위하여 일르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ㅅ심을 발하니, 반드시 이같이 주(住)하며, 이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라."

"유연(唯然), 세존하! 듣잡고저 원요(願樂)하삽노이다."

[번역] 이때 수보리 어른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가사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 공경하면서, 붓다께 사뢰었다. "희귀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如來)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며, 또한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여기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더 없이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그 마음을 제어해야 하겠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훌륭하다. 네가 말한 대로, 여래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며, 또한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내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더 없이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반드시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제어해야 하느니라."

"그리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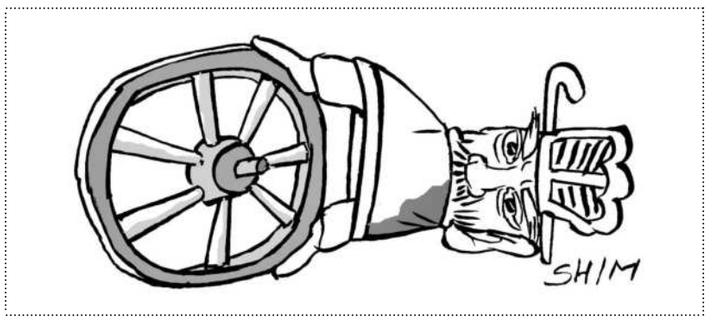
수보리와 사리불

장로 수보리(수부티)는 붓다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강의 처음에 기원정사(祇樹給孤獨園)의 건립을 둘러싼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보리는 바로 그 사람, 황금 동전을 깔아 기원정사를 지은 아나타핀디카, 즉 수닷타 장자의 조카입니다. 정사를 완공한 기념으로 붓다가 행한 강연에 감화를 받아 출가했습니다. 다른 유파의 인물들에게 핍박과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합니다.

붓다의 제자 가운데, 소승에서의 중심인물은 단연 사리불(사리푸트라)이었습니다. 그는 붓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일찍이 교리를 정비하고 교단을 체계화해 놓았습니다. 대승에 오면 그러나, 이 사리불은 이해력이 좀 뒤떨어진, 대승의 큰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반야심경> 사리불, <금강경> 수보리



<반야심경>은 붓다가 못난(?) 그를 "깨우치기 위해," 가르침을 베푸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 등장하는 수보리의 위상은 좀 다릅니다.

그는 붓다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붓다와 대등하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어깨 근처에는 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승 반야부 경전들이, 그를 누구보다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과 공(空)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혜능 또한 수보리를, '우리(唐)말로, 해공(解空), 즉 공(空)의 이해에 뛰어난 사람으로 의역한다' 고 적어 두었습니다.

별 도움 안 되는(?) 제자들

<논어>에서 공자는 첫째가는 제자 안연(顔淵)을 두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라고 평했습니다. 의아해 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도통 질문을 하거나 토를 다는 법이 없다. 그는 나를 깨우쳐 주는 바가 없다. 그러나, 물러나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내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에 대한 공자의 찬탄과 동지의식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연은 나이 서른이 채 못 되어서 공자보다 일찍 죽었고, 공자는 슬픔에 못 이겨, "하늘이 나를 버렸다(天喪我)"고 울부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체신을 들먹이자, "그가 아니면, 대체 누구를 위해서 울겠느냐"고 뿌리쳤습니다. 유교가 근엄한 도학자의 얼굴로 굳어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친 김에 에피소드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공자를 보고, 안연의 아버지가 장례비용에 쓰자고, 공자의 낡은 수레를 팔 것을 제안합니다. 겹관을 살 비용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공자의 반응이, 독자 여러분 생각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재물이 어디 중한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그쯤이야!" 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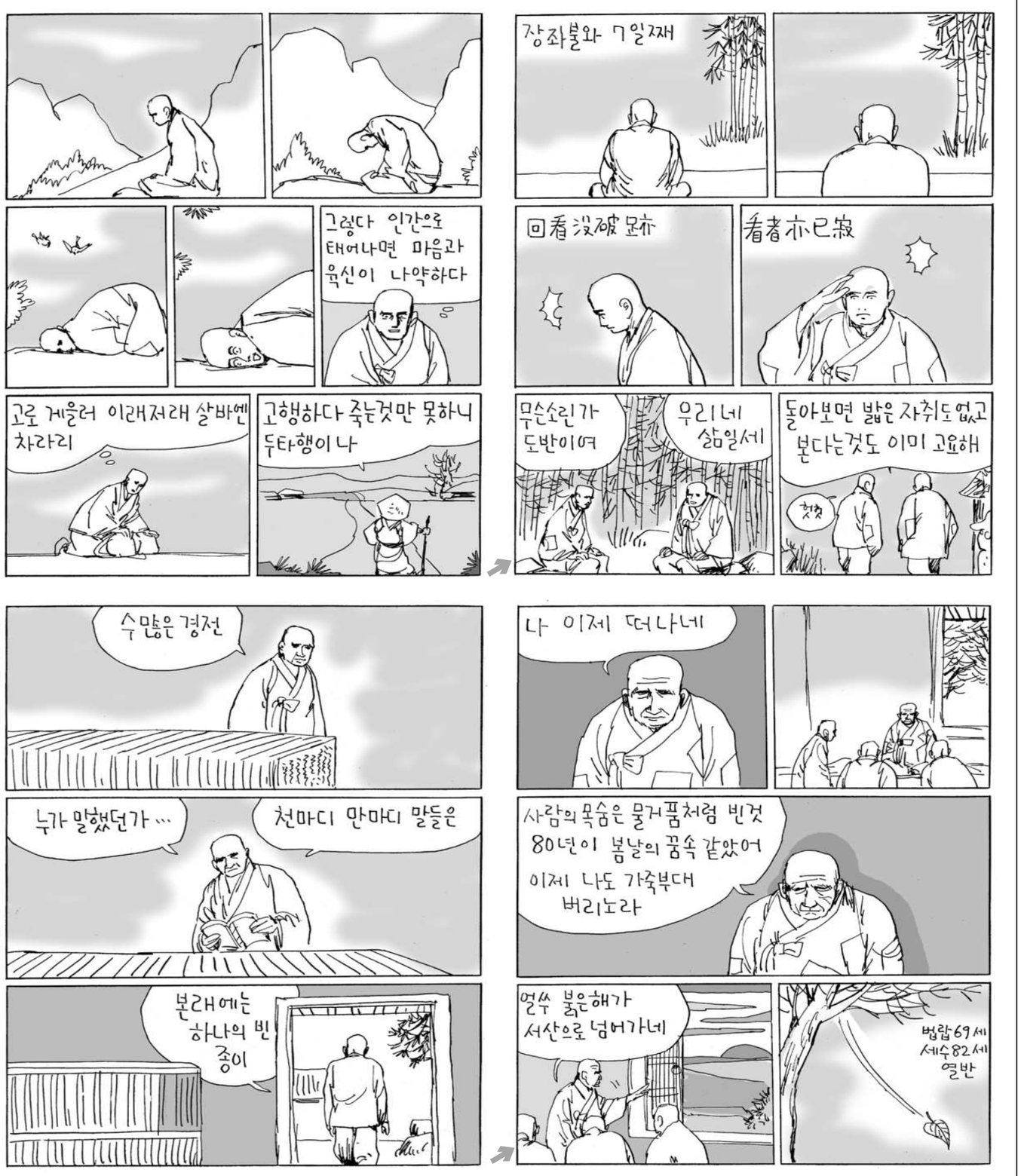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입니다. 공자는 토라져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겉관은 못해 주었다." 불편한 심기로 기어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한때 대부를 지낸 몸으로, 수레 없이 걸어다닐 수는 없다. 암, 없고말고…" 이 쩨쩨한 고집(?)에 후대의 학자들이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별별 해석과 체면 살리기가 다 횡행했으나, 저는 공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읽습니다. 그는 진정, 사람의 피와 살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거요, 다 <논어>에 실린,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각설, 붓다와 수부티의 관계가 이에 견줄 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뜻을 짐작하는 사람, 한 마디 말이면 백 마디를 가슴에 풀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동양 전통에서는 유교든 노장이든, 불교든 그래서, 이신전심(以心傳心), '말 이전에 오가는 교감' 을 가장 중시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92 원증 국사의 '봄날의 꿈'

조태호



원증 국사(圓證國師:1301~1382): 고려말 고승 보우. 원에가서 청공(淸珙)의 법을 이어받아 임제종의 법손이 됨. 우왕때 사나사를 중건하고 소설암에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점심(點心)에 얽힌 불교사상은?

문 점심시간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 후 먹는 음식입니다. 그 맛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매우 각별할 정도지요. 그런데 이 말이 불교용어라고 들었습니다. 점심과 불교.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식신)

답 1 :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낮에 먹는 식사를 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점심이란 낱말의 불교의 원래적 의미는 무척 다르지요. 점심의 본래의미는 선종에서 야식을 먹기 전에 먹는 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음식으로서 뱃속에 점을 찍을 만큼 적은 양의 식사를 가리키는 말' 인 것입니다. 그저 빈속에 간단하게 요기가 될 정도의 음식의 양으로 시장기를 모면한다는 것으로 보아 수행자들의 간식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낮에 먹는 식사로 의미가 변해 중식 오반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식도락가)

답 2 : 점심에 얽힌 유명한 공안하나를 소개해보지요. <금강경>의 대가였던 덕산 선사가 남종선을 격파하겠다는 뜻을 품고 예주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고프던 차에 떡 파는 노파를 만났지요. 노파가 덕산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보따리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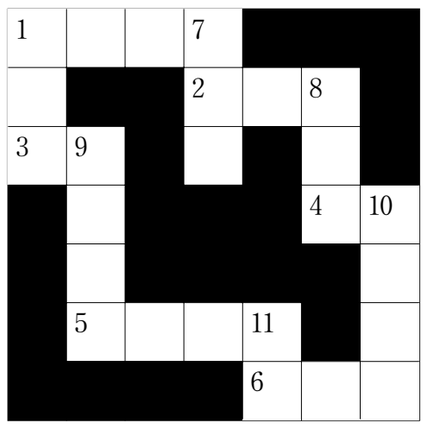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마는 '금강경' 에 관한 논서가 들어있네."

"스님 과거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다고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그 어느 마음(心)에 점(點)을 찍으시겠습니까? 제대로 대답하면 점심공양을 올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가십시오." 떡 파는 노파의 말에 말문이 막힌 덕산 선사는 그 길로 숭산선사를 찾아가 선을 닦아 활연대오하기에 이릅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논한 점심의 선문답은 일상의 희화화를 통한 깨침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명장면이기도 하지요. (선지식)

답 3 :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올바른 수행을 위해 소식을 권장해왔습니다. 넉넉한 음식섭취가 수행에 많은 장애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시주자들의 시은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뱃속에 점을 찍을 만큼만 먹으란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절제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수행자들이 생사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의일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점심의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재가불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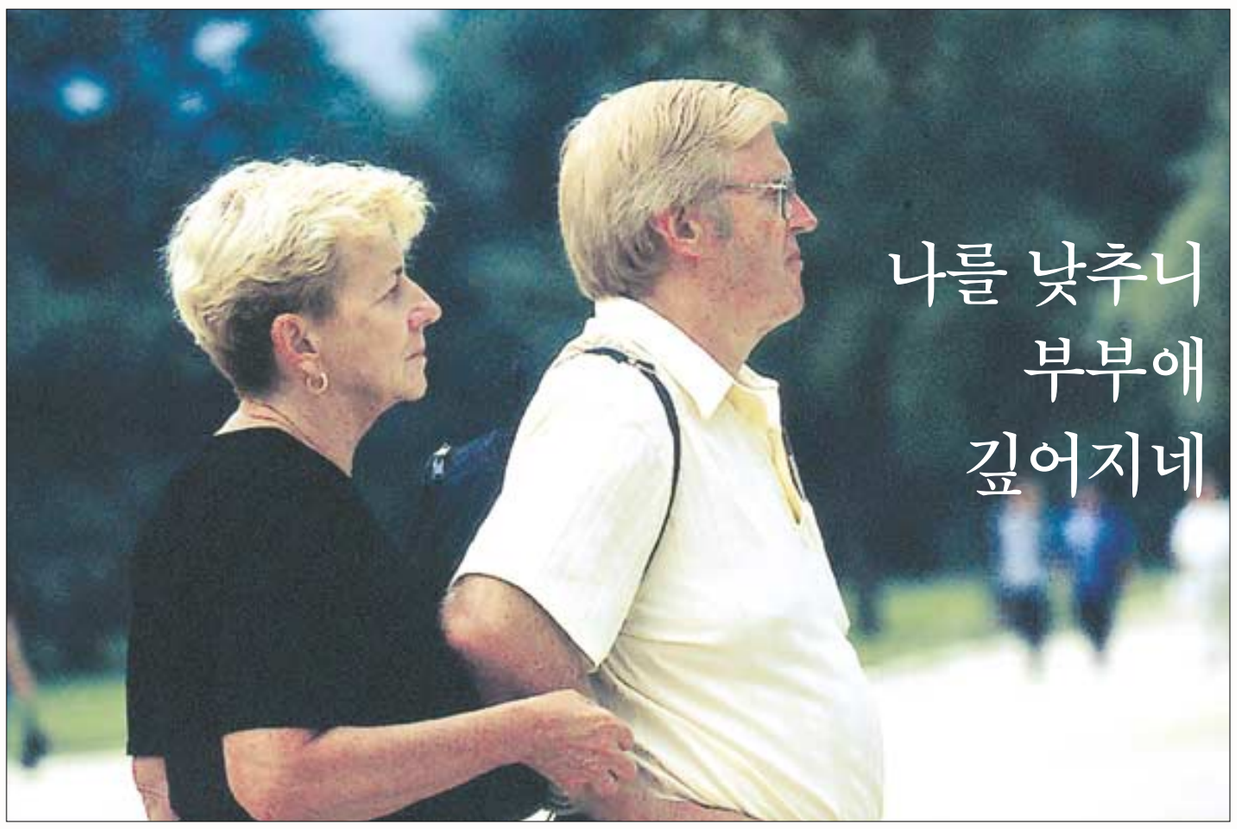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조선 후기의 선사로 우리나라 다도를 정립한 스님 2. 용왕의 뇌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보주(寶珠) 3. 공양미 삼 백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진 여인 4. 선사의 언행록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 공부 점검에 사용됨 5. 잉어과의 열대어로 타이거 바브라고도 함 6. 이문식이 비리형사로 등장하는 영화 '○○○'

세로 1. 처음으로 불도를 깨닫고자 발원하는 마음 7. 지행(止行), 외부의 사물에 끌려 다니는 마음의 산란을 막는 수행 8. 영화 · 연극 등을 포함한 광의(廣義)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중심인물 9. 말을 거침없이 잘하는 모양을 비유한 말 10.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도를 즐김 11. 더없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의 티베트 말.



결혼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20년 이상을 다르게 살아온 남녀의 결합이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의 다름에 적응하며 양보하고 적정 타협점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선배 부부들은 조언한다.



부부로 산다는 것
최정미 외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8천8백원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뭘해 당신이 이 세상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해도 좋으니까 숨소리만 내면서 그냥 살아만 있어줘"

최근 모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한 대사다. 바람핀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는 아내를 위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헌신적인 간호를 한다는 내용이다. 결혼하는 커플 수만큼이나 이혼하는 커플이 늘어난다는 요즘, 부부애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해 시청률이 제법 높다.

이런 점에서 최근 출간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도 부부로써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 부부인지를 감동 있게 그려내 이 드라마 만큼이나 주목을 끌고 있다.



절실했던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 후 일상과 현실에 파묻히면서 서로에게 상처와 미움을 남기고, 끝내는 서로를 증오하며 남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꿈꿔왔던 행복보단 가슴 아픈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 부부들에게 이 책에 담긴 50인 부부의 감동 실화는 그들이 처음에 꿈꿔왔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전해준다.

결혼 후 일상과 현실에 파묻혀

서로에게 상처와 미움만 주며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전하는

50인의 감동 실화

책 속 이야기 하나

고령의 노인이 의사에게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했다. 의사가 노인에게 건강하게 산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5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 결혼 초에 아내와 이런 약속을 했지요. '내가 화나면 당신이 부엌으로 비켜주고, 당신이 화가나면 내가 산책을 가겠소'라는 거였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거지요."

책 속 이야기 둘

어느날 남편은 자신의 양복을 사겠다고 아내와 백화점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의 샌들끈이 끊어져 버렸다. 그 샌들은 아내가 연애할 때부터 신던 것이다. 아내는 샌들을 질질 끌고 백화점을 누볐지만, 남편은 오로지 자신이 산 새 양복만 보며 흐뭇해 했다.

오히려 남편은 이런 아내가 궁상맞다는 듯 집근처 가게에서 만원짜리 싸구려 신발을 아내에게 안긴채 샌들을 집어 던졌다. 하지만 다음날 현관에는 아내의 끊어진 샌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아내는 웃으며 "내 발이 평발이라 새 신발은 발이 아퍼"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남편은 아내의 발을 잡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유럽여행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무심히 내뱉은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은 남편이 15년간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영국으로 가족만의 추억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결혼 5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을 멀리 보내며 처음엔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지만 두 아이라는 고마운 선물과 부부라는 좋은 인연을 맺어준 것에 감사함을 깨닫는 아내의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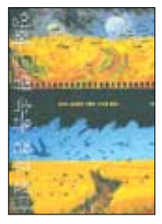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 책이 단지 부부들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감동은 훨씬 반감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에피소드 말미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부부들이 꼭 지키고 실천 해야할 50가지 일들이 요약돼 있다. 예를들면 ▲상대방에게 먼저 감사하고 미안해 할 것 ▲다른 부부들의 자랑이나 잘난척에 당당히 맞설 것 ▲그래도 한번만 더 참아볼 것 ▲항상 서로를 발전되게 가꿀 것 ▲화목해 지는 신기술을 끊임없이 도입할 것 등의 교훈적인 내용들이 제시돼 있다.

지은이들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선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하고 지속적인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적어도 부부끼리는 자신을 먼저 낮추는 최소한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한다.

현재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이나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하려는 예비부부들이 이 책을 접한다면 아마 혼자사는 외로운 자유보다, 둘이 함께 토닥거리는 평화의 냄새를 진하게 말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아로새길 것이다. '결혼했다 방심말고 오는 연적(戀敵) 막아내자'는 명언을.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영화, 그림 속을 걷고 싶다
한창호 지음 | 돌베개 펴냄 | 1만8000원

영화평론가 故 정성일씨의 말대로 정말 영화는 '도둑질의 예술'이다. 20세기 이후 가장 지대한 영향력으로 위대한 예술임에 분명한 영화는, 그만큼 이전의 예술 형식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이 과거 '씨네21' 에 연재된 글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글쓰기의 제한점도 있겠지만, 역시나 기본적으로 두 매체를 비교하는 데에 있어 주요 기준은 시각적인 유사성의 상호 연관관계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읽는 독자들에겐 그 유사성으로 인해 쉽게 읽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일 수도 있겠으며 한편으로 너무 비약적으로 유사성을 짜맞춘 듯한 인상은 연재용 글이 가지는 분석의 분명한 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영화와 미술(구체적으로는 회화(Painting)이다)의 관계를 명료하게 분석함으로써 왜 영화가 도둑질의 예술일 수 밖에 없는지를 증명한다. 또한 영화와 미술이 특유의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있어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해석에 대해 미술작품은 영화를 이해하는데에 있어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한다.

스크린, 그림을 훔치다

이 책에 소개된 러시아 감독 알렉산더 소쿠로프의 다큐멘터리 '여행 엘레지' 에는 다음 같은 감독의 고백이 나온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픈 욕망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만년의 걸작 '꿈' 중 빈센트 반 고흐를 다룬 에피소드 '까마귀' 에서 아예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을 표현했다.

지은이의 표현을 빌리면, "상대적으로 젊은 소쿠로프가 그림 앞에서 주저했다면 노인 구로사와는 천진난만하게 그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림 속에 들어간 주인공은 생전의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고 그가 그린 그림 속의 풍경을 앞에 두고 걷는다. 이 장면은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 이 다시 영화로 재현되는 순간이자 동시에 반 고흐의 죽음에 대한 시적 표현이기도 하다."

세상의 이미지를 스크린에 옮기는 영화감독들은 활동사진의 역동성을 사랑하면서도 덧없이 스크린에 비췄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대신 화가가 캔버스에 남긴 그림의 불멸성을 질투한 것 같다.

미술가의 일대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가 아닌 이상, 혹은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미술 작품이 도드라지게 인용, 언급되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어떤 미술 작품을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만큼 별개의 것으로 생각될 만큼 다른 매체로의 표현이자 감상의 태도와 감상 공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미묘한 서로간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상정함으로써 두 예술이 가지고 있는 미적 성질들이 더욱더 새롭게 발견,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정복교(중앙대 연극영화과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12. 5
월 · 화 반, 수 · 목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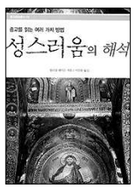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둥 : 원목 아메존 사용가능
♦원두막 6000×3000×3200[mm] 8000×3000×3200[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620×350[mm]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1030×350[mm]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한 플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허 보관 조립이 간단하며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www.banggto.com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진룡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변형국판 240페이지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현재 생명나눔 실천본부 부이사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깨달음의 노래) 출판(근간)
현대북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새로나온 책



■ **<한철학 2-통합과 통일>**(최동환 지음, 지혜의나무, 2만원)=소를 죽여 그 고기를 다듬어 만든 햄버거가 예쁘게 포장되어 팔리고 소비된다.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식탁 한편에서는 전쟁터의 참상을 전하는 텔레비전 뉴스가 전해진다. 이때의 햄버거 고기와 전쟁터의 인간은 이미 '관념'에 불과하다. 지은이는 이처럼 대상이 관념으로 간주되는 시대가 바로 '마음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한철학 2-통합과 통일>에서는 '한철학'을 기본 사상으로 평화적 통합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철학은 우리 고유의 말인 '온'을 중심으로 고래(古來)부터 전해 내려온 한민족의 철학적 사유를 일컫는 말로, 지은이는 한철학의 통합과 통일의 원리를 통해 사물의 시대와 마음의 시대, 그리고 이들이 통합되고 통일되는 시대를 설명한다.



■ **<성스러움의 해석>**(윌리엄 페이든 지음, 이민용 옮김, 청년사, 1만4천원)='종교'는 학문의 영역이 될 수 있을까?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종교를 연구하고 있는 윌리엄 페이든 교수(미국 버몬트대 종교학과)의 저서 <성스러움의 해석>은 종교를 해석하는 몇 가지 주요한 관점을 소개한다. 유럽 중심의 종교 해석에서 벗어나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사회학 · 심층심리학적인 틀에서 심층 분석한다.



■ **<천의 바람이 되어>**(아라이 만 지음, 이현구 옮김, 새터, 8천5백원)="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그곳에 잠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천의 바람이, 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9.11 테러 1주기 기념식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 어린 소녀가 암송해 많은 사람을 눈물짓게 한 시 '천 개의 바람이 되어(A Thousand Winds)'. 원작자 미상의 이 시는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대지를 떠도는 바람처럼 이제는 무한 자유 속에 유영한다는 내용이다. <천의 바람이 되어>는 원작 시를 사진과 악보, 동화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준다.



■ **<변산바다 쭈꾸미 통신>**(박형진 지음, 소나무, 8천8백원)=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 사는 농사꾼 시인 박형진. 그가 10년 전 출간한 <호박국에 밥 말아 먹고 바다에 나가 별을 헤던>을 고치고 다듬어 다시 펴냈다. 봄이면 햇보리밥에 햇감자 넣은 된장국을, 여름이면 호박국에 밥을 말고 가을이면 고구마를 찌고 겨울이면 쭈꾸미 무침을 먹는 시골 밥상이 그대로 펼쳐진다. '시뿌장스러운(마음이 차지 않아서 시들한)' '굴풋한(배가 고픈 듯한)' 등 살아 숨쉬는 사투리를 읽는 재미도 크다.

초심자에서 전문가까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쉽게 따라 배우는 수행서 세권 잇따라 출간



무이 스님의 참선경어 무이 스님 지음 | 장경각 | 8천9백원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수행법 혜명 스님 지음 | 운주사 | 1만2천원
마음으로 숨쉬는 붓다 붓다다사 지음 | 김열권 · 김득희 옮김 | 한길 | 1만원

깨달음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깨달음 그 자체라기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자 '강을 건넌 후 버려야 하는 뗏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보 수행자에게 이 '손가락'과 '뗏목'은 깨달음의 길에 오르는 든든한 발판이자 디딤돌이 되어 준다. 최근 선보인 세권의 수행서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수행에 관심 있는 초심자들도 쉽게 읽고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책이다.

도서출판 장경각이 펴낸 '선림고경총서' 제5권 <참선경어>를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다듬은 <무이 스님의 참선경어>를 먼저 살펴보자. <참선경어>는 박산무이 스님(博山無異, 1575~1630)이 자신이 직접 깨달은 바를 수행자들에게 전하는 책이다.

무이 스님은 28살 때부터 박산의 능인사에 머물며 황폐해진 도량을 일구고 800여 명의 선지식을 키워냈다. 또한 스님은 <참선경어>를 비롯해 <염고송고> <정토시> <잉록> 등 20여 권을 책을 남기기도 했다. 그 중 <참선경어>는 '처음 발심한 납자'와 '의정(疑情)을 일으키지 못하는 납자' '의정을 일으킨 납자' '공안을 참구하는 납자' 등 수행 단계와 수행자의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제시한다.

특히 '고요한 경계를 조심하라' '깨닫지 못하고서 남을 가르치지 말라' '방일과 무애를 혼돈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비롯해 '세속사를 무애행으로 착각하는 장애' '경계에 빠져 나아갈 곳을 모르는 장애' '담담한 경계를 궁극적인 깨달음이라 여기는 장애' 등 120여 가지 경우를 예로 들며 바른 깨달음의 길을 일러준다.

<참선경어>가 간결한 문체로 깨달음의 요점을 짚어낸 수작(秀作)이라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수행법>은 고령 원광사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참선을 지도하고 있는 혜명 스님의 '실전경험'이 바탕이 된 자세한 수행 지침서다. 혜명 스님은 책에서 참선 과정에서 부딪치는 몸과 마음의 미세한 변화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참선을 한다고 하면서도 화두 없이 고요히 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단전이나 공(空)에 의지하므로 마음은 맑으나 공속에 들어서 위하는 마음이 고요히 쉬지 못하므로 평생 허송세월만 한다. 그러나 맹착정체(정신을 강하게 일념으로 차림)하여 공한 자리에 정신을 가다듬으면 올바른 경계로 들어가게 된다."

수행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자신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풀도록 돕는 한편,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일개정절, 이개정절, 삼개정정을 거쳐 여래선과 조사선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참선 수행의 과정을 세밀히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마음으로 숨쉬는 붓다>는 태국 수완목 선원에서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는 아짠 붓다다사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책이다. 책에서는 부처님 수행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아나빠나사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챙기는 호흡수행법이다. 붓다다사 스님은 외국인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호흡수행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붓다다사 스님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한 호흡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배금자 지음
더북컴퍼니
9천원

인권변호사 배금자의 '깨어있는 삶'

우리나라 최초의 흡연피해자 공동소송,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소송을 이끌어 온 배금자 변호사.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경력과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그러나 그는 집안 사정상 대학에 갈 형편이 못돼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고, 용단을 내려 대학을 가고 난 후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고시공부를 시작할 수 없었다. 한창 '잘나가던' 변호사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도 그에겐 도전과 시련이 있었다.

배 변호사는 이 '맵고도 아름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고백한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읽고 참선을 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했으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관법(觀法)으로 마음을 다스렸다.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감정싸움까지 치러야 하는 변호사 생활에서 평상심(平常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마음공부'였던 것이다.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수행자와 같은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나'라는 관념을 버리고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경지,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을 위해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저 역시 남과 내가 둘이 아닌 경지를 향해 정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일상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를 묻는 배 변호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권한다.

인터뷰

팔리어 사전 증보판 낸 전재성 박사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팔리어를 익힐 수 있는 문법-어휘 사전 발간은 우리 역경사상 손에 꼽힐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난해한 한문 불교용어를 우리의 일상 용어로 풀이했다는 데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사진)이 1994년 출간한 <빠알리어 사진>의 개정증보판 <빠알리-한글 사전>을 펴냈다. 기존에 상 · 하권으로 나눠졌던 것을 한 권으로 합치고, 활자 크기와 종이 두께를 줄여 보기 편한 포켓용으로 만든 것이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내용은 초판에 비해 더욱 알차졌다는 것이 전 회장의 설명이다.

"팔리어 독해 길잡이 되길"

"지금까지 가장 많은 어휘수를 수록한 것으로 알려진 <빠알리-영어사전>(옥스포트 빠알리성전협회)이 1만7,920여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 <빠알리-한글 사전>은 2만3,540개의 표제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합어 2만859개와 활용어 9천여 개를 합치면 총 5만3천여 개에 이르는 어휘를 수록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팔리어 사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전은 단순한 어휘 뿐 아니라 팔리어 문법과 문헌 등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1장 '기초편'에서는 팔리어의 표기와 타이 · 미얀마 · 인도 등 각 나라의 팔리어 철자, 팔리 문헌에 관한 기초지식을, 2장 '어휘편'에서는 팔리어 경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어휘를 수록했다. 3장 '문법편'은 기본문법과 불규칙 명사 · 형용사 변화를, 4장 '어원편'에서는 팔리어 어근 · 어미 활용사전과 범어어근사전을 수록해 팔리어의 일반 격변화원리를 보충했다.

전 회장은 "앞으로 세계적인 팔리어 번역 성과와 주석서의 단어풀이 등을 포함하는 보다 완전한 팔리-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빠알리-한글 사전
전재성 엮음
한국빠알리성전협회
8만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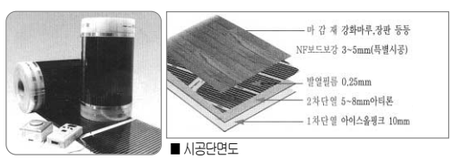
오랫동안 절판되었던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
새롭게 증보하여 드디어출간!!
영혼의 존재는 무엇일까?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천체와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는 것일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 줄 것이며 인생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우주론적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저자 : 오형근(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 가격 : 20,000원 ● 출판사 : 도서출판 대승
● 구입문의 : 02)2264-7120
※ 신편 유식학 입문 출간
기존의 <유식학 입문>을 대폭 수정해서 새롭게 개편했으며, 기존의 책에 없던 현대인을 위한 / 수행법이 추가되었다.
대승불교연구원 / 도서출판 대승

탈종공고
● 사찰명 : 성인사
● 주 지 : 혜명 (양현섭)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834-17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그들의 작품에는 '불교'가 있다

윤범모 교수 '우리 시대를 이끈 미술가 30인' 출판기념展

나혜석 박생광 이만익 등…11월 20일까지 서울 옥션센터



나혜석 作 '해인사 홍류동'.

'우리 시대를 이끈 미술가 30인'전이 서울 평창동 옥션센터(02-720-1020) 1층 전시실에서 11월 20일까지 열린다. 최근 출간된 <우리 시대를 이끈 미술가 30인>(현암사 刊)의 출판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지은이 윤범모 교수(미술평론가 · 경원대 회화과)가 기획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를 이끈 미술가 30인은 누구일까. 고인이 된 나혜석 이응로 박생광 송영옥 오윤 손상기 화백을 비롯해 전혁림 이만익 이종상 박대성 이왈종 오용길 이화자 권순철 신학철 임옥상 홍성담 김봉준 황재형 최병수 최동열 이철수 오원배 강경구 김호석 김선두 서용 유영교 강대철 한진섭 등이다.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가들이다.

가을의 끝자락, 우리 시대를 이끈 30인의 미술가들 가운데 불교적 소재를 주로 다뤘던 작가들의 작품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이왈종 作 '제주 생활의 중도'.

나혜석 신여성으로 유명한 나혜석. 근대기 최초의 여성 유화가이자 서울에서 유화개인전을 최초로 개최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수원포교당에서 개최됐던 개인전은 불자였던 나혜석의 불심을 드러낸다. 나혜석 작품의 특징은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정신, 짜임새 있는 구도와 숨결이 드러나는 질감 표현, 그리고 견고한 화면구성에 있다. 전시작은 목판에 유채로 그려진 '해인사 홍류동'이다.

이응로 '동백림 사건' 등에 연류돼 고국 땅을 밟을 수 없었던 고암 이응로 화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전의식을 버리지 않은 이 화백은 프랑스 파리에서 노후를 보내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미술의 접목을 다양하게 실험했다.

1985년 수묵담채로 그려진 '군상'은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격정적으로 춤 추는 모습을 담았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의 구별도 차별도 없는 인간 군상 그 자체이다. 그래서 순수하다. 분별심 없는 평등의 세상에서 추는 통일무



이응로 作 '군상'.



박생광 作 '옛'.



서용 作 '천년지념(千年之念)'.

는 이 화백이 후세에 제시한 20세기 마지막 화두이다.

박생광 우리나라 전통 채색화의 맥을 이은 화가라는 평가를 받는 박생광 화백. 고려불화에서 세련된 색채감을 발하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우리나라 채색화는 조선시대 감로탱 등에서만 명맥을 이을 뿐 쇠퇴의 길을 걸었다. 잊혀져 가던 채색화를 박 화백은 사찰의 단청을 그리듯 강렬한 원색으로 현대 화폭에 되살렸다.

거칠고 동적으로 부처와 보살, 무속인과 민초들을 그린 그의 작품은 가장 한국적인 미감을 드러낸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에는 무속인의 모습을 담은 '옛'을 선보인다.

이만익 '단순하고 절제된 선의 유려함'. 이만익 화백의 그림에 대한 평단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그의 그림은 전통적이면서 소박하고, 정다우면서도 진솔하다. 그가 펼치는 원색과 설화의 향연은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부터 관음보살, 미륵반가사유상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이면서 불교적인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

'유화취적도'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최초의 여인 '유화'의 처녀시절 모습을 묘사했다.

이왈종 '중도(中道)'는 이왈종 화백에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이 화백의 모든 것은 중도와 연결된다. 생활도 곧 중도요, 작품도 곧 중도이다. 불교의 인연설이나 중생관이 생활과 접목돼 그림으로 표현됐다.



이만익 作 '유화취적도'.

이번에 소개된 '제주 생활의 중도'는 제주도의 특징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을 따스한 눈길로 잡아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서정시를 읽듯 차분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서용 '돈황 벽화를 캔버스로 옮기는 작가'이자 '돈황벽화와 열렬히 사랑에 빠진 작가'. 서용 화백은 돈황 벽화의 '창조적 계승자'라고 불린다. 전통적인 불화의 양식은 존중하고 색감이나 구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현대적 감각을 부여했다. 돈황벽화가 지닌 원색의 화려함을 걷어낸 그는 중후한 색감으로 차분한 불국토를 그려낸다.

이번에 전시된 '천년지념(千年之念)'은 황토와 백토, 은박과 경명주사를 사용했다.

유영교 청계천이 뚫리던 날, 빨갛고 하얀 잠자리 조형물로 청계천을 장식했던 설치미술가 유영교. 돌 다루는 솜씨가 타고났다는 평을 받는 그의 손에서 평범한 돌은 생명을 얻는다. '샘'은 돌의 맛을 한껏 살려낸 그만의 석조각. 그의 작품은 내면세계의 울림을 다양한 돌의 질감과 움직임으로 표현해낸다는 평을 듣는다. 그의 맥박속에 선(禪)적 리듬이 흐르고 있기 때문일게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유영교 作 '샘'.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

아래와 같이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와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1)세미나일정 : 10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9:00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 가능)
(2)교육내용 : 전통적 최면과 에릭슨최면, NLP, 전생치료 -빙의치료의 원리와 방법 (이론강의와 실습위주)
(3)교 육 비 : 150만원
(4)장 소 : 본 연구원 강의장
(5)개인상담안내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설기문박사가 직접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6)상담내용 : 불안증 및 공포증, 우울증,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각종 알레르기 문제, 비만문제,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빙의 문제



● 설기문 박사 : 상담심리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전생가기 참 쉽다"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번지 안양건설타워 617호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엔시-뉴코아백화점 맞은편 시티은행 옆 17층건물)
전화 : 011-1762-4598
인터넷 주소창: 설기문 또는 최면술 www.nlpplus.com
daum 카페: 설기문트랜스넷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9>



노총각의 사랑 찾기

노총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그럭저럭 잘 나가던 벤처사업가였지만 사업이 망하자 엄청난 카드빚만 안은 아주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살아갈 의미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가 이제 믿을 데라고는 결혼 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뭔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하지만 빈털터리 남자에게 시집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꾀를 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인테리어가 제대로 갖추어진 거대한 저택과 명품 시계며 소지품, 하다못해 양복과 신발까지 최고급 브랜드로 빌렸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여자와의 첫 대면 시간동안 말입니다. 그 시간안에 여자의 마음을 빼앗으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과연 남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여자는 근사한 집안과 남자의 품위있는 옷차림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여자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려온 모든 물건들이 계약서에 써놓은 대여시간을 채워가자 하나씩 그의 몸에서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구두가, 다음에는 값비싼 라이터가, 시계가, 반지가…. 결국 그가 입고 있던 고급양복마저 그의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는 떠나가는 물건들을 붙잡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그 물건들은 모두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어서 시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남자에게는 팬티 한 장만 겨우 남게 되었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남자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하였습니다. 여자가 승낙할 리 있겠습니까? 여자의 실망스런 표정에 남자는 절규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빌린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 일이 내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갔지만 나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씩 떠나갈 때마다 진실한 나는 모습을 드러냈고 당신을 향한 사랑만이 온전하게 자리하게 되었음을…"

결국 노총각은 사랑스런 여인의 결혼승낙을 받아내었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무대의 막은 내렸습니다.

갑자기 웬 사랑타령이냐구요?

가을이잖아요. 이런 계절에는 연극이나 뮤지컬 한 편 정도는 보아야 할 것 같아 모처럼 극장을 찾았답니다. '결혼'이란 제목의 이 아담하고 조촐한 뮤지컬을 감상하는데 그 대사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박수와 함께 객석의 불이 환히 켜졌을 때 나는 노총각의 사연이 <잡보장경>에서 도깨비들을 만난 한 사내의 처지와 똑같음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늦은 밤 외딴 오두막에서 귀신 둘이 시체 하나를 사이에 놓고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내는 귀신들에 의해 끌려나오게 되고 그 사내는 시체가 누구의 것인지를 말해야했습니다.

사내는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편 귀신의 미움을 살 것이고 그리되면 제 목숨을 가져가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사내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저 분이 가지고 온 것"이라며 오두막에 들어온 귀신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나중에 들어온 귀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내의 손과 발과 다리와 몸통을 비틀어 뽑아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먼저 귀신이 차례대로 시체의 사지와 몸통을 뽑아서 사내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사내는 아프기도 하거니와 귀신들의 조화에 얼이 나가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는 없었지요. 실컷 난리를 피우던 두 귀신은 문득 싸움을 그치더니 주변에 흩어진 사내의 손발들을 먹어치운 뒤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귀신들이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제정신이 든 사내는 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체 이 몸은 나의 몸인가? 시체의 몸인가? 근데 나는 지금 '내 몸'이라고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것들이 정말 내 것 맞는가요? 시간이 되면 다 떠나갈텐데 그런데도 내 것이 맞을까요? 진짜 내 것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황금빛 은행잎들이 만추의 비를 맞아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던 지난 토요일 밤. 서울 명동의 후미진 골목 끝 극장에서 한 노총각이 빌려온 것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에 마침내 사랑을 찾아 결혼에 골인해였듯이 나도 '진짜 나'를 찾아 삶에 골인해야겠다며 총총히 귀가를 서둘렀던 하루였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정말 내 것일까
시간 지나면 하나 둘씩 떠나갈텐데 말입니다

재산 많이 모으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이 부자되는 길

지상 백고좌

운산 스님

(아산 능인정사 주석)

산중에서 치열하게 정진하는 수행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속과 담을 쌓고 있는 듯하지만 끊고 맺음에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들은 저마다 깨달음을 향해 쉼 없이 정진을 이어가기 위한 수행의 지표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60여년의 산중생활을 지탱해 준 가르침이 있습니다. 먹물 옷을 입게 해 준 평생의 스승 석봉 스님의 가르침이 그 것이지요. 석봉 스님이 수행할 때의 일화와 평소 강조했던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석봉 스님은 산중에만 머물던 기인이었습니다. 만공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어느 날 참선을 하겠다며 도반과 함께 금강산 마하연을 거쳐 오대산 상원사로 갔습니다. 금강산에서 마가목 지팡이를 만들어 짚고 찾아간 상원사 선방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전날 짚고 온 지팡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화가 난 석봉 스님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오늘 밤 안으로 지팡이를 가져다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시 하룻밤을 묵고 나니 지팡이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선방에 방부를 들이려 해도 함께 간 도반은 받아주면서 스님의 방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석봉 스님은 분통이 터졌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함께 간 도반스님이 "정말로 이유를 모르는 것이냐"면서 답을 일러주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화를 낸 스님의 모습이 사천왕처럼 무서워서 함께 살기를 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스님의 태도가 수행분위기를 해친다는 충격적인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석봉 스님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 길로 석봉 스님은 상원사 조실로 있던 한암 스님을 찾아가 삼배를 올렸습니다.

"절대로 진심(嗔心)을 내지 않겠습니다. 방부를 받아주십시오."

한암 스님은 "진정 인욕할 수 있단 말이더냐?"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그 후 이전의 석봉 스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욕 보살'만이 가부좌를 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방의 납자들은 갑자기 치열한 수행자가 되어버린 석봉 스님의 태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원사를 찾던 첫 날 온 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있었으니 그럴 만했을 것입니다. '인욕보살'이 된 석봉 스님은 다른 괜한 트집을 잡아 욕을 해도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나중에는 '깨달음의 방(棒)'이라며 때리기까지 했지만 석봉 스님의 인욕수행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진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때 이후 석봉 스님은 40년 동안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처음 문하에 받아줄 때도 이렇다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스님이 즐겨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제일법문'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팔대인각경(八大人覺經)>에 나오는 말인데, 부처님 말씀에 평소 스님이 강조했던 인욕을 추가해 일러준 가르침입니다.

인욕제일장(忍辱第一壯)
지족제일부(知足第一富)
무병제일리(無病第一利)



평생을 인욕의 삶으로 일관해 온 운산 스님.

선우제일친(善友第一親)
열반제일락(涅槃第一樂)

참고 견디는 것이 제일 장사요
족함을 아는 것이 제일의 부자고
병 없음이 제일의 이익됨이며
좋은 벗이 제일 친한 이요
열반이야말로 제일의 즐거움이니라.

이 중에서도 인욕과 지족은 누구에게나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모름지기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스스로 족할 줄 알고 마땅히 참을 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참을 줄 모르면 화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마침내 원망은 쉬어지지 않아요. 오직 참음이 원망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을 행복의 열쇠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인욕의 삶을 살아야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지려하지 않으며, 내 행복을 위해 남을 힘들게 합니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렇

탐·진·치 삼독 여의는 것이 생활속 수행
청정한 마음과 본래 성품 드러내는 힘도
인욕과 지족 실천하는 가운데 나와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촛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중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몇생을 거듭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중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둥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 동참 목록
• 아 미 타 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 수 보 살 : 일천만원 • 보 현 보 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화순 안희숙 최미자 안치영 고영인 유성용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

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다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거든요. 평생을 삼독심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욕이라는 것은 바로 탐 · 진 · 치 삼독을 여의는 것이고, 이는 곧 생활 속의 수행인 것입니다.

지족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지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과 돈을 쌓아놓고도 더 많은 이익을 바라는 것이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재화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에 있어요.

자연을 보세요. 산에는 새가 있고 강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새는 숲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물고기는 연못을 유유자적 노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숲에 있으면서 연못을 얻으려 하거든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앞세우면서 만족에 있다한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참지 못하면 화 부르고 원망으로 이어져

자연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더라도 그저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달라지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만족을 알 듯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면 웃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족을 모르는 이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이가 나누며 살리는 만무합니다. 자기만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과연 옆에 있는 거지가 눈에 보일까요? 그러나 지족하면 보시의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 많은 것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생각만 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이롭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재물의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지족제일부'라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라면 모름지기 인욕과 지족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인욕과 지족에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청정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품을 드러내는 힘도 인욕하는 가운데 지족을 알아야만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은사스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평생을 걸어왔습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운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에게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인욕과 지족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60여년 산중생활… 제자 시봉 사양하고 홀로 정진

운산 스님은 출가생활 60여년 동안 산중에만 머무른 운산(云山) 스님.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 탓에 매스컴에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다. 거처에 장식물을 하나도 두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은 평소 인욕과 소욕지족의 삶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강조해왔다.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경책으로 삼을 뿐이다. 지금도 은사를 모시겠다는 제자들에게 "네 공부나 하라"며 홀로 정진하고 있다.

1924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운산 스님은 12살 때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을 친견한 뒤 불교에 귀의했다. 1948년 입산했으며 1952년 수덕사에서 석봉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9년 부산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출가 직후부터 은사인 석봉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대구 동화사, 남지장사, 서산 개심사, 공주 갑사, 서울 법수원을 따라 다니며 시봉, 인욕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의정부 망월사 선방 등지에서 화두를 들다가 터만 남아 있던 진천 영수사를 재건, 운수의 길을 접고 30년간 수도했다. 현재는 아산 능인정사에서 손수 입은 옷을 빨고 공양을 지으며 화두수행을 하고 있다. 운산은 법호이며, 법명은 혜철(慧哲)이다.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법경 스님 (下)

며칠전, 법경 스님으로부터 건국대 부속병원 종교실에 법당이 마련되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갔다. 비록 좁은 공간의 4평짜리 법당이지만 병원측에서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교생활을 배려한 듯 하다.

이곳에서 법경 스님은 대단한 친화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사탕을 곳곳에 갖다놓고 누구든지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각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들을 위로한다. 그렇다고 종교를 가려가며 다니지는 않는다고 한다. 몸뚱아리 아픈 사람에게 무슨 종교적인 차별심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병실을 순회하다 보면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되는데 더러는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아이고 보살님'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림 · 문병성

법경 스님이 어느 병실을 방문했을때 일이다. 연로하신 뇌졸중 환자가 있었는데 불편한 몸으로 식사를 하다보니, 입가에 음식물을 묻히는 등 주위가 좀 어지럽혀 있어 닦아드리고 챙기면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있는가 여쭸더니 없다고 했다. 이후 법경 스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몇 차례 보살펴 드리며 기도를 해드렸다. 어느날 병실을 찾았으나 자리에 안 계셔서 퇴원을 했구나 했는데, 다른 병동을 순회하던중 우연히 그 환자를 만나게 됐다. 자신을 보자마자 대뜸, "부처님이 오셨다"며 반가워하더란다. 환자가 불편할 때 몇 차례 위로하며 기도를 해준 것이 전부인데 환자분 가슴속에는 잊혀지지 않았던지, 불편한 몸으로 더듬거리면서 '부처님'이라는 말을 몇차례 반복하며 자기가 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고 부처님을 알았다고 했단다.

법경 스님은 "수행이 부족한 소승에게 부처님을 비유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편하게 스님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하루속히 건강이나 되찾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기도를 정성껏 해주고 일어서는데, 그 환자는 다시 몸을 어렵게 일으키더니 주위 환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스님이 '부처님'이라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인지, 거듭 '부처님'이며 염주알을 굴렸다고 한다.

언젠가는 일용직 직원이 남편의 49재를 지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며 상담을 해 오더란다. 스님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집안에서 정성스럽게 고인의 왕생극락을 기원할 수 있는 음식물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했더니, 굳이 스님에게 재를 부탁해왔다. 당일 그분의 자택을 방문해 정성스럽게 재를 지내드렸다. 끝내고나니 그 집 할머니가 "아이고 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상담했던 보살님은 봉투를 주더란다. 그런데 월세 30만원을 내면서 지하방에서 지내는 어려운 살림을 보니 그 봉투를 받을 수 없어, "이미 아드님(고인)에게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학비에 보태라"며 돌려주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아이고 보살님, 감사합니다"란 말씀을 또 하셨다.

더러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환자들이라도 만나게 되면 스님은, 함께 봉사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계시니 방문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겠다며 병실을 체크

병원 종교실 작은 법당서 환자들의 마음 보듬어

해 원목실에 알려준다. 또 함께 봉사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각 병실을 방문하면서 불교신자라도 만나면 함께 일하는 훌륭한 스님이 있으니 말씀드리겠다며 자신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한 수행자의 인간적인 배려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에게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한 기회가 되었고, 환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불교적 정서를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디 전문분야 포교라는 것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지만 법경 스님은, 환자들이 건강을 찾아 부처님 인연에 감사하고 사찰의 문을 두드릴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포교라는 것이 어느 한 사찰의 원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포교사들 원력에 의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부터 불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사찰이라는 수행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성을 순화하고 공동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타적인 정신을 배양할 때, 우리 사회는 사찰의 존재와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덕을 찬양하기 때문에 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는, 건국대 부속병원 종교실의 작은 법당에서, 병고(病苦)로 불안하고 초조한 환자들을 위하는 '약사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미소를 보았다.

■ 남양주 무량사 주지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신화기를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찰에서 정통 '중국어' 회화 강좌!!

중국 정통 표준어(북경어의 진수) 중국 통일 언어정책의 선두 기수 흑룡강성 하얼빈사범대출신강사!

중국어를 공부하시려는 분, 이미 공부하고 계시는 분,
중국에서 발음이 가장 표준어에 가까우며 커리큘럼이 좋기로 유명한 흑룡강성 하얼빈사범대를 아시는가?
이 대학출신들이 전 중국방송계에서 천하의 중국 언어를 표준발음으로 통일 시키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가?
여기, 이 대학 출신으로 20년 교단경험의 강사가 정통 중국어회화 강좌를 펼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열의 있는 성인 수강생만 선착순으로 모집(20명)합니다.

▶ 강좌시작 : 제1기 2005년 12월 5일(월)
매주 (월 · 금요일) 2회, 1년 과정
시간대 : 18:30 - 19:30(60분)
▶ 장 소 : 아미타사 (종로 3가, 비원 앞)
▶ 강 사 : 조송자 교수
▶ 수 강 료 : 월 5만원 (교재대 포함)
▶ 접수마감 : 2005년 12월 3일(토) 18:00
▶ 문 의 : 아미타사

원어민 전문강사의 전문교재활용으로 중국어 명문교육!!

오시는 길
- 전철 : 1, 3, 5호선 종로 3가역 ⑦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창덕궁 하차) 109,151,162,171,172,272,1012,7025 비원길 창덕궁(비원)방향 우측노변 '대각사' 표지판 지나서 비원슈퍼 옆 아미타사(☎ 02)745-3351, 3352)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사
南 無 阿 彌 陀 佛 阿 彌 陀 寺
"Namo Amita Buddha" Amita Monastery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69번지 (우)110-360 ☎ 02)745-3351, 3352 / 본사 : 강원도 망경산사 033)374-8007, 9007

게시판

유급 장애인 생활도우미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1일까지 20~65세 미취업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도우미를 모집한다. 하루 8시간, 월 20일 근무 조건으로 일당 3만2천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031)431-9114

동방대학원대학 수강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은 서화문예학과, 불교문예과, 미래예측학과,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 전통무속과 등을 전공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1월 말까지. (02)745-2141

생활역학 강의 태고종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은 제4기 전통의식반, 생활역학반, 서예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매주 월 · 화 · 금요일 3일간이며 접수는 11월말까지. (031)864-0033

경로당 자원봉사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당 자원봉사자를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봉사활동은 레크리에이션, 민요교실, 기초건강검진, 이 · 미용 분야다. (02)831-2755

능허정 답사여행 한국민속박물관은 11월 17일 능허정, 수승대, 구연서원 등 답사여행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3만5천원. (02)3704-3145



어르신 수지침 자원봉사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어르신들을 위한 수지침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사진). 수지침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가능. 모집기간은 11월 말까지. (02)804-4058

20면 상식 퍼즐 정답

초	의	선	사			
발			마	니	주	
심	청		타		인	
	산				공	안
	유					빈
	수	마	트	라		낙
				마	파	도

약수 한사발에 힘이 솟네



약수 찾아 떠나는 주말여행

심산유곡에서 만나는 차고 시원한 약수. 약수터에서 건강을 마시며 여행의 즐거움을 느껴봄은 어떨까. 대부분의 유명 약수는 톡 쏘는 탄산수와 철분이 많아 달콤 쌉쌉한 맛이 나지만 효과는 산삼 못지않다. 자연이 준 천연의 보약 '약수'.

이번 주말은 가족끼리 연인끼리 약수 한 사발 마실 수 있는 약수터로 건강여행을 떠나보자.

설탕 뺀 사이다 맛- 청송 신촌약수



풍부한 수량과 1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신촌약수.

약수 성분은 철분이 함유된 탄산수며 약수 맛은 설탕을 뺀 사이다의 맛으로 위장병과 신경통, 만성부인병 등에 효험이 있어 연간 50여만명이 찾고 있다. 청송군 문화관광과 (054)870-6063

늘지도 줄지도 않고 무색무취- 청송 달기약수

조선 철종 때 발견된 이 약수의 특징은 무색무취. 또 아무리 가물어도 사시사철 약수의 양이 일정하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주왕산국립공원자락 청송읍에서 동쪽으로 3㎞ 떨어진 달기약수탕에는 하탕 중탕 상탕 신탕을 비롯해 10여 개의 약수터가 있다. 위장병 신경통 빈혈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수 솟는 소리가 닭 우는 소리 '구구구'와 비슷해 달기약수라 불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국립공원 주왕산관리사무소 (054)873-0015

문둥병도 고쳤다는 전설- 봉화 오전약수



문둥병 환자들이 약수를 먹고 병을 고쳤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약수터.

봇짐장수 곽개천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와 이르기를 "네 옆에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약수가 있다"해 잠에서 깨어보니 과연 약수가 솟고 있었다는 전설도 전한다. 이 약수는 탄산성분이 많아 톡 쏘는 맛이 일품이며 주요성분은 유리탄산 망간 마그네슘이온 염소 중탄산 칼슘이온 철분으로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054)673-5800

철분 · 탄산 많아 눈병에 효험- 정선 화암약수



청룡과 황룡이 승천했다고 전하는 약수터. 마음씨 나쁜 사람이 이 물을 마시려 하면 물 안에 구렁이 형상이 보여 마실 수 없다는 전설도 함께 한다. 주변의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이 약수터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철분과 탄산이 많아 위장병 피부병 눈병에 효험이 있다. 인근에 거북바위 용마소 소금강 등 볼거리가 풍부하며 천연 종유굴인 화암동굴은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다.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 (033)562-7062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위장병 · 당뇨에 특효- 양구 후곡약수



이 약수는 설사병에 걸렸던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씻은 듯이 나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위장병 당뇨 신경통 고혈압 등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오랜 기간 머물며 장기 복용하는 사람도 많다. 탄산성분 때문에 이 약수로 밥을 지으면 고려청자 같은 푸른빛이 감돈다.

인근의 팔랑폭포는 사방이 암벽에 에워싸여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평화의 댐, 양구선사박물관, 박수근미술관 등도 둘러볼 만하다. 양구군청 문화관광과 (033)480-2251

전나무 정수필터- 평창 방아다리약수



조선 숙종 때 발견, 오랜 역사를 가진 물이다. 주변 250만평의 전나무 100만 그루가 천해의 정수필터 역할을 해 깨끗한 수질을 자랑한다. 특히 철분이 많아 위장병 빈혈 신경통에 특효가 있다. 입구에서 약수터로 가는 전나무 숲길은 삼림욕을 즐기기에도 좋다. 주변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등도 가깝다.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033)330-2541

철이 넘치는 곳- 양양 불바라기약수



폭포수 사이에 있는 특이한 약수. 폭포 바로 옆 절벽에서 약수가 흐른다.

철이 많아 대장간이 번성한 곳이었다고 해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과 바위를 벌겋게 물들인 모습이 불꽃이 이는 해바라기를 닮았다하여 불바라기라 칭한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휴양림 입구의 폐사지 선림원터 등이 둘러볼 만하다. 통일신라 때 큰 절이 있던 곳으로 갑작스런 산사태에 파묻혔다고 한다. 미천골자연휴양림 (033)673-1806



이영화 어떠요?

꾸며낸 이야기가 현실로 펼쳐진다면?

그림형제: 마르바덴 숲의 전설 감독: 테리 길리암 출연: 모니카 벨루, 맷 데이먼 장르: 환타지 상영시간: 118분 등급: 15세 이상

판타지 액션 어드벤쳐 스릴러 영화 '그림형제: 마르바덴 숲의 전설'은 750샷이 넘는 특수 효과로 영화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여기에 헐리우드 최고의 지성파 배우 맷 데이먼과 떠오르는 꽃미남 히스 레져, '미의 화신'이라 불리우는 모니카 벨루치까지 합세함으로써 더욱 기대가 되는 영화다.

때는 19세기 프랑스. 그림형제는 자신만만하고 용감하게 전국에 있는 온갖 귀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다. 하지만 그들이 물리치는 귀신과 악귀들은 그림형제들과 돈을 나누어 갖는 사기꾼들이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곧 정부에게 발각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형제는 정부와의 타협안에 동의한다. 그 타협안은 바로 저주에 걸려있다는 마법의 숲 '마르바덴'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소녀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그림형제는 문제의 마을 마르바덴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그들은 미스터리로 가득 찬 숲 속에서 전설에 둘러싸인 '거울여왕'과 맞닥뜨리게 된다. 라푼젤 성에 잠들어 있는 거울 여왕과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정체불명의 늑대인간. 그녀의 정체와 비밀을 파헤치면서 그림 형제는 거짓말처럼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같은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데…. 마법의 숲 마르바덴에서 펼치는 그림형제의 모험을 그린 영화 '그림형제: 마르바덴 숲의 전설'.



'해리포터와 불의 잔' '나니아 연대기:사자, 옷장 그리고 마녀'등 유독 환타지 마법 영화가 많은 올 겨울, 흥미진진한 마법의 세계에 빠져보자.

노병철 기자

공연

소리가 된 부모님의 손길이여

'김영임 孝 대공연' 19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을 노래하는 김영임씨.

흥과 멋이 어우러지는 초대형 국악뮤지컬 '김영임 孝 대공연'이 11월 19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국악과 뮤지컬 그리고 퍼포먼스가 있는 이번 무대는 '회심곡'으로 부모에 대한 효성을 지극하게 표현한다.

'가장 처연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평가를 받는 경기명창 김영임씨는 "부모님의 손길이 가슴을 어루만지듯 지친 관객들에게 힘을 주는 무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무대라고 극찬 받았던 '김영임 효 대공연'의 광주 무대이다.

김영임씨는 '전통'을 '오늘이라는 현실'이자 '친근한 이웃'으로 이끌어 온 주인공이다. 또한 소리를 통해 진정한 '우리 것' 찾기를 실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다. (062)510-9333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전시

이미지와 텍스트의 어울림

'이미지와 텍스트' 17일부터 갤러리 진선

그림과 글자가 만나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갤러리 진선에서 열리는 '이미지와 텍스트'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시각예술 즉, 수묵화 유화 사진 드로잉 등이 텍스트와 결합해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관계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이다.

1, 2부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는 동 · 서양에서 각기 다르게 관계를 맺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전통이 어떻게 이 시대에 되살아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1부는 동양의 관점에서 '시서화(詩書畵)'로 이어져온 전통적인 이미지 · 텍스트 간의 긴밀한 관계에서부터 새로운 매체인 애니메이션과 결합한 오늘의 새로운 관계까지 전체적인 안목을 보여준다. 2부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완전히 분리됐던 서양의 관점에서 최근 새롭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미지 · 텍스트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예술과 자유로운 텍스트를 통해 선보인다. (02)723-3340

강지연 기자





홍지윤의 '화선지 위의 시간'(위)과 오영욱의 'pen心'.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4일 15:00 음악의 마을
15일 21:05 영화음악실
16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17일 17:10 무명을 밝히고
18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19일 09:05 행복한 미소
20일 11:05 아름다운 초대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4일 21:10 한국의 명찰
15일 02:40 불교TV스페셜
16일 15:50 열린마당
17일 19:30 TV법회
18일 08:20 산중대담
19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20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1월 17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점'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국악, 불교관련 명상음악, 찬불동요, 중국 · 티베트 · 베트남 등의 불교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11월 20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2006 불교다이어리

평상시에는 메모장, 사색할 때는 명상집, 예불 때는 불경으로 활용이 가능한 움직이는 종합노트북 '2006 불교다이어리'. 매일매일 음력, 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각종 예불 · 기도문도 실고 있어 더욱 편리해 졌다.

각 종단과 불교언론사 및 주요 인터넷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활용도를 더욱 높인 것이 특징. 가격 7천원.

내생에는 스님되게 하소서 (하)

서진석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아직도 현봉 스님하면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스님께서 행자들을 가르치실 때 종종 "못나고 굽은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며 당신 자신을 낮추셨던 말씀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말씀일 뿐 아니라 '중도'의 가르침까지 포함된 화두가 아닌가 싶다. 스님께서도 "너무 곧으면 나무꾼이 베어가고, 너무 무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곧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폐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봐서도 그런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연기'라는 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겐 연기라는 말 자체가 낯설 뿐더러, 세상의 모든 현상 및 원리는 모두 연기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처음 접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현상이며 원리인 연기를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기의 의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지고, 다시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되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이기에 뭔가 특별한 심오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나에겐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다.

어쨌든 스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무상(無常)하며 무상하기에 공(空)한 것이고, 무상이라는 현상의 실체이자 원리는 연기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물론 이 두 스님 외에도 가끔 행자실에 들러 힘든 것은 없는지 물어보시며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시던 보성 큰스님, 늘 기숙사 사감 같은 느낌의 원주스님, 지금은 돌아가신 공양간 노보살님, 같이 밥 짓고 반찬 만들던 화순댁과 고흥댁 보살님, 오래전에 열반하셨지만 어쩌다 가끔씩 먼발치에서나마 뵐 수 있었던 회광승찬 큰스님 등.

속물 철철 넘치는 나를 조금 철들게 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 뇌리를 스쳐지나 간다. 솔직히 가끔은 그 분들 모두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불보살님들이 인간 몸으로 현신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해볼 정도다.

주위에 너무나 큰 스승들이 많으셨기에 결국 3개월간의 과정들을 마칠 수 있었고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와 접할 계기도 됐다. 물론 그 모습이 본성인 진정한 나가 아닐지언정 어쨌든 허상일지라도 새로운 나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언젠가는 진정한 나와 만날 날이 있을 거라는 확신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송광사를 떠나오던 날 아침,

단기출가 마친 후 새로워진 '나' 발견
마음 진실해야 좋은 인연 가꿀 수 있어

새벽예불을 마치고 짐을 싼 다음 안개가 걷히지 않은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했던 그 상황이 눈에 선하다.

벌써 송광사에서의 생활도 15년 전의 일이 되어 가물가물하기만 하다. 물론 지금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자 아빠로, 직장에서는 관리자로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법회에 참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길가다 문득 마주치는 사찰에서 친정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법당의 부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편안함을 느끼며, 가끔 뉴스에서 불교계에 경사가 나면 같이 기뻐하고 혹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같이 분개하고 가슴 아파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이고, 나의 스승이며, 나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위 친구나 동료들에게 가끔 나의 소원을 얘기할 때, "지금은 처자식과 부모님 부양 때문에 어렵지만, 내생에는 꼭 스님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주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왜 하필?"하고 생각하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불교는 뭐냐? 내가 보기엔 종교는 다 똑 같은 것 같더라" 혹은 "불교 미신 아니냐?, 점이나 보고!" 등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

그에 대한 답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나만의 불교로 답을 대신하면서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얼마 전부터 나는 그간 직장 내에서 무난하게 지냈던 동료직원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그 동료가 경력은 좀더 위였지만 운이 좋았는지 내가 빨리 직책이 올라가면서 왠지 둘 사이가 예전 같지 않기 시작했다. 솔직히 나도 그 동료에게 여러모로 신경을 써준다고는 했지만 사실 순수한 동기보다는 그 동료의 상사로서 그 친구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술자리나 사석에서 괜히 그 동료를 의식하게 되고, 그 동료를 생각해서 했던 말도 순수하게 전해지지 못했다. 처음엔 "내가 정말 잘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하는 생각에 답답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이기에 상대방이 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만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역시 '인과응보'이고, '연기'라고 생각한다. 참 신기하게도 겉으로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음끼리는 전달이 되었나 보다. 그렇기에 인연의 시작에서는 과거의 수많은 업으로 인해 좋고 나쁜 이미지가 나뉠 수 있어도, 결국에 좋은 인연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신, 구, 의 삼업 모두가 진실하고 자비로워야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신 구 의 삼업도 진실하고 자비로울 수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예와 부를 얻으신 분을 차로 모실 기회가 있었다.

차 안에서 내가 먼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명예와 부를 얻으셔서 행복하시겠어요" 하고 묻자, "그래도 누구나 자기 몫만큼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고 살지 않겠나"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사실 나 자신이 그 분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에 그 말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양 추구하고 좇아서, 결국 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본성을 찾아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이상, 누구나 자기의 참다운 삶이 아닌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며, 그러기에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불교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이 입문해야 하는 종교이다. 왜냐하면 유일신이 있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종교가 아닌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과거 수 억겁을 윤회하면서 겪었던 생로병사의 고통을 현재도 되풀이하고 있고,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이상,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되풀이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 몸 받았을 때에 하루 속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만나 참 본성을 깨우치고, 중생을 위한 보살도를 행하며, 좋은 인연공덕들을 쌓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과 '무상' 또한 근기 약한 중생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만나고도 돈, 명예, 권력 등 허망한 것들에 현혹되어 퇴굴심을 낼까 걱정되어 현상계의 실체를 보이시기 위한 방편설인 것이다.

지금까지 보잘 것 없는 글을 읽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길 바란다.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 들숨 :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챠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 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

⊙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홧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 견 스 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수능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

제53회 3000배 철야정진

평소 갈고 닦은 실력 100% 발휘를 위한 기도!
수능 고득점, 만점을 위한 기도!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위한 기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성스럽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끊임없이 염송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100% 기도 성취의 대 긍정의 감사로 학업성취의 큰 소원을 이뤄냅시다.

◆ 날 짜 :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멱티 2매,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 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재가자 자기수행 및 단기 출가

귀의삼보 하옵고.
모든 이들이 증오,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여 이다.
禪수행 보리도량 비로선원에서는
구도심과 정진력 있는 재가 불자님과 자기수행를 원하는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일상의 탈출과
물욕의 세상을 넘어 자아실현을 돕고 져 합니다.

대 상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대중살림(수행)에 건강상 문제가 없고 참선수행 단기 출가를 관심하는 불자님

자 격 재가선원, 사찰수련회, 템플스데이, 유경험자

본 선원의 수련은 참선과 예불, 경행과 조사어록 강독으로 참선수행과 자기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련자의 근기와 수행력을 수시 점검합니다.

입방인원 8 ~ 10명

접수일자 2005년 11월 1일 ~ 11월 30일

- 1차 2005년 11월 16일 ~ 12월 15일(30일)
- 2차 2005년 12월 16일 ~ 12월 30일(15일)
- 3차 2006년 1월 13일 ~ 2월 12일(30일)

수련살림 동참비

- 1차 - 3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30만원

전화면접 및 사전접수 요합니다.

※1차 입방이 허락 되신 분은 2005년11월 14일 (음10월13일) 14시 도착

결 제 일 2005년 11월 16일 을유년 동안거 (음10월15일)

오시는 길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사무국 전화 : 052)264-7627

대한불교 조계종 선수행 보리도량

비 로 선 원



타이완 차 문화 답사
1 타이완 차의 어제와 오늘
② 세계시장 넘보는 타이완 차
③ 타이완 차문화에서 배운다

역사 짧아도 제다 기술 눈부신 '진보'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타이완 고산차는 특유의 향과 맛으로 전 세계 차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은 리산(梨山) 지역에 조성된 다원 전경.

불과 300~400년 전에 시작된 타이완의 차문화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선정된 세계 10대 명차 중 타이완 동정오룡과 문산 포종, 목책 철관음, 동방미인 등이 상위권에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시내에 자리 잡은 차 가게의 경우 손님 3분의 1 정도가 일본 · 한국 관광객인 실정이다. 중국차가 연일 중금속 과다 검출과 제다 과정의 불결함 등으로 오명을 떨치는 것과 달리 타이완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세계 차 시장을 넘보고 있다. 동아시아 차계의 다크호스로 떠 오른 타이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타이완 차문화 현장을 찾았다. 그 현장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대부분 고가 수출, 국내 소비량 증가 추세
푸젠성 사람들 정착하며 차 재배 본격화
상쾌한 향, 순한 맛 '동정오룡' 세계적 명성

▶ 타이완 차문화의 오늘

타이완은 중국 푸젠성(福建省) 광둥성(廣東省)과 함께 세계 3대 오룡차 생산지로 꼽힌다. 우리나라 경상남 · 북도를 합쳐놓은 크기인 3만 6179㎢ 면적에 2,200만명의 인구를 가진 타이완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제다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연간 15만여 톤의 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1인당 차 소비량은 연간 1,650g 정도다. 타이완에서 생산되는 차는 대부분 고가(高價)로 일본과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 푸젠성이나 베트남 등에서 많은 양의 차를 수입해 재가공,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내 차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타이완 차와 역사

1697년 야생차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타이완에는 17세기 이전부터 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차 산업은 1796년 푸젠성 사람들이 타이완에 정착하면서 무이산(武夷山)에서 차 품종을 가져와 현재의 대북현(臺北縣) 서방(瑞芳)지구에 심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855년에는 청심오룡(青心烏龍) 묘목을 동정산(凍頂山)에 심어 오늘날 동정오룡차(凍頂烏龍茶)의 기원이 됐으며, 복건성 안계(安溪)에서 철관음차(鐵觀音茶) 품종을 들여와 대북시 목책(木柵)에 심은 것이 목책철관음차(木柵鐵觀音茶) 생산의 근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오룡차가 주로 생산됐고 이후 타이완 특유의 포종차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처럼 타이완에서 차 재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아열대기후의 북부지역과 열대기후의 남부지역은 모두 연평균기온이 20℃를 넘고 연간 평균 강우량은 2,515mm로 차 재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경우 일교차가 크고 아침저녁으로 운무(雲霧)가 많다. 자연히 일조량이 적어 쓰고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함량은 낮고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의 함량은 높다. 또한 찻잎이 부드럽고 육질이 두꺼워 향과 맛이 풍부한 특징을 가진다.

▶ 대표적인 타이완 차

타이완차는 크게 동정산에서 재배되는 동정오룡차와 리산(梨山) 아리산(阿里山) 등에서 생산되는 고산차, 특유의 향과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동방미인, 목책지구의 철관음 등이 유명하다.

특히 동정오룡은 타이완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차로, 타이완 중부의 동정산 산허리에 펼쳐진 루구샹(鹿谷鄕) 일대가 주요 산지다. 150년 년 전 푸젠성에서 이식된 묘목이 그 시초로, 이곳에서 재배된 차가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것보다 발효도가 낮다. 때문에 상쾌한 향기를 내며 황금색 탕색에 부드럽고 순한 맛이 난다.

타이완 고산오룡차란 해발 1,000m 이상 심오룡을 많이 사용하며 문산 포종차는 잎이 길이대로 말린 형이고 동정 포종은 둥글게 말아진 형태다. 찻물은 황금색이며 향이 단아한 꽃향이 난다. 찻잎의 활성이 좋고 감미로운 향을 낸다.

타이완 차는 여느 차 생산지와 마찬가지로 봄철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추석 후 1주일 정도까지 생산되는 동차(冬茶)가 그 다음을 잇는다. 그러나 가격은 동차가 춘차에 비해 1.5배 정도 높다.

다음 호에는 대표적인 타이완 차 생산 다원과 생산 공정 등을 살펴본다.

글 · 사진/타이완=여수령 기자



온화한 기후의 타이완은 11월까지도 동차(冬茶) 수확에 한창이다.



문산 포종차 고향인 평림(坪林)에 세워진 평림다업박물관 전경.

■ 타이완 주요 차 산지와 종류



조선시대 ㉕



국제 교류 잦아지며 서양 음다생활 소개
문일평 다고사 남겨 우리 다시에 큰 공헌

국제간의 교류가 잦아짐에 따라 서양인들의 음다(飮茶)생활도 소개되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차를 수입하면서 차의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묘목을 수입하기도 했다. 대외적 의식이나 조정의 행사, 사찰의식에서 차를 쓰면서 차의 생산을 소홀히 하는 정부에 대해 미국공사 딘스 모어가 차 재배를 권유하기도 했다.

시대적 상황으로 당시에 다화회(茶話會)라는 차모임이 많았고 문일평 같은 선각자가 나와 다고사(茶故事)를 남겨 자료가 희소한 우리 다사(茶史)에 크게 공헌했다.

중국도 개혁적 사상의 문인이자 차인인 노신이 등장하고 중국 근대 차발전에 공적을 남긴 오각농이 출생했다. 일본은 왕정복고 이후 얼마 동안 다도가 퇴조하는 모양이었다.

① 김원식이 청(淸)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과의 회담 내용에 조선 차의 재배와 해외수출 문제를 포함했다.

② 천진군기소의 총판 유향림과 다업진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③ 농상사(農商司)에서 차 재배 업무를 맡아 정부에서 장려했다.

④ 고종 21년에 일본차를 상당량 수입했다.

⑤ 청국에서 차의 모종 6천 그루를 수입해서 심다.

⑥ 청국의 안휘성으로부터 육안차(六安茶)의 차씨를 수입했다.

⑦ 서울에 있던 미국 공사 딘스 모어가 차 심기를 권장했다.

⑧ 문일평은 〈호암전집〉 안에 〈다고사(茶故事)〉를 써서 우리 차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⑨ 오효원(1889~?): 시 470여 수를 담긴 〈소파여사시집〉 안에 다시 6편이 전한다.

⑩ 이즈음에 오면 정부의 고급 관리들이 다화회를 자주 가진다. 이는 외국 사람들의 티파티를 모방한 새로운 다회 형태였다.

⑪ 박영희(1892~1990): 초의의 맥을 받았다는 응송(應松) 스님이다. 한국의 전통차 보급에 애썼고 〈동다정통고(東茶正統考)〉를 썼다.

⑫ 오치보(1847~1929): 근대 다상으로 가업을 이어 전차를 주로 만들어 이름을 얻었다. 북경을 중심으로 수많은 점포를 두고 많은 자산을 모아 공익사업을 했다.

⑬ 유순경(兪洵慶)이 쓴 글로 차의 공(功)에 관해 썼다.

⑭ 좌종당(1812~1885): 군기대신을 지냈으며 그의 글에는 청대 다법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많다.

⑮ 노신(1888~1936): 문학자로 혁명적 사상을 펼쳤다. 차를 아주 즐겨 일생을 차의 정신으로 산 문인이다.

⑯ 오각농(1891~1988): 현대 다학 전문가로 일본에서 다업시험장에 근무하고 돌아왔다. 중국차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을 세우고 외국 다업을 돌아봤다.

⑰ 조의(趙懿)가 쓴 것으로 몽정차(蒙頂茶)에 관한 것이 들어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881 김윤식 회담 ① 1882 유향림과 회담 ② 1883 차나무 재배 장려 ③ 1884 일본차 수입 ④ 1885 차 모종 수입 ⑤ 1886 육안차 수입 ⑥ 1887 미국공사 차 재배 권장 ⑦ 1888 문일평(文一平)의 출생 ⑧ 상해에서 차 수입 1889 오효원(吳孝媛)의 출생 ⑨ @ 다화회 성행 ⑩ 1892 박영희(朴暎희) 출생 ⑪	청대 @ 오치보(吳嶶甫)의 활동 ⑫ 1884 〈하랑필기(荷廊筆記)〉 ⑬ 1885 차세에 관한 좌종당左宗堂)의 글 ⑭ 1888 노신(魯迅)의 출생 ⑮ 1891 오각농(吳覺農)의 출생 16 1992 몽정다설(蒙頂茶說) 17	강호시대 1883 다업조합 결성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걀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아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父인 주인공에 내려놓으라!

진정 이 길밖에 없는 것인지요

문 속히 자유스러워지고 싶고 저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절절한데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 이 공부가 무척 어렵습니다. 스님, 마음의 길을 배우고 닦는 것 밖에 저희가 벗어날 방법이 진정 없는 것인지요?

답 왜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기복적으로 수십 년간 공부한 분들도 있고, 경학(經學)으로써 수십 년간 공부한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마음공부는 글자나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고 이렇게 분별심을 낸다면 벌써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마음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집멸도 사제법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이 몸도 공했다고 하셨는데, 고(苦) 하나만 있겠습니까? '고도 공하고 몸도 공하고 물질이 다 공했으니' 할 때는 고(苦) 하나만 없앤다면 집(集)도 없고, 멸(滅)도 없고, 도(道)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수십억 마리가 세포를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나고 들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은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인과가 됐고, 인과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겁니다. 처음 인과에 의해서 하나하나 쫄나쫄나, 자기가 만약에 살생을 했다 한다면 살생을 한 대가로서 인연이 된 인과, 수없는 나날을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왔으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사생의 그 길을 다 거쳤다는 것을요. 사생이란 뭘 뜻하느냐하면 화해서 낳는 것, 질척한 데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거쳐 올라올 때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다, 지었다' 이런 말 할 게 없이 얼마나 쫓고 쫓기면서 인과의 유전과 또는 인연에 따라서 한데 모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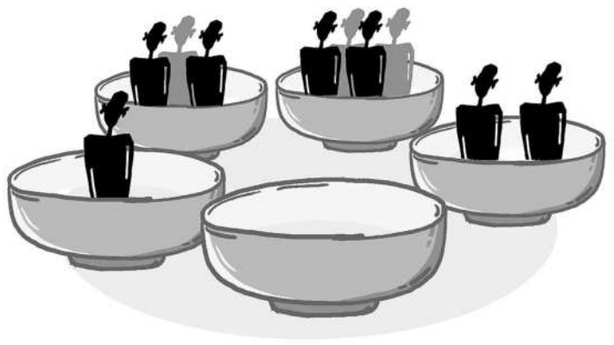
현실의 몸속에서 때에 따라서 화기가 치미는 거는 바로 화탕지옥입니다. 왜 화탕지옥이라고 했느냐 하면, 인연에 따라서 그 인연이 돌면, 그 때가 되면 바로 속이 불타게 만들고, 가환이 있게 만들고, 말다툼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부자연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환, 질병, 우환, 가난, 내 몸속에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이 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고통을 주니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왜? 만약에 팔랑개비가 돌아갈 때 대를 잡고 있으면 되지 팔랑개비 돌아가는 데에 거기에 자꾸 말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색색가지 차원대로 인연에 따라서 닥쳐오는 액운, 고통인데 왜 거기에서 자꾸 끄달리고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오는 대로 나온 자리에 다시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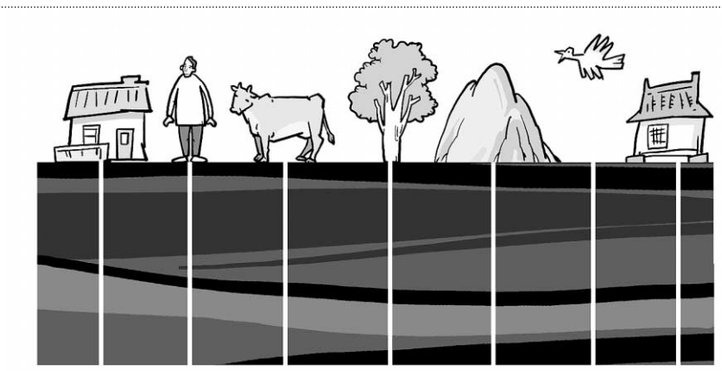
우리 몸뚱이 속에 그 중생들이 전부 하나하나 나오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속고 거기에 만날 얽매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깐 윤회에 끄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윤회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데 말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니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어가 알 낳는 거 보셨죠? 수십억 마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한생각이 잘 돌아가면 보살로 화하게 만들고, 털구멍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이 나고 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해서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하나하나가 전부 악으로서 수없이 털구멍을 드나들면서 바깥 경계 안 경계에 끄달리게 하니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으며, 부처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 자체 고등 동물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느냔 얘깁니다. 그 깊은 뜻을 만약에, 한마음을 잘못 쓰면 영령들이 수십 개가 악으로다가 나가고, 마음 하나 잘 쓰면 보살이 수십억 개로다가 나고 듭니다.

그래서 들이고 내는 거 당신이, 또는 죽이고 살리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라고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미생물에서부터 거쳐서 오면서 형성시켰고 수없이 거듭거듭 해 왔는데 자기 주인공을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음으로써 자기를 알아야 하고, 자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를 알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 천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없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론으로만 끄달립니다. 누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에 끄달리고 물질에 끄달리고 권세에 끄달린단 말입니다. 바깥의 경계에 끄달려서 헤매고 도니까 이익이 갈 게 뭐 있습니까?

진짜로 믿을 때 간절히 믿을 때
모든 일은 안되는 게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림 · 최주현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갖고 거기다 놓고, 수없이 경계가 안에서 나오더라도, 바깥에서 오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다그쳐 나가고 관한다면 얼마나 이익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한 번 놓는 데 보살 하나를 화신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진실히 믿고 한 번 내려놓는 데 화신이 된다면 그 화신은 보신도 될 수 있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지장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한생각에 만법이 들고 한 생각에 만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혈을 기울이고 숭상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저녁에 단 10분 동안이라도 관하고 좀 조용히 앉아서 모든 걸 마음에다 둥글려서 '주인공! 모든 일체를 들이고 내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소.' 하고서 관해 보세요. 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식구들한테나 주위의 아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걸랑 '주인공,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둥글리고 다지게 해 주느라고 이러는구나, 참 저 사람이 감사하구나.'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증오하기보다 미워하기보다 감사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하기 때가 있습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그런 것들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저희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

답 기계나 맷돌이 돌아갈 때 중심을 잡아 주는 심봉을 꽂지 않는다면 이탈이 되고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음 중심 심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봉은 과거 전생의 영혼 자체가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려서, 못났든 잘났든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찰나찰나 우리는 놓고 가고 있으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자기는 씨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수박으로 치면 몸뚱이는 바로 수박이고 씨는 수박씨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깊은 내면세계의 씨는 안 보고 수박이 어떻게 됐나 하고선 바깥에서 찾습니다. 바깥에서 찾으면 찾아지겠습니까? 벌써 수박씨는 심어져서 싹이 돼 가지고 다시 수박이 달려서 익었는데 그 수박덩어리가 바깥에서 어떻게 씨를 찾습니까. 바깥에서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기 씨는 바로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면의 씨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 추구하고 들어가야 하는데도 밖으로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던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악업 선업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고, 의식은 체가 없는데도 안으로 찾아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헤매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과거의 나는 부(父)가 되고 끌려다니는 놈은 자(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부(父)인 주인공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속에서 의식이 따라 줍니다. 외부의 모든 것도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됐기 때문에 광력 전력 통신력 자력, 이 네 가지가 바로 재료가 돼 가지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물도 먹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살고 있죠. 지금 과학이 발전되는 것도, 의학을 연구하는 것도,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도 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만 알면 모든 게 거기에서 물리가 터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씨는 바로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안으로 추구하고 들어가야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 알쏭달쏭이죠. 누가 어느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형상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허공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단 하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 그 자체를 중심 삼고 자기 근본을 믿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달려 있는 의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도리를 알면 전부 지배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거기에 감사할 때,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엎드러지면 자기가 일어나듯이, 거길 누르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 놓고 끄는 것도 바로 그 자리를 누르면 꺼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안되는 것이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 간절히 믿을 때 모든 일은 안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실험해 보지도 않고, 믿어 보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자기 사량으로 생각해서 무쪽같이 '이건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실험하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으니 나 하나가 물리가 터진다면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두루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든지 천문학이든지 천체물리학이든지 생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전부 마음으로 공부해서, 지금 시대는 의학도 정신의학이 아니면 100%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두루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소폭탄이니 핵폭탄이니 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물질이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두를 한 자기발전소에서 통하게 해야만 내가 약하면 기도 넣을 수 있고 또 병이 나면 그 병 난 데서 고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잘못돼서 잘못 생각을 하면 바로 파워를 일으키고,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악하게 생각을 한다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이 다 악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간에 자기 마음 탓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한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잘 안될 때도 그렇고 일체를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관하세요. 순간순간 생각에 끄달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걸 주인공한테 맡기고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넓혀지게 되고, 들끓던 마음이 가라앉아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도 웃으면서 뜻이 있을 거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걸 진정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이탈되지 않습니다. 법우님도 잘해 낼 거라고 믿습니다.

눌어붙은 습을 제거하려면…

문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숙업의 습에 의해서 올바르게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마음의 틀을 자꾸자꾸 키우고만 있는 것 같아 가슴이 갑갑합니다. 스님, 덕지덕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세세생생의 습과 업을 녹이고 삼독심을 벗어나 자유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계시고 그전에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살아나가는 그 방식에 의해서 관습이 되어서 영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이 찌들고 겹겹이 눌어붙은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눌어붙은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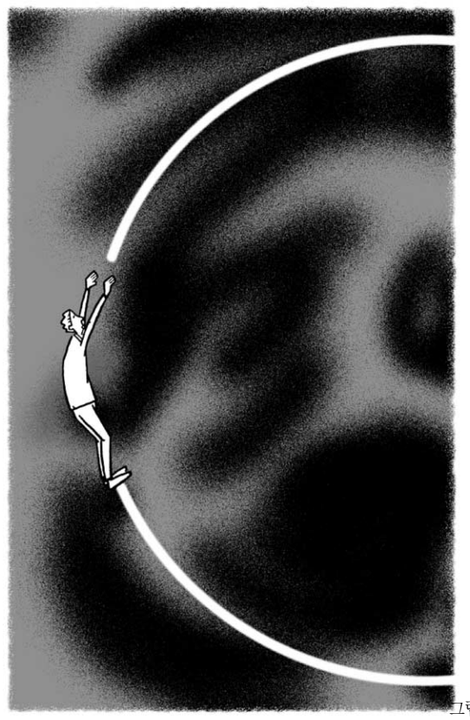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짐을 짊어지지 마세요

자식이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부모지, 잘나면 내 부모고 못나면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주인공이라는 것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진화시켜 가면서 온 바로 선장이니깐요. 선장의 근본이니깐요. 그러니 잘되면 '아이고! 주인공, 감사하다.' 그러고, 안되는 거는 '아이고! 내가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안돼?' 이러고 등한시하게 되죠. 그게 등한시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개의치 않고 믿어라 이러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잘되면 믿고 안되면 안 믿는 거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믿는데 잘된다는데 왜 나는 안되나? 안되니깐 그까짓 건 믿으면 뭘 해?'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되죠. 안되든 되든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자기를 이끌고 가는, 진화시키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장본인의 근본이 바로 자기한테 있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자부처이자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어야 마음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이룩할 수 있고, 세세생생에 이룩할 수 있어서 항상 마음이 밝아서 자식들의 뿌리도 밝게 불을 켜 줄 수가 있고, 부모 조상들에게도 불을 켤 수가 있어서 이 세상에 다시 천도가 돼서 나올 때도 조금도 어김없이 선행과 그 모든 보살행을 그대로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로 해서 돌아가신 부모들도 들 아니계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이 세상에 출현할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 해결하려면

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서 참선 수행을 하고 그러면 제 스스로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다 좋은데 다른 사람이 그런 패턴대로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끄달리면서 받는 고통을 보면 제가 괴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괴롭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는데 그럴 경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요?

답 여러분이 세상을 넓게 못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살아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깐 천당도 이 자리고 지옥도 이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들 아닌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회장이 없으면 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한쪽만 없어도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들이 아닌 평등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건져 주지 못하는 거죠. 둘 아닌 도리를 안다면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건져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통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갖는다면 다 건져집니다. 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들 아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들 아니게 나투는 도리, 즉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도 되고 저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또 한 번 말겨 놓고 항상 밑으로나 위로나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롭게, 자기를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하면서 들 아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밟는다면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그렇게 해서 충만히 했다면 만 명이 와서 "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돼서 이럽니다. 저런 것이 저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래도 그 사람들이 응해 달라는 대로, 즉 말하자면 병이 나서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약사가 돼서 도와주고, 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관세음이 돼서 도와주고, 또는 명이 짧아 괴로워하는 사람에겐 칠성이 돼서 도와주고, 이렇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 할 수 있는 거죠.

일체를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관해야 합니다!

전파가 왜 두루 합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세계 곳곳으로 인공위성으로 전파를 통해서 금방금방 신문이 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지수화풍의 바탕이 아니라면 이 마음의 요소가 묘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나온 겁니다. 이 모두가, 지금 발전되고 과학도 연구하고 의학도 연구하는 것도 50% 무(無)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100%를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견했지만 너와 들이 아닌 도리를 모르고 너와 들이 아니게 나툴 줄을 모르고, 그런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원자에서 입자가 얼마나 많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 입자가 분자로 화했을 때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리를 우리가 먼저 알려면 나를 발견하는 도리, 들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놓고 가고 들 아니게 나투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하겠다!' 한다면 높은 것은 얕게 하고 얕은 것은 높이고 그렇게 평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모두가 들이 아닌데도 몸이 아파서만 아픔이 아니라 너무 쓰라리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아요. 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거짓 해 본 일도 없고 헛말 한 예도 없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받은 일도 없고 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있는 사람한텐 좀 받아서 없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또 다니는 데 노비도 하고 이러죠. 내 몸뚱이도 얼마 안 있으면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무겁게 왜 짊어지고 다닙니까. 편안하게 다니지.

그러니깐 마음의 짐을 짊어지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걸 놓고 살라. 모든 걸 말겨 놓고 살라 이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거기다 맡겨 버리면 해결이 나요. '이것은 못해. 이것은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러니깐 그게 실랑이를 하게 되죠. 모두가 지혜와 아량이 넓어져야 됩니다. 두 팔을 쫙 벌리면 우주 천하가 다 내 품에 들어와야 돼요. 바다를 보면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마음의 도리를 지극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9면에서 계속

거를 다 제거할 수가 있을까 이러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러분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와 같고 어떤 땐 나도 짜증이 날 정도로 화가 일어나요. 진짜 가슴에서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슬픔에서요. 나와 더불어 가엾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어떤 집은 이 병 저 병, 이 애고 저 애고를 가지고 다섯 식구가 사는 사람이 네 식구가 다 그러니 한 식구가 그 배겨낼 수가 있나요. 이런 것도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람은 이렇기도 해요. 전자에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무당 노릇을 안 하면 식구가 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그 습과 착과 그 타신을 믿는 그런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못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살림살이, 내 삶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유전성이나 영계성, 아까 얘기하던 무당 노릇을 안 하면 식구가 다 그냥 입원을 하게 되고 아프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노라고, 예전에 원주에 있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처리해 준 것은 바로 그분이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거기다 다 맡겨 놨기 때문에 그게 해당됐습니다. 그게 해당돼서 그런 걸 다 없애고 보니까 자식들이 그때서야 시집 장가를 가는 데 걸림이 없었답니다. 그게 좀처럼 한 일입니까? 이 영계성이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이고, 유전성이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 뿌리와 자기 뿌리가 동일하게 엮어져 간다는 거. 내가 항상 얘기하듯 저 전기가 가설이 되어 있는 데는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즉, 어머니다 아버지다 자식이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인과를 가졌다면 선덕이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악행을 했다면 악행대로 악행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가정 살림살이 하면서, 즉 말하자면 지금 사시다가 돌아가시잖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본다면 지금은 과거죠? 그래서 현실로 다시 무명을 쓰고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미래이자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삼독이 삼독 속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이 소립니다.

그 삼독을 제거하려면 관법을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관법을 하시되 묘하게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걸 개의치 말고 해라 이겁니다. 잘되고 못되는 걸 개의치 말고 해라. 믿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믿는데, 잘되든지 안되든지 내 자식이지 잘되면 내 자식이고 못되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부모지, 잘나면 내 부모고 못나면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주인공이라는 것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진화시켜 가면서 온 바로 선장이니깐요. 선장의 근본이니깐요. 그러니 잘되면 '아이고! 주인공, 감사하다.' 그러고, 안되는 거는 '아이고! 내가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안돼?' 이러고 등한시하게 되죠. 그게 등한시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개의치 않고 믿어라 이러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잘되면 믿고 안되면 안 믿는 거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믿는데 잘된다는데 왜 나는 안되나? 안되니깐 그까짓 건 믿으면 뭘 해?'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되죠. 안되든 되든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자기를 이끌고 가는, 진화시키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장본인의 근본이 바로 자기한테 있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자부처이자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어야 마음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이룩할 수 있고, 세세생생에 이룩할 수 있어서 항상 마음이 밝아서 자식들의 뿌리도 밝게 불을 켜 줄 수가 있고, 부모 조상들에게도 불을 켤 수가 있어서 이 세상에 다시 천도가 돼서 나올 때도 조금도 어김없이 선행과 그 모든 보살행을 그대로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로 해서 돌아가신 부모들도 들 아니계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이 세상에 출현할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 해결하려면

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서 참선 수행을 하고 그러면 제 스스로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다 좋은데 다른 사람이 그런 패턴대로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끄달리면서 받는 고통을 보면 제가 괴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괴롭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는데 그럴 경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요?

답 여러분이 세상을 넓게 못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살아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깐 천당도 이 자리고 지옥도 이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들 아닌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회장이 없으면 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한쪽만 없어도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들이 아닌 평등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건져 주지 못하는 거죠. 둘 아닌 도리를 안다면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건져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통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갖는다면 다 건져집니다. 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들 아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들 아니게 나투는 도리, 즉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도 되고 저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또 한 번 말겨 놓고 항상 밑으로나 위로나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롭게, 자기를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하면서 들 아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밟는다면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그렇게 해서 충만히 했다면 만 명이 와서 "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돼서 이럽니다. 저런 것이 저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래도 그 사람들이 응해 달라는 대로, 즉 말하자면 병이 나서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약사가 돼서 도와주고, 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관세음이 돼서 도와주고, 또는 명이 짧아 괴로워하는 사람에겐 칠성이 돼서 도와주고, 이렇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 할 수 있는 거죠.

일체를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관해야 합니다!

전파가 왜 두루 합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세계 곳곳으로 인공위성으로 전파를 통해서 금방금방 신문이 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지수화풍의 바탕이 아니라면 이 마음의 요소가 묘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나온 겁니다. 이 모두가, 지금 발전되고 과학도 연구하고 의학도 연구하는 것도 50% 무(無)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100%를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견했지만 너와 들이 아닌 도리를 모르고 너와 들이 아니게 나툴 줄을 모르고, 그런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원자에서 입자가 얼마나 많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 입자가 분자로 화했을 때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리를 우리가 먼저 알려면 나를 발견하는 도리, 들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놓고 가고 들 아니게 나투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하겠다!' 한다면 높은 것은 얕게 하고 얕은 것은 높이고 그렇게 평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모두가 들이 아닌데도 몸이 아파서만 아픔이 아니라 너무 쓰라리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아요. 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거짓 해 본 일도 없고 헛말 한 예도 없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받은 일도 없고 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있는 사람한텐 좀 받아서 없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또 다니는 데 노비도 하고 이러죠. 내 몸뚱이도 얼마 안 있으면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무겁게 왜 짊어지고 다닙니까. 편안하게 다니지.

그러니깐 마음의 짐을 짊어지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걸 놓고 살라. 모든 걸 말겨 놓고 살라 이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거기다 맡겨 버리면 해결이 나요. '이것은 못해. 이것은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러니깐 그게 실랑이를 하게 되죠. 모두가 지혜와 아량이 넓어져야 됩니다. 두 팔을 쫙 벌리면 우주 천하가 다 내 품에 들어와야 돼요. 바다를 보면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마음의 도리를 지극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육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8제의식1 38.상주권공48제의식2 39.상주권공48제의식3 40.상주권공48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제4기 영남 범음·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4기 개강일 2005년 11월 28일 (목) 오후 3시
강의일 : 매주 월 · 목(오후 3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수련일시 : 2005년 11월 22일 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활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침대 · 황토손 · 황토불판

황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황토손 · 황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온 황토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장이나 가정에 황토방을 시공해 드립니다.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

황토의 특별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황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기운이 되살아나 건강을 기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황토불판에서 알콤 요리의 맛을 느껴 보십시오.



황토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 제품 가격 : · 황 토 침 대 (1인용) : 1,500,000원 · 황토손 + 황토수건 : 20,000원 · 황토불판 + 황토쇠판 : 25,000원 · 황토손 + 황토불판 셋트 :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 농 협 : 178990-56-003521 (이점숙) · 대구은행 : 023-07-473126-001 (이점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 · 경북지사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이노사나 합장

추워 질수록 '뇌졸중' 걱정

환절기 '뇌졸중' 예방과 치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 '뇌졸중'.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악명 높은 질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만명이 뇌졸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엔 더욱 뇌졸중이 찾아들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번 발병했다하면 완치가 불가능하고 그 치료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뇌졸중. 그 예방과 치료법을 불교계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뇌졸중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본다.





중풍환자들의 근력회복과 심리적 자신감 고양을 위해 성북노인복지관 중풍주간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들. 왼쪽부터 웰빙걷기운동, 치료레크리에이션, 침술치료.

이렇게 예방하세요

오전 8~10시 사이 운동 피해야 목욕탕 등 급격한 기온변화 주의

뇌졸중의 전조증상은 △혀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 말을 못할 때 △일어섰을 때 균형을 잃고 기울어질 때 △갑자기 한쪽 눈이 안보이거나 사물이 둘로 보일 때 △갑자기 손 동작이 둔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 뇌졸중으로 의심할 수 있다. 때문에 김강한의원 김강원장은 "45세를 넘어서 중년이 되면 뇌졸중 정기검진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는 응급처치로 몸에 꽉 끼는 옷은 벗기고 허리띠를 풀어줘야 한다. 우황청심원을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식 장애가 심할 경우 지체 없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거나 날씨가 추울 때는 야외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 오전 8~10시 사이에 운동하면 뇌혈관이 갑작스레 수축돼 뇌졸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연도 필수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은 1.5배가량 높다.

뇌졸중 예방에 좋은 음식은 현미잡곡밥, 야채류, 해조류, 전통발효식품 등이며 인스턴트식품과 빙과류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겨울철 추운 곳에서 장시간 있거나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오는 것은 금물.

특히 고혈압 환자나 노인들은 화장실, 목욕탕 등 급격한 기온 변화나 혈압변화를 가져오는 곳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충고한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료해요

집앞까지 방문하는 문전서비스 웰빙걷기 등 프로그램 인기 높아

"재활치료 비용도 저렴하고, 동병상련의 사람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심리적 위안이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중풍치료실이 또 있겠습니까."

대전에서 건축 사업을 하던 김종호(70)씨. 1996년 9월에 뇌졸중에 걸려 왼쪽 수족이 마비됐다. 6년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꾸준한 효과를 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중풍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해 재활치료를 받게 됐다. 현재 김종호씨가 중풍치료를 받고 있는 곳은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치매 · 중풍주간보호센터. 이곳을 이용하는 김씨는 복지관의 문전서비스(door to door: 셔틀버스가 집 앞까지 방문하는 서비스)로 오전 11시 복지관에 입소해 오후 4시까지 재활치료를 받는다.

전문치료인력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쾌적한 환경으로 병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성북노인복지관은 중풍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치료는 월요일은 침술과 진료 및 물리치료, 화요일은 음악치료와 원예치료, 수요일은 스포츠마사지와 치료레크리에이션, 목요일은 미술치료와 웰빙걷기운동, 금요일은 침술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침술치료가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침을 맞으면 뭉쳐있던 근육이 단번에 '확~' 풀리는 기분입니다. 효과도 이틀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거동하는데도 불편함이 덜하고요."

치료레크리에이션은 그룹을 형성하여 어르신들이 퀴즈와 각종 기구들을 이용해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 회복과 상 · 하지 근력회복을 돕는다. 특히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특화된 중풍재활치료는 '웰빙걷기운동'과 '원예치료'.

웰빙걷기운동은 도우미들의 부축으로 인근 사찰이나 공원, 동물원 등지를 산책하는 것. 사찰에서 절도 하고 동물원에서는 뱀을 목에 걸치게 해 담력도 쌓으며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 원예치료는 불편한 수족을 움직여가며 화초를 가꿔 성취감과 자신감, 정서적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박미숙 성북노인복지관 중풍주간보호센터 팀장은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맡고 있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침술사 등의 의료서비스는 병원 못 지 않다"며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60세 이상의 중풍환자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복지관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글 · 사진=노병철 기자

중풍 재활치료 하는 복지관들

지역	복지관	전화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02)929-7950
	서초노인종합복지관	(02)578-1515
	수서명화복지관	(02)459-2696
	역삼재가주간보호센터	(02)564-9294
	종로노인주간보호센터	(02)741-4904
	하얀목련주간보호센터	(02)3217-6816
	중랑노인복지관	(02)493-9966
경기	덕양노인종합복지관	(031)969-7781
	일산노인종합복지관	(031)979-8677
	일산종합사회복지관	(031)975-3322
부산	어진샘노인주간보호센터	(051)784-8005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271-0560
	진구중풍주간보호센터	(051)893-0035
	용호중풍주간보호센터	(051)628-6737
	효원중풍주간보호센터	(051)865-0300
대구	월배노인주간보호센터	(055)634-8166
	어르신마을주간보호센터	(055)421-0881
	청솔어르신주간보호센터	(055)352-8914
경북	금오중풍어르신주간보호센터	(054)458-0230
전남	동여수노인복지관	(061)643-1966
	여수시노인복지관	(061)685-2381
강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033)762-8131

깨달음(도통)과 불치병 · 난치병 · 각종암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 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 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무량한 功德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 체험, 빙의 · 해리 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 천도비법등 신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자비의 손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善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現 참선공 협회장

전수반 안내
금요반 · 토요반
16:00~21:00 까지(12회 과정)
● 전수비 : 200만원

특별전수과정
목요반
14:00~21:00 까지(6회 과정)
● 전수비 :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神임상최면사 자격증 ·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 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신선암 神치유명상센터 神임상최면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대원불교대학
마포 불교방송 학사이전

경 총동문 초청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 축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모교를 빛내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중불교의 원력으로 불자들과 함께해 온 대원불교대학이 마포 BBS불교방송으로 학사를 이전합니다.
금번 학사이전 기념으로 아래와 같이 총동문초청 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힘을 복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불교대학 운영이사회장 송석구(전 동국대 총장)
대원불교대학 학 장 허경구

■ 운영이사
권기종(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성택(고려대 교수)
이성언(불교방송 사장) 구자선(태우주택 회장)
김인숙(불교여성계발원장) 송영근(예비역 중장)
황수로(일맥문화재단 이사장)
이영숙(코모도호텔대표)
최명준(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무순]

안 내
● 일 시 : 불기2549(2005)년 11월 26일 (토) 오후 5시
● 장 소 :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큰법당(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출구)
● 문 의 : 대원불교대학 교무처 02)754-1613 / 773-9171
※ 새로이 동문회 명단을 작성코자 하오니 주소 및 연락처를 학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 가까운 동문들께 연락하시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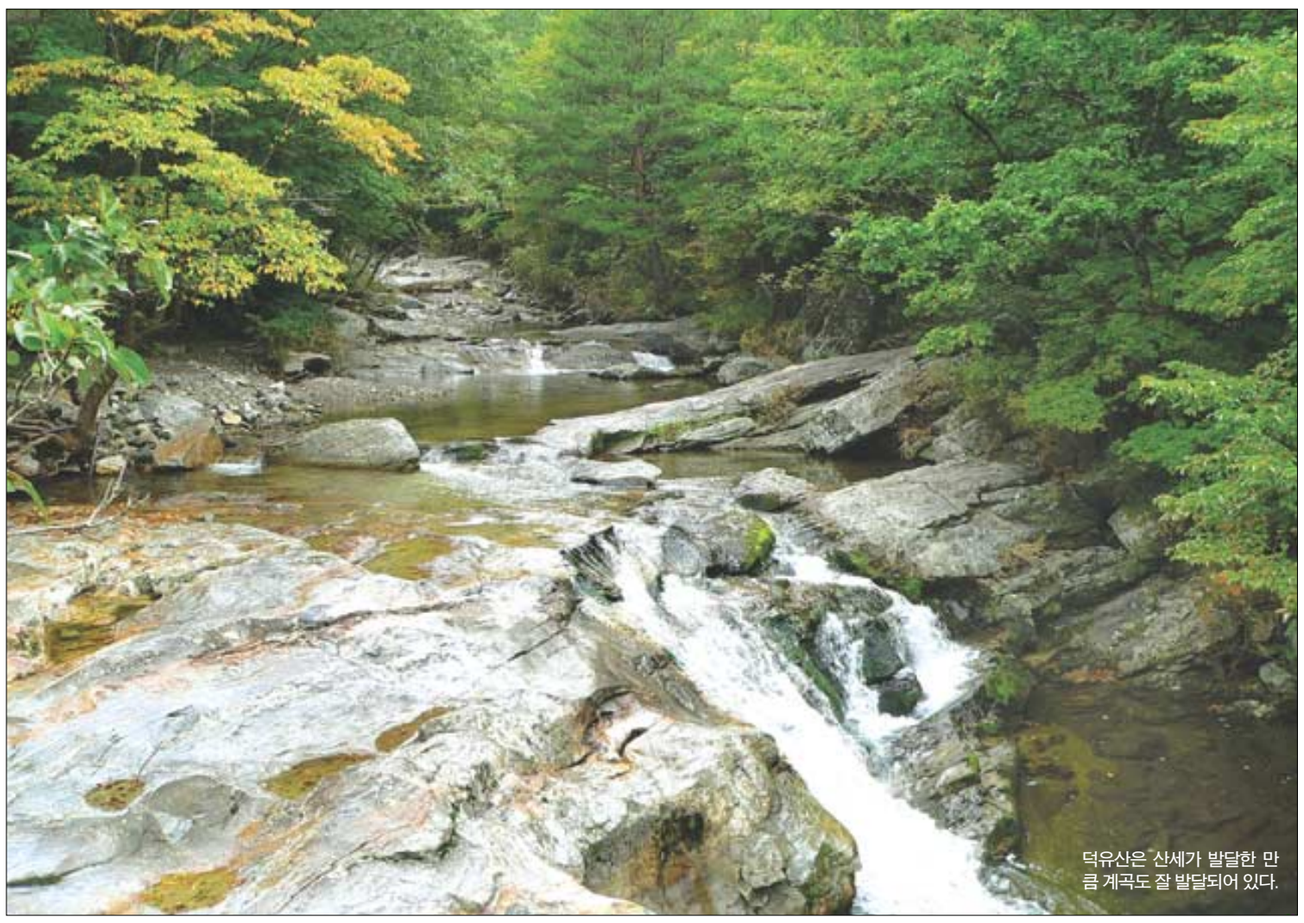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9) 덕유산 백련사

9천 성불공자 머물던 후덕한 계곡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신라 신문왕 때 백련선사가 덕유산 기슭에 핀 백련을 보고 백련사를 처음 지었다고 한다. 코스모스와 조화를 이룬 백련사의 모습.



덕유산은 산세가 발달한 만큼 계곡도 잘 발달되어 있다.

화강편마암으로 이뤄진 계곡…담(潭) 소(沼) 발달
경내 계류 중심으로 기도처 · 요사채 나눠 가람배치
천연기념물 주목은 값이 비싸 도벌꾼 표적 되기도

해발 1614m인 덕유산은 이름 그대로 후덕한 육산이다. 육산은 골산에 비해 산세가 둥글고 영역이 넓어서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산세가 장대한 만큼 계곡도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우리 국토의 남부와 중부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이다.

백련사(白蓮寺)는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 아래 자리하고 있다. 백련사 가는 길은 구천동이 그 들머리이다. 덕유산 남쪽 기슭 거창에 살았던 명종 때 선비 갈천 임훈(林薰)은 9000명의 성불공자(成佛功者)가 머문 땅이라 하여 '구천둔(九千屯)'이라고 했다.

백련사에 이르는 산길과 계곡 주변에는 다양한 활엽수들이 거대한 천막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다. 곰의 말채나무, 다릅나무, 대팻집나무, 복장나무, 비목, 시닥나무, 황벽나무…. 가히 활엽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구천동 계곡은 기암절벽보다 암반과 소가 많이 발달해 있다. 그것은 덕유산의 지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매표소에서 백련사에 이르는 구간의 계곡 주변은 주로 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담(潭)이나 소(沼)가 많이 나타난다. 정상과 능선 등 고산지대는 변성암류인 편마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암절벽이 없다.

구천동 계곡에 서식하는 물고기로는 금강모치, 갈겨니, 꺽지, 돌고기, 동사리, 버들치, 감돌고기 등이 개체수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백련교 위쪽 계곡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세워놓은 물고기 안내판에는 열목어, 어름치, 돌상어, 쉬리 등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오가는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백련사 가는 계곡 길은 가파르지 않아서 산행하기에 좋다. 군락은 아니지만, 다양한 여름, 가을꽃이 군데군데 피어있다. 촛대승마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고산식물이다. 키는 1m이상 자라며, 이곳에서는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흰 꽃을 볼 수 있다. 꽃차례의 생김새가 촛대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약간의 독성이 있지만, 산중 절간에서는 독을 울궈내고 어린 순과 잎을 먹는다.

백련사 주변으로 건장한 전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나무를 대신해 백련사의 겨울을 지켜주는 벗이다.

백련사는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신라 신문왕 때 백련선사가 덕유산 기슭에 핀 백련을 보고 토굴을 처음 지었다고 한다. 고려 때는 14개의 산내암자를 두었고, 조선 중기에는 부휴, 정관, 벽암, 매월당과 같은 명승들이 거쳐간 기록이 있다.

백련사가 앉은 자리는 정상인 향적봉 중턱, 경내 한가운데로 한 줄기 계류가 향적봉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백련사의 가람배치는 그 계류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불보살 공간과 생활하는 요사채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계류 건너 요사채 공간은 거의가 근래 새로 지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 전까지는 밭이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됐던 백련사가 법등처럼 끊이지 않는 불사로 거듭나 있다. 심산유곡에 들어선 절치고는 터도 넓고, 전각들도 많은 편이다. 백련사 경내를 수놓은 코스모스는 멕시코에서 건너온 외래종이긴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들어와서 우리들 정서 깊숙한 곳에 자리한 꽃이다. 그래서 '살사리'라는 재미있는 우리 이름도 갖고 있는 꽃이다.

덕유산에서 관찰되는 나비로는 왕자팔랑나비, 거꾸로여덟팔나비, 노랑나비, 모시나비, 산제비나비, 청띠신선나비, 뱀눈나비, 암먹부전나비, 은판나비, 왕나비 등이 있다. 백련사 경내에서 관찰된 왕나비는 비교적 개체수가 적은 종에 속한다.

왕나비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나비는 모두 3종이 있는데, 토착종은 왕나비 1종 뿐이라고 한다. 제주도를 비롯해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하지만, 때로는 태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멀리 북한지역까지 북상하기도 한다. 이름과는 달리 날개 길이가 10cm 안팎의 중간 크기 나비이다.

계류 건너에 있는 삼성각 댓돌에 앉으면 전북과 경남을 가르는 능선이 눈앞 멀리 지나가고 있다. 거창 송계사가 바로 저 능선 너머에 있다. 북사면 계곡을 따라 전나무들이 군학(群鶴)처럼 우뚝우뚝하다.

삼성각 뒤로 향적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열려있다. 여태까지와는 다른, 제법 가파른 등산로이다. 오로지 등정만을 목적으로 한 등산객들에겐 한 시간 거리이지만, 자연을 돌아보는 탐방길음으로는 두 시간도 모자라는 거리이다. 숲은 여전히 울울창창하여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향적봉(香積峰)이라는 이름은 이 산의 천연기념물인 주목(朱木)에서 근거한다. 주목은 향이 좋고 수피가 붉기 때문에 '향적목(香積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향적목이 8부 능선부터 향적봉 구간에서 70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주목은 1000m 이상의 고산을 좋아한다. 나무 형태는 원추형이며, 붉은 수피에는 윤기가 흐른다. 잎은 진한 녹색이며 자잘하게 붙어있다. 가을에 작고 붉은 열매가 달린다.

주목은 값비싼 고급 목재로 가끔 도벌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지난달에도 200년 된 주목 한 그루가 도벌된 사실이 등산객들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향적봉에서 중봉에 이르는 구간은 야생화로 도솔천을 이룬다. 곳곳에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 대개 산악인들은 중봉에서 오수좌굴을 지나 백련사로 하산하지만, 향적봉을 오르지 않고 백련사에서 곧장 오수좌굴(吳首座窟)로 가는 계곡로가 열려 있다.

먼 옛날 오씨 성을 가진 스님이 수행했다는 오수좌굴은 50여명이 들어설 수 있는 자연동굴이다.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는 '계조굴(繼祖窟)'로 나와 있다.

숙종 때 백의정승으로 이름난 윤증의 글에 따르면, 앞을 못 보는 노맹(老盲) 스님이 같은 처지의 여러 맹인스님을 모아놓고 도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한다. 상상만으로도 감동적인 경계이다. 그러나 윤증이 차까지 얻어 마셨다는 그 맹인스님들은 진짜 맹인이라기보다 도를 깨우치지 못한 자신을 낮추어 한 말일 것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덕유산 정상 향적봉 부근에는 300~500년생 구상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왕나비는 이름과 달리 날개길이가 10㎝ 안팎에 불과하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정목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라벤더 향기 같은 영혼의 비타민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과 함께 하세요.

스님의 정감 있는 목소리가
맑은 음악에 실려
세파에 다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저녁 10시 5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대구 94.5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